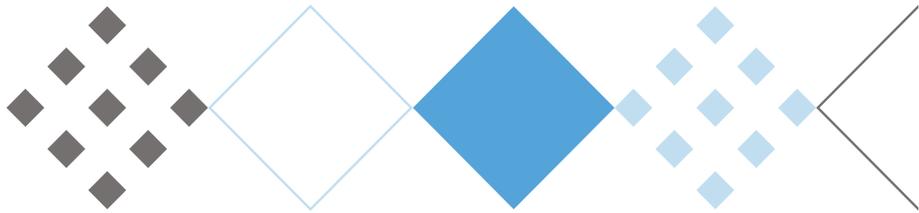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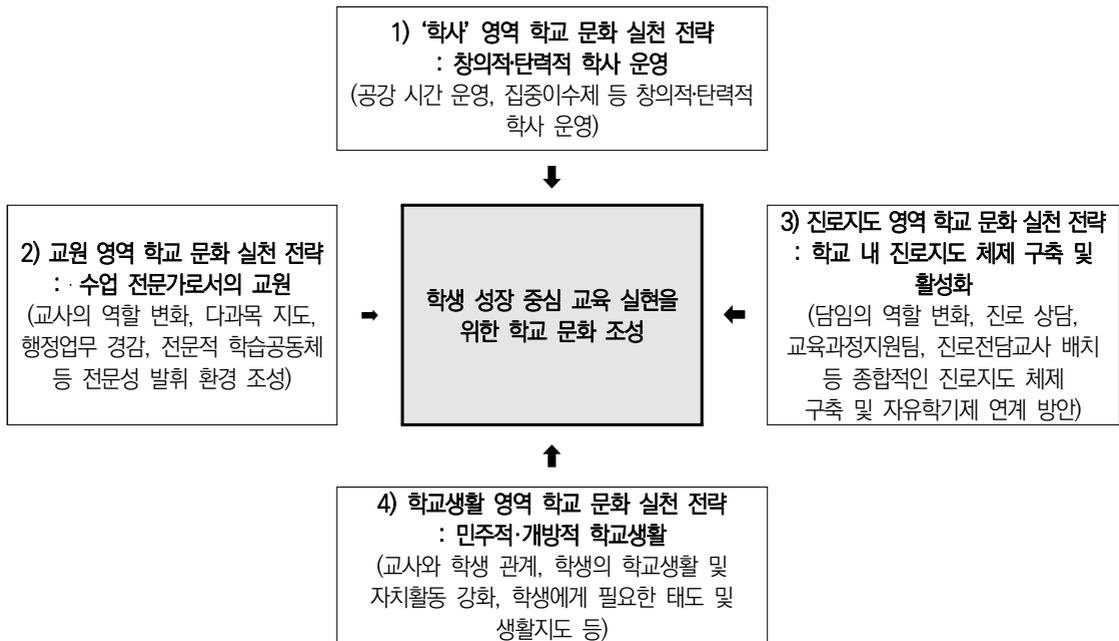


연구책임자	황은희(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임종현(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한국교육개발원) 이윤서(한국교육개발원) 이재덕(한국교원대학교) 백선희(경인교육대학교) 임현정(단국대학교)
연구협력관	여미주(교육부)
연구원	박인선(한국교육개발원)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 혁신을 넘어 학교 운영 체제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며, 교사와 학생의 학교생활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들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고교학점제로 인한 폭넓은 변화를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터하여,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학교 문화를 탐색하였음. 하나의 연구에서 넓은 의미의 학교 문화를 총체적으로 탐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 영역을 1) 학사, 2) 교원, 3) 진로지도, 4) 학교생활의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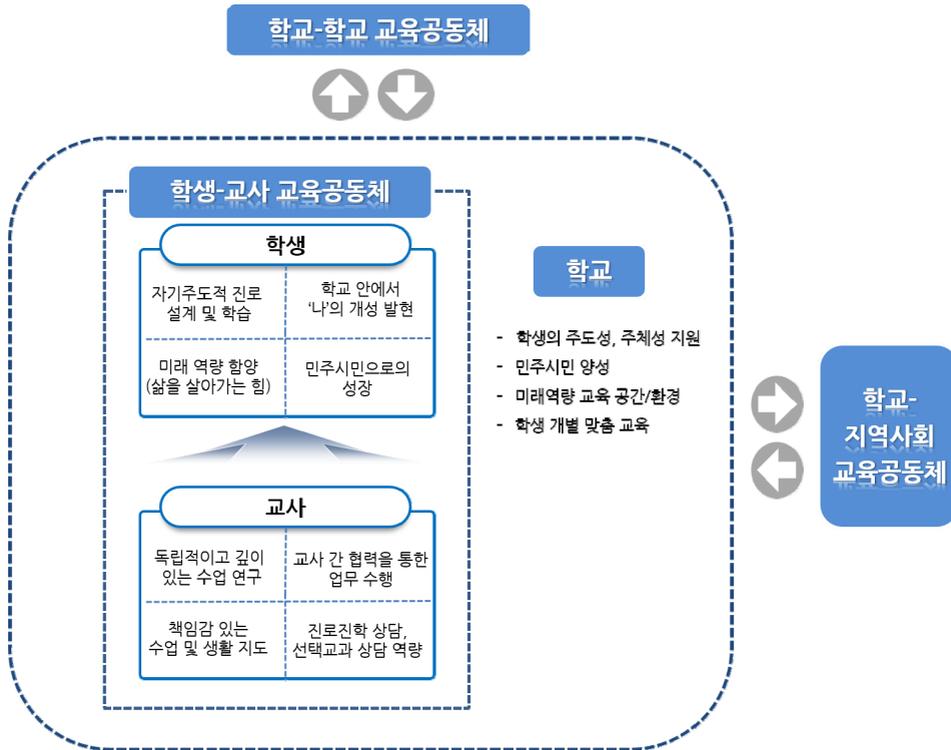
[그림 1] 학교 문화 조성 영역(안)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문헌 분석: 고교학점제 및 고교교육 체제 혁신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교 문화 및 교육 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 ② 설문 조사: 연구학교·선도학교(교사, 학부모, 학생), 일반학교(교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③ 델파이 조사: 학교 문화 조성의 4가지 영역 및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에 대한 2단계 델파이 조사 실시(전문가 32명 참여)
 - ④ 포럼: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 (2019년 10월 25일(금), 일산 킨텍스 개최)

[연구 결과]

- 연구결과,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그림 2]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

-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2〉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영역	조성해야 할 문화	실천 방안
학사 영역 '학교 문화'	학생 중심의 탄력적 학사 운영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사항만 명확히 규정(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학교에서 유연하게 하도록 적용) · 학생 개인별 학습포탈 개발 및 나이스와 연동(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수강신청 도구가 아니라 학교 개설 과목을 안내, 상담 이력 조회, 학생 시간표 작성·수정, 수강과목의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포탈로 발전)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학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선택과목의 점수에 대한 책임(재수강, 졸업유예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 · 학생의 자기 학습 과정, 누적 성적 기록을 확인하는 성적 정보 시스템 도입 · 교사의 출퇴근에 대한 유연성, 자율권 부여
	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학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이수가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적 책무성에 기반한 개념임을 안내 ·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적용 · 학생의 선택과목 개설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대학, 기업, 기관)의 교과 개설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교원 영역 '학교 문화'	다과목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수업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교과 정체성 함양(교과가 아닌 교과군 전문성 함양 시스템(포괄적 전공 자격), 복수 교과 자격에 대한 인센티브, 교원양성단계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의무화, 임용단계 다과목 전공자 우대) · 표준시수제 도입(표준시수 초과 또는 복수 교과 지도 시 초과 수당 지급) · 다과목 지도를 위한 수업 준비 시간 확보(수업시수 감축) · 다과목 수업 전문성 함양 연수 체계화 및 확대 ·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대한 교사 재교육 · 학생과 학부모 대상 다과목 지도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 단기인력(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의 활용 지원 · 온라인 정규수업(실시간, 쌍방향) 확대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담임제의 담임 역할 재구조화(축소) · 담임의 역할을 학습코디네이터(학습컨설턴트) 형태로 전환 · 학생이 진로에 대한 과목선택을 지원하는 안내자 역할 부여 · 진로전담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적 진로지도 체계 구축(진로정보 제공 & 진로 상담 & 과목 이수 관리 & 교과 연계 진로 교육 등) · 교사의 행정 업무 축소를 위한 행정업무 전담팀 구축 · 과목선택 지도 및 교과 내 진로교육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

영역	조성해야 할 문화	실천 방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동아리, 교사 멘토링, 교사 간 코칭 등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을 학교종합지원센터로 재편하고 교수학습 및 교원의 교육활동(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지원 역할 중점 수행 교사 간 공동체가 작동하기 위해 자유재량 확대 필수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중학교-고등학교 간 진로탐색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자유학기제부터 진로 프로파일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고등학교까지 연계 관리 중학교 3학년 단계에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집중학기제 편성·운영
	모든 교사들의 진로지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직 교사 대상 진로지도 역량 강화 연수 등 재교육 실시 진로지도 관련 교사의 대학원 진학 및 이종전공 취득 지원 교원양성단계의 교육과정에 예비교사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내용 포함(전공 교과 관련 진로지도 역량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전공적합도를 고려하여 진로설계 및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전공계열별로 연계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서 개발 미래 대학 전공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과정 안내서 업데이트 필요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한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자율과정 안에서 진로탐색 및 선택과목을 다루는 교육과정 편성(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 이수단위 204단위 중 86단위를 학교 자율과정으로 배정)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 관련 교육과정 시수를 필수이수단위로 배정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학생 참여형 혹은 학생 자치형 학교생활 규칙을 수립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상황 및 특성 고려) 전교생 참여 토론회를 통한 규칙 제·개정 제도 도입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 규칙 제·개정 및 전교생 인증 제도 도입 학부모 및 교사 참여형 학교 규칙 제·개정 제도 도입 학생과 학부모 대상 윤리성 교육 실시(부당한 성적 상향 요청 등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사항,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의 책임 등)
	학생별 복수 연도 담임을 맡고 학생을 책임 지도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담임교사제 도입(복수 연도 담임교사제) 담임교사 변경 제도 도입
	교장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청 단위(또는 시·도교육청) 교장학습공동체 지원 고교학점제 관련 (예상되는, 발생된) 문제의 해결방안 및 대처방안 대한 아카이브 개발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강 시간, (공동 교육과정) 학생 이동 등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 명확화 학생의 수업성취도, 재이수 등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책임 범위 명확화

Contents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 4
- 3. 연구 방법 5

II. 이론적 배경

7

- 1.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분석 9
- 2. 학교 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15

III.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19

- 1. 설문조사 개요 21
- 2. 설문조사 결과 23

IV.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관련 델파이 조사 분석

71

- 1. 델파이 조사 개요 73
- 2. 델파이 조사 결과 75
- 3. 소결 106

V.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109

- 1.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111
- 2.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12
 - 가. '학사'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12
 - 나. '교원'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22
 - 다. '진로지도'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29
 - 라. '학교생활'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36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1

1. 결론

143

2.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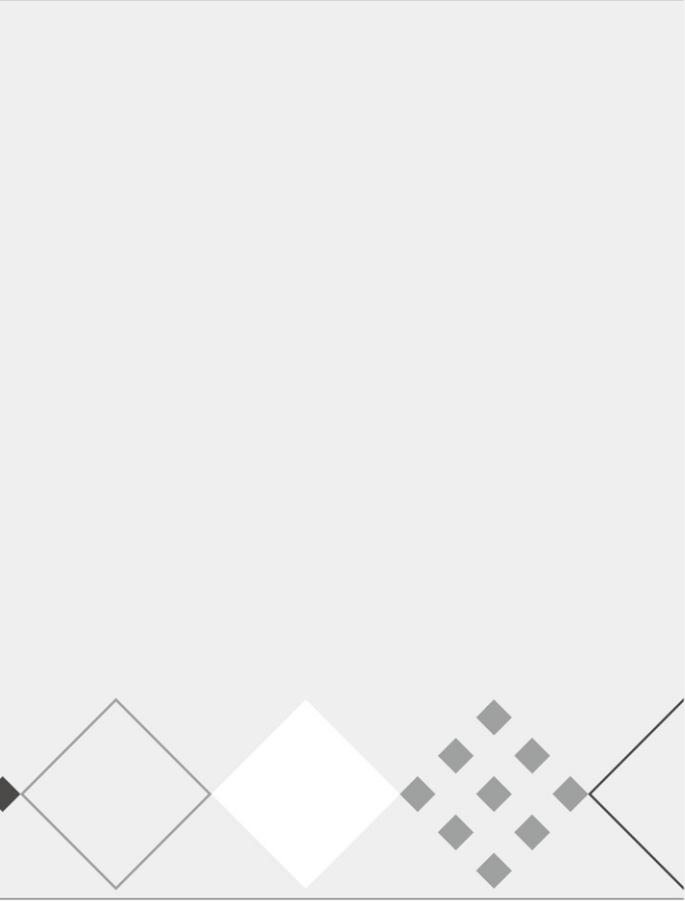
144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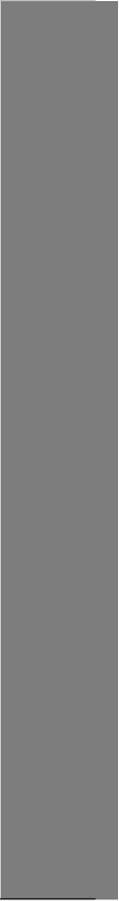
145

부 록

1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제도이다(교육부, 2017).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실행을 위해 2018년~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후,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장기적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교육부, 2019). 고교학점제는 입시 중심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육을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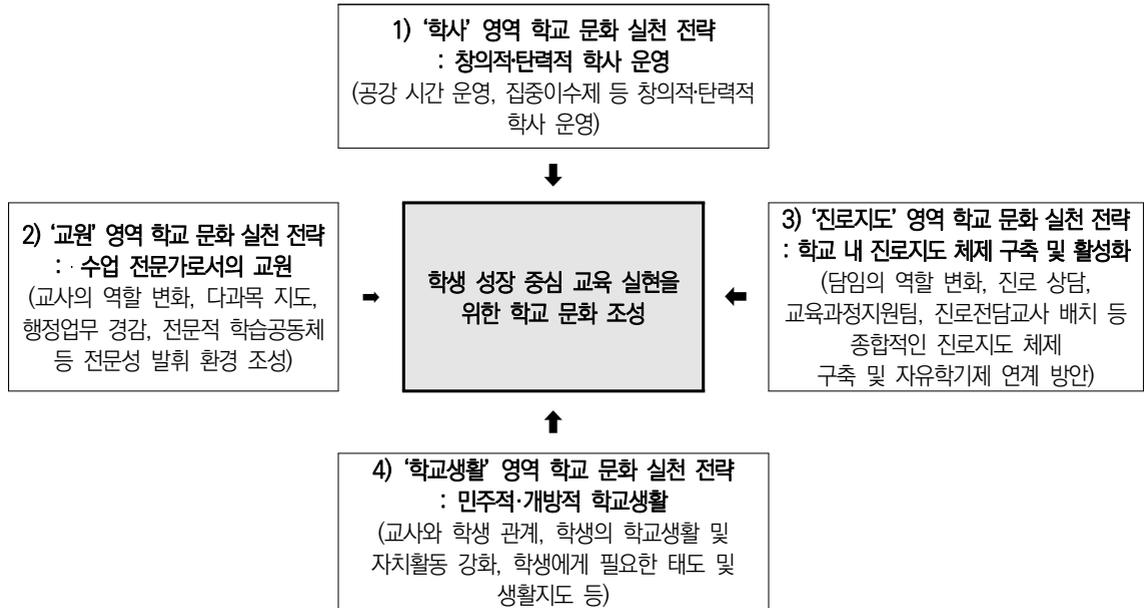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고교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체제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 방식 및 졸업제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 탐색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될 것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만, 정해진 성취수준을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재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율 선택에는 그에 따른 책무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에 따라 본인의 담당 교과 이외에 여러 과목의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수강신청을 위한 진로 상담, 학생 개인에 대한 교육과정 컨설팅 및 시간표 관리, 학생의 학습 시간과 공간의 다양화에 따른 지도 등이 필요하므로 기존 담임교사의 직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학교 문화란 학교 조직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산출물로서(Cummings & Worley, 2005), 학교 조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근원적인 존재가 된다(Alvesson, 2002).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고교교육 체제의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점, 교사의 역할,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학교 문화가 함께 바뀌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비전을 수립하고,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학교 문화의 개선 영역을 탐색하여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에서 넓은 의미의 학교 문화를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 영역을 1) 학사, 2) 교원, 3) 진로지도, 4)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내용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1] 학교 문화 조성 영역(안)

상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교 문화 조성 영역 탐색 및 연구 방향 설정
- 둘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및 학교 문화 실태 분석
- 셋째,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비전 제안
- 넷째,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영역별 실천 전략 제안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분석
- 교육환경 변화, 미래교육 관련 자료 분석
- 고교교육 체제 혁신 관련 선행연구 분석

나. 설문조사

- 목적: 고교학점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분석, 학교 문화 개선 영역 및 방향 조사
- 대상: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학교별, 학년별 1개 학급 표집), 일반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고교학점제 미시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부 학교 표집)
- 내용: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및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실태 분석, 학교 문화 개선 방향 및 요구 조사

다. 델파이조사

- 목적: 고교학점제 비전 수립, 학교 문화 개선 영역별 실천 전략 도출
- 대상: 고교교육제도 및 미래교육 관련 전문가, 고교학점제 관련 전문가

라. 전문가협의회 및 포럼

- 델파이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포럼 개최

실행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 조성 영역 탐색 및 연구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 조성의 필요성 도출 및 연구 모형 정립 •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 요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및 학교 문화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관련 인식 조사, 학교문화 조성 실태 및 방향 조사를 위한 조사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초점집단인터뷰 •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모형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조성 모형 수립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조성 모형 (비전, 목표, 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영역별 실천 전략 도출 • 학교문화 조성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 결과 분석 •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포럼 개최 • 연구진 집중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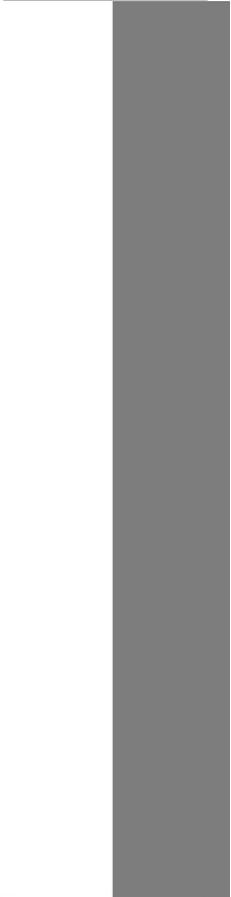
[그림 I-2] 연구 모형



II

이론적 배경

1.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학교 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II. 이론적 배경

1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분석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 내용에는 주로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가 있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운영체제·학교 문화·교육과정·교육평가 개선 방안 연구, 고교학점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존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협의회/자문, 사례분석, 포럼/콜로키움, 전문가 의견(델파이),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등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자역과 남궁지영(2011)의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는 고등학교의 학점제 운영 모형과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둔 연구로서,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학점제의 개념 정립·국내외 사례 시사점 도출, 학점제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학점제 운영 모형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구자역과 남궁지영(2011)이 다룬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제의 개념을 학술개념과 정책 및 실행개념으로 나누어 정립하였다. 둘째, 학점제 운영의 기본방향 탐색, 유형별 학점제 운영 예시 모형 개발, 단위제의 학점제 전환방안 탐색 등 학점제 운영 실행 방안을 탐색하였다.

김정빈 외(2017)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로서,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설문조사, 고교학점제 및 학생평가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김정빈 외(2017)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의 개념 및 의의를 탐색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및 학생평가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고교학점제 및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의견을 분석하였다. 넷째, 고교학점제 및 새로운 학생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손찬희 외(2017)의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의 맞춤형 선택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체제로서 학점제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한 추진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서,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국내 학생 선택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원고 집필의뢰, 전문가 협의회, 학점제 도입 관련 쟁점 도출 및 해결 방안 탐색을 위한 초점집단 면접(FGI), 정책토론회(포럼)를 실시하였다. 손찬희 외(2017)가 다룬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체제로서 학점제의 개념적 요건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학점제 도입 관련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학점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도입 요건의 충족, 도입 지원체제 구축, 대입전형 연계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다섯째, 학점제 도입 방안과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주주자 외(2017)의 고교 무학년 학점제 구현 방안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무학년 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방법으로 문헌 분석, 교육과정 부장과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실태와 효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초점집단면담(FGI), 무학년제 혹은 무학년 학점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사례연구, 교육과정 장학사,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 학교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 학교 교육과정담당부장과 교육과정 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주주자 외(2017)가 다룬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학년 학점제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무학년 학점제를 위한 조건 등 무학년 학점제 관련 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과정 다양화, 특색화 운영 학교에 소속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셋째, 무학년제 혹은 무학년 학점제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무학년 학점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넷째, 학교교육과정이 무학년 학점제로 운영되기 위한 실행 요건 및 기본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김진숙 외(2018)의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는 학점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학점제 정책 구현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서, 연구방법으로 문헌 분석, 외국 학점제 교육과정 사례 수집을 위한 방문 조사 및 인터뷰(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설문 및 면담 조사, 학교 방문 면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 협의회,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김진숙 외(2018)가 다룬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개념을 탐색하였다. 둘째, 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조, 학점제 운영, 학점제 관리 등 외국 고등학교의 학점제 교육과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광우 외(2018)의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연구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업시수의 적정화,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로서, 연구 방법으로 문헌 분석, 전국 57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 조사,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과 관련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고교학점제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였다. 이

광우 외(2018)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사 운영의 유연화를 위한 고교 3년간 이수 학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 하여 학생이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할 경우, 이수 과목을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에 관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셋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할 경우 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명애 외(2018)의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교육평가 개선 방안 연구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해 평가 측면에서 선결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둔 연구로서,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 운영하는 국내 사례 및 고교학점제 운영 국외 사례 조사, 평가 방안을 둘러싼 고교학점제 도입 실행 관련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의견 조사, 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교원과 교육 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방안을 둘러싼 쟁점 및 평가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토론회)을 실시하였다. 이명애 외(2018)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 연구 및 교육평가 쟁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운영 국내 사례 및 고교학점제 운영 국외 사례에서의 평가 방안을 조사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쟁점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분석하였다. 넷째,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평가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동엽 외(2018)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양성·연수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설문조사, FGI를 실시하였다. 이동엽 외(2018)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역량 인식, 연수 참여 의지, 진로·학업 상담 역량 인식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교원양성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원연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은 외(2018)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원의 선택과목 확대 범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설문조사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선택과목 편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의 전공표시 과목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선택과목 확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최수진 외(2018)의 연구는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강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사례조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최수진 외(2018)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수급 및 교원 업무부담 완화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고등학교의 선택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교·강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재덕 외(2018)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필요한 교원 규모를 추산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교원 수 추산 모델링 등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고등학교 학생 수 추산, 둘째, 필요 학급 수 추산, 셋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이다.

박성철 외(2018)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방안 및 시설규모 산정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학교 현황 조사가 실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환경과 관련된 고교학점제의 쟁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시설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조성 방향을 도출하였다. 넷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규모 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박동열 외(2018)는 직업계고의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포럼 등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직업계고 교원의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재배치 방안을 분석하였다.

〈표 II-1〉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저자 및 연구명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정책적 제언
구자역 외(2011) 학점제 도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제의 개념 정립 • 국내·외 학점제 사례 분석 • 학점제 운영 실행 방안 탐색 • 학교유형별 학점제 운영 예시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식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 고교 내신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 NEIS 기재방식 개편 •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 학년 중심에서 학과 중심으로 교사조직 전환 • 행정지원 스텝 확보 • 교사양성체제 유연화 • 전문성 있는 진로상담교사 배치
김정빈 외(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 조사 •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제의 개념 및 의의 탐색 •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및 • 학생평가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 • 고교학점제 및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의견 분석 • 고교학점제 및 새로운 학생평가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 체제와 이수 제도의 일치 지향 •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신 성취평가, 수능 절대평가,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동시적 해결
손찬희 외(2017).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FGI • 정책토론회(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제의 개념적 요건 정립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 • 학점제 도입 관련 쟁점 및 문제점 탐색 • 학점제 도입 방안 제시 • 학점제 추진 전략 및 로드맵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제 개념적 요건의 단계별 충족 • 지역 간·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는 유연한 접근 •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 현장 지원 • 영역별 추진 로드맵 제안

<p>주주자 외(2017). 고교 무학년 학점제 구현 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FGI • 사례연구 •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학년 학점제 관련 이론 논의 •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현황 분석 • 무학년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학교 사례 조사 • 무학년 학점제 구현을 위한 실행 요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중심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구축 • 학습자 주도 연구와 학점 인정 • 과정 중심 질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 교과교실 및 학생 친화적 환경 구축 • 고교 교육과정과 연동된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
<p>김진숙 외(2018).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 • 외국 고등학교 방문 조사 및 인터뷰 • 설문 및 면담 조사 • 학교 방문 면담 조사 •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 협의회 •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개념 탐색 • 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분석 • 외국 고등학교의 학점제 교육과정 사례 분석 •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학점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단기 방안(~2021) 제안 • 2020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을 개정하고 학점제를 구현하는 중기 방안(2022~2024) 제안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장기 방안(2025~) 제안
<p>이광우 외(2018).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연구-수업시수, 학교 밖 학습경험,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온라인 의견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수의 적정화 방안 •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고교 졸업 이수 단위(204단위)를 180학점 또는 192학점 수준으로 축소 • 1학점을 15회 또는 16회의 수업량으로 제안 •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제안 • 방과 후, 주말, 학기말, 방학을 통한 재이수제 운영 제안 • 재이수 과목의 평가 결과 기록 방식으로 1안(미이수/재이수 성적 병기) 과 2안(재이수 결과만 기록) 제안
<p>이명애 외(2018).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교육평가 개선 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사례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포커스 그룹 의견 조사 • 심층 면담 • 전문가 포럼(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 및 교육평가 쟁점 분석 • 국내외 사례에서의 평가 방안 조사 • 평가 쟁점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요구 분석 • 평가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수준 및 이수 조건에 따른 학습 질 관리 체제 구축 • 성취평가제의 적용 범위, 시기와 방법의 구체적 제시 필요 • 학생의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 강화 • 학생의 누적 성적 기록을 확인·통보하는 성적 정보 시스템 도입
<p>이동엽 외(2018).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방향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설문조사 •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교과'가 아닌 '교과군'에 대한 교사 전문성 함양 • 교사의 학습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 함양 • 교사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의 교사 입문 촉진 제도 수립 • 교사에게 포괄적 전공 자격 부여 후, 다양한 과목 교수 지원 • 교사 특성(교과, 연령 등), 학교 특성(위치, 규모, 설립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필요 • 학습 컨설턴트 양성 시스템 구축

<p>이상은 외(2018).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 교원의 선택과목 확대 범위 분석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선택과목 편성 현황 • 교사의 전공표시 과목 현황 분석 (복수전공, 부전공) • 선택과목 확대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유연한 교과 정체성 함양 • 학교 교육과정 차별화를 위한 교사공 동체 역량 강화 • 전공 교과와 관련된 교과 연계 선택 프로그램 개발 • 모듈식 융합 수업 설계 및 실행 경험 제공
<p>최수진 외(2018).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강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사례조사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수급 및 교원업무부담 완화 관련 정책과 제도 분석 • 고교학점제 또는 선택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사례 조사 • 교·강사 제도 개선 방향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기관의 지원 역할 강화 • 정규 교원 중심의 운영 기반 마련 •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둔 단계적 추진 • 교육지원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지원센터 운영 • 고교학점제 전담 행정 인력 확보 • 학교의 학생 무한 책임에 대한 부담 경감 • 교사자격기준에 일반대학 교원 추가
<p>이재덕 외(2018).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전문가 협의회 • 교원 수 추산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학생 수 추산 • 필요 학급 수 추산 • 교육여건지표 활용 교원 수 추산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추산(2018~2030) • 복수전공제 및 부전공제 확대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개선 • 면지역, 특수지역의 교원 정원 배치에 관한 기준 보완
<p>박성철 외(2018).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방안 및 시설규모 산정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학교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의 쟁점사항 수집 및 정리 •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시설 활용 현황 분석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조성 방향 •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st Practice 발굴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학교시설 재구조화 • 개별 학교 현장 맞춤형 사업 추진 • 공간재실용을 고려한 공간 활용 • 시설 모형 개발 및 공간 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 연구
<p>박동열 외(2018).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운영 방안 연구: (1)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델파이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직업계고 학점제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교원 관련 쟁점과 개선 과제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재배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희망 학과 또는 자격(직무) 과정 이수를 위한 교과(자격) 선택권 강화 • 동일 학교 내 타 학과 전문교과 이수 또는 타 고교 또는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직업교육과정의 질 관리 체제 수립 • 미래지향적 유연한 학사제도 개편 •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모형 제안(단위학교, 학교 간, 지역 연계, 온라인, 복합형 운영 모형)

2 학교 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교 문화란 학교에 대한 일시적, 피상적 인지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내면화 되어 있는 신념, 가치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면서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Owens, 2001). 학교 문화의 불명확한 개념적 특성으로 인해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학교 문화와 유사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박삼철, 2003). 이에 따라 학교 문화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연구영역은 학교 문화, 학교 조직 문화, 교사문화, 교직원문화, 수업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김민조·이현명, 2015). 학교 문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학교 조직문화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학교문화, 교직원문화, 교사문화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었다(김민조·이현명, 2015). 이 가운데 학교 문화 개선 방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

한유경 외(2012)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는 미래 학교 교육에 기대되는 새로운 학교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서,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 초중고 현장 교원, 학교문화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교과부·연구진 협의회, ‘학교문화 및 학생자체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유경 외(2012)는 학교문화를 학생참여 및 교육적 지원, 학교규칙,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으며, 학교문화 선진화 비전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현황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주요 사회변화 양상 및 학교의 역할·위상 변화를 예측하며 이를 통해 학생자치 역량 강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참여 등 학교문화 선진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재분 외(2014)는 창의성을 중심에 둔 교육문화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델파이 조사가 활용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창의성 중심 교육문화의 개념 정립, 둘째, 창의성 중심 교육문화의 핵심 요소 도출, 셋째,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 정책 및 실태 분석이다. 연구를 통해 학생의 창의성 발달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창의성 함양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창의적 자치 활동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민조(2016)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문화 개선 연구는 학교개선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문화 개선에 초점을 두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학교 패러다임을 공식적 조직에서 공동체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민조(2016)는 공동체로서의 학교 지향이 공식적 조직으로서의 학교 지향보다 우선시되고 중심이

1) 학교 문화 관련 선행연구 중 고교학점제라는 연구 주제의 특성과 연관성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는 연구는 제외하였음. 예를 들어, 학교급 차원에서는 주로 고등학교(또는 중등교육)에 관한 학교 문화 연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고, 특정 주제 및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 문화 전반을 탐색하는 연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될 때, 학교구성원들 간 사회적 관계의 질 제고, 학습문화 구축, 협력적 민주적 학교거버넌스 구축, 교육활동중심 교육행정문화 조성 등 학교문화 변화 차원에서 제시된 학교교육 개선 방안들이 실효성 있고 의미 있게 학교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박균열 외(2018)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운영체제 및 학교 문화 혁신 방향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 및 현장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학교의 변화 방향을 규명하고, 이를 현장에 안내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로서,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한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 연구 방향 및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운영체제 혁신 및 학교문화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연구·선도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학교운영체제 및 학교문화 혁신 방향의 단계별 정책 추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박균열 외(2018)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여건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 및 학교 문화의 변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에 대해 연구 참여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 비전을 제시하고,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학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 고교학점제 문화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I-2〉 학교 문화 관련 선행연구

저자 및 연구명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정책적 제언
한유경 외(2012).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학교문화 선진화 비전 제시 •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규칙 공개 및 학교규칙 관련 수업 실시 • 모호하고 추상적인 학교규칙 구체화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가 및 단체, 지도시설과 협력 강화 • 교육과정 내 학교 봉사 활동 다양화, 가족 봉사 활동 활성화 • 동아리 활동-봉사 활동 연계 운영
이재본 외(2014) 창의성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 면담조사 • 델파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중심 교육문화의 개념 정립 • 창의성 중심 교육문화의 핵심 요소 도출(교육 주체, 사회문화, 교육 기반) •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 정책 및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창의성 발달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 • 자유학기제를 통한 창의성 함양 기회 확대 • 질문과 토론 중심의 학습문화 조성 • 학생의 창의적 자치 활동 지원 강화 • 지역 단위의 창의성 장터(Creativity Market) 운영
김민조(2016).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력의 개념과 실태 분석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문화 개선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적 조직, 전문적 조직, 유기체 조직에서 공동체로 학교 은유 전환 • 학교구성원 간 관계 재정립 • 학습자 중심 수업 강조 • 교사학습공동체 촉진

저자 및 연구명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정책적 제언
박균열 외(2018).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운영체제 및 학교 문화 혁신 방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전문가 원고 집필 • 전문가 협의회 • FGI •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선도학교 운영 사례 분석 • 연구·선도학교 FGI 분석 • 학교 운영체제 및 학교 문화 혁신 방향 제시(비전 제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학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 문화 혁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확산 • 성취평가제 전면 실시 • 교원수급 정책 재조정 •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연계 • 소통과 협력의 교사 문화 형성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 공감대 형성

III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Ⅲ.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관련 설문조사는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비교 대상으로 일반학교 표집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대상으로 연구학교·선도학교 242개교²⁾ 및 일반학교 121개교(시·도별 균등, 학교 규모 및 지역 규모 고려 random Sampling)를 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연구학교·선도학교 174개교와 일반학교 91개교로 총 265개교이다. 설문조사 참여 학교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 설문조사 참여 학교 현황

구 분	연구학교·선도학교	일반학교	합계
학교 규모	대규모	15	38
	중규모	56	174
	소규모	20	53
합계	174	91	265
지역 규모	대도시	27	69
	중소도시	44	139
	읍면지역	20	57
합계	174	91	265

이번 설문조사는 연구학교·선도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일반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경험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총 2,518명(연구학교·선도학교 1,267명, 일반학교 1,251명)이며, 학부모와 학생은 각 1,252명, 3,849명이다.

2)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2018년 지정 31개교, 2019년 지정 33개교로 총 64개교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2019년에 지정된 178개교임

〈표 Ⅲ-2〉 대상별 참여 현황

구 분	연구학교·선도학교	일반학교	합계
교사	1,267	1,251	2,518
학부모	1,252	-	1,252
학생	3,849	-	3,849
합계	6,368	1,251	7,619

본 장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공통문항에 한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비교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이하, 연구/선도학교)의 교사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지 않은 일반학교의 교사의 응답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선도학교 내에서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교사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별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은 표와 같다.

〈표 Ⅲ-3〉 응답자별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영역	항목	교사	학생	학부모	
학사문화 :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사제도 운영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변화 영역	○	○	○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	○	○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		○	
	학기 규정의 운영 방안	○	○	○	
	졸업 요건의 적용 방안	○			
	고등학교 수업 연한의 필요성	○	○	○	
	조기졸업제도의 필요성	○			
	교과 집중이수제 필요성, 적용 교과 재이수제 필요성, 대체 방안, 적용 범위	○	○	○	
교원문화 : 교사의 역할 변화 및 전문성 향상 요구	교사전문성에 대한 요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문성	○		
		평가 전문성	○		
		다교과/다과목 수업 전문성	○		
		진로 및 교육과정 상담 전문성	○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			
	담임교사 역할의 변화 방향	○	○	○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의 문제점, 지원 방안, 대처 방안	○	○	○	
진로지도문화 : 진로지도의 문제점 및 지원 방안	진로지도 관련 어려움	○			
	진로지도 체제 구축 방안	○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고1 진로집중학기	○	○	○
		중3 진로집중학기	○	○	○
고1 진로교과 개설		○	○	○	

학교생활문화 : 교육과정 활성화 및 공간시간 활용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		
	공간시간 활용 방안,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	○	○
교·강사 제도 관련 교원 인식	고등학교 교원 정원에 관한 인식	○		
	고등학교 교원 운영(순회교사, 외부 강사 등)에 관한 인식	○		
	고등학교 교원 자격에 따른 수업과 평가에 대한 인식	○		

2 설문조사 결과

가. '학사' 영역 학교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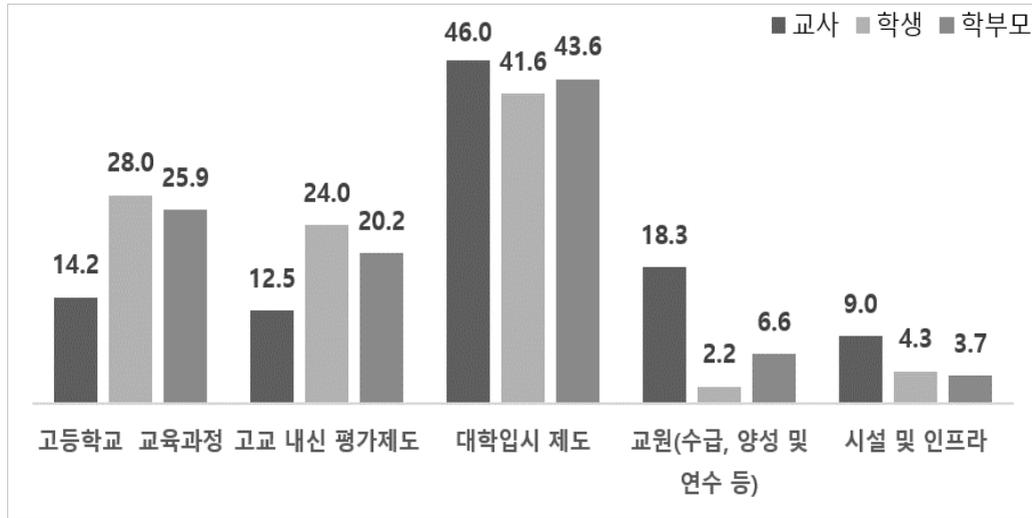
1)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영역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응답자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변화 영역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고등학교 교육과정	354	14.2	1,065	28.0	323	25.9
고교 내신 평가제도	310	12.5	913	24.0	251	20.2
대학입시 제도	1,146	46.0	1,585	41.6	543	43.6
교원(수급, 양성 및 연수 등)	455	18.3	85	2.2	82	6.6
시설 및 인프라	224	9.0	162	4.3	46	3.7
전 체	2,489	100.0	3,810	100.0	1,245	100.0

$$\chi^2 = 782.688 \cdot df = 8, p = .000$$



[그림 III-1] 응답자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변화 영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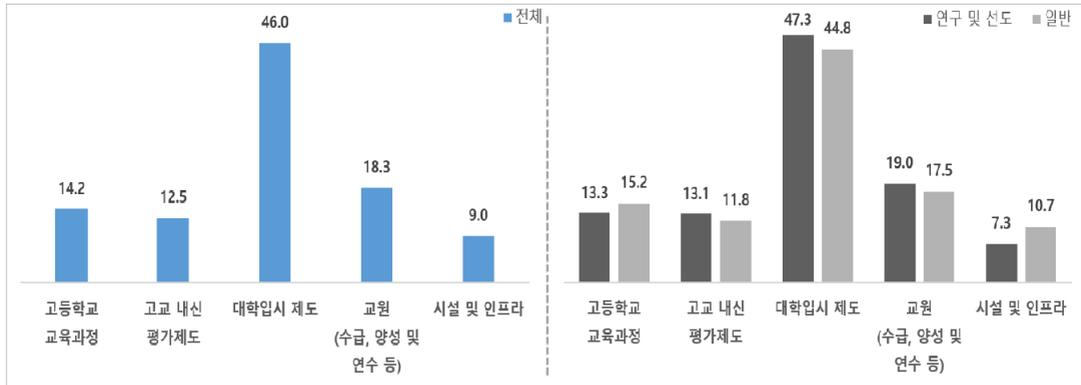
응답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 내신 평가제도의 개선을 선택한 반면, 교사는 교원의 수급양성연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5> 참여경험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변화 영역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고등학교 교육과정	166	13.3	188	15.2	354	14.2
고교 내신 평가제도	164	13.1	146	11.8	310	12.5
대학입시 제도	592	47.3	554	44.8	1,146	46.0
교원(수급, 양성 및 연수 등)	238	19.0	217	17.5	455	18.3
시설 및 인프라	92	7.3	132	10.7	224	9.0
전 체	1,252	100.0	1,237	100.0	2,489	100.0

$$\chi^2 = 11.695, df = 4, p = .020$$



[그림 Ⅲ-2] 참여경험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변화 영역 (단위 : %)

두 집단 모두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일반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선, 시설 및 인프라의 개선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참여경험별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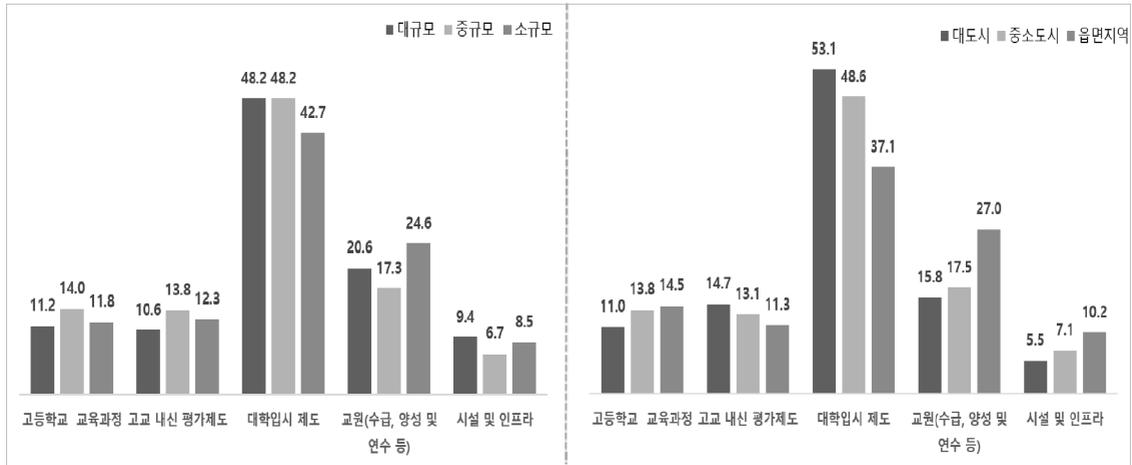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규모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변화 영역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고등학교 교육과정	19	11.2	122	14.0	25	11.8	32	11.0	97	13.8	37	14.5
고교 내신 평가제도	18	10.6	120	13.8	26	12.3	43	14.7	92	13.1	29	11.3
대학입시 제도	82	48.2	420	48.2	90	42.7	155	53.1	342	48.6	95	37.1
교원(수급, 양성 및 연수 등)	35	20.6	151	17.3	52	24.6	46	15.8	123	17.5	69	27.0
시설 및 인프라	16	9.4	58	6.7	18	8.5	16	5.5	50	7.1	26	10.2
전 체	170	100.0	871	100.0	211	100.0	292	100.0	704	100.0	256	100.0

$\chi^2 = 10.592$ df = 8, $p = .226$

$\chi^2 = 25.913$ df = 8, $p = .001$



[그림 Ⅲ-3] 규모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변화 영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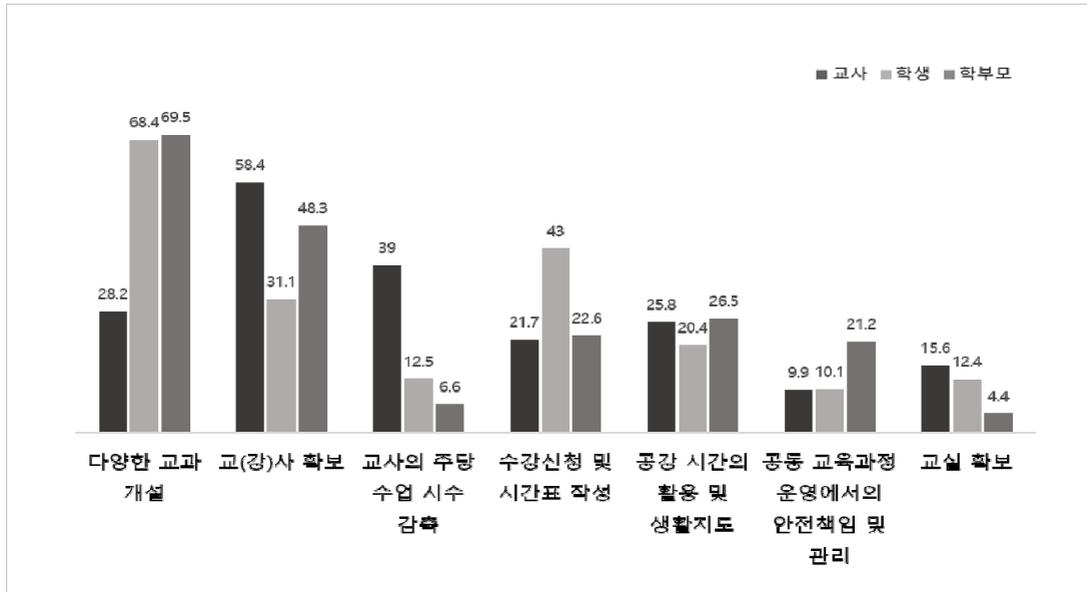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대학입시 제도, 교원 관련 제도의 순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2)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7> 응답자별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다중응답)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다양한 교과 개설	710	28.2	2,632	68.4	870	69.5
교(강)사 확보	1,469	58.4	1,196	31.1	605	48.3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	980	39.0	481	12.5	83	6.6
수강신청 및 시간표 작성	545	21.7	1,655	43.0	283	22.6
공강 시간의 활용 및 생활지도	649	25.8	784	20.4	332	26.5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안전 책임 및 관리	248	9.9	388	10.1	266	21.2
교실 확보	392	15.6	478	12.4	55	4.4
전 체	2,516	100.0	3,847	100.0	1,2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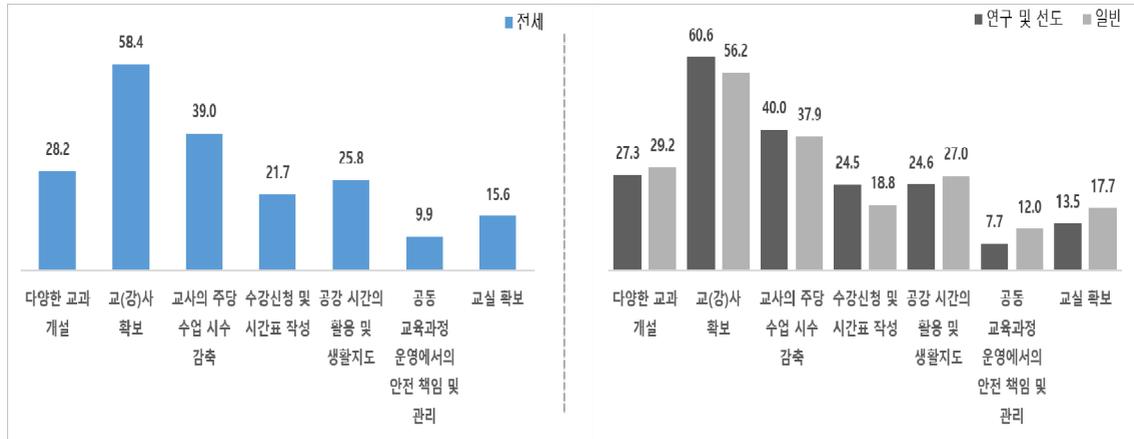
[그림 Ⅲ-4] 응답자별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는 교(강)사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다양한 교과 개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는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 학생은 수강신청 및 시간표 작성, 학부모는 교(강)사 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8> 참여경험별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다중응답)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다양한 교과 개설	345	27.3	365	29.2	710	28.2
교(강)사 확보	767	60.6	702	56.2	1,469	58.4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	506	40.0	474	37.9	980	39.0
수강신청 및 시간표 작성	310	24.5	235	18.8	545	21.7
공강 시간의 활용 및 생활지도	311	24.6	338	27.0	649	25.8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안전 책임 및 관리	98	7.7	150	12.0	248	9.9
교실 확보	171	13.5	221	17.7	392	15.6
전 체	1,266	100.0	1,250	100.0	2,5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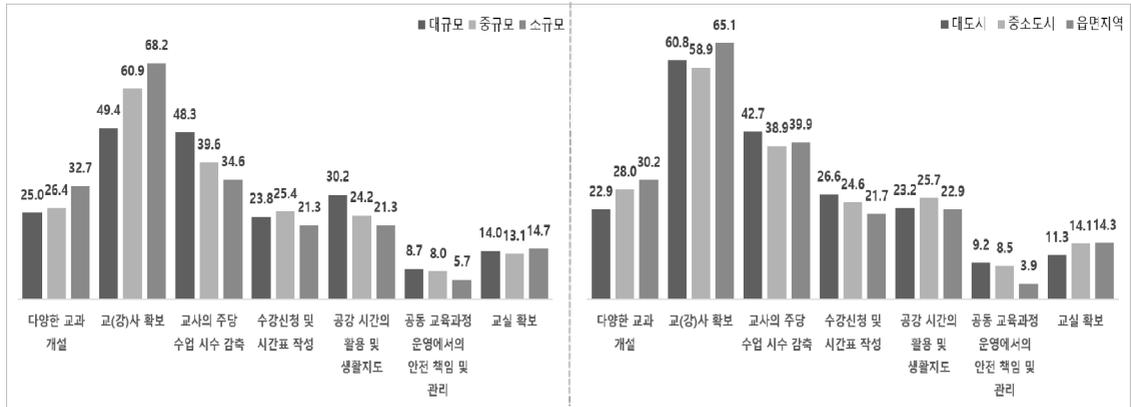
[그림 Ⅲ-5] 참여경험별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단위 : %)

두 집단 모두 교(강)사 확보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주당 수업 시수 감축, 다양한 교과 개설, 공강 시간의 활용 및 생활지도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9> 규모별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다중응답)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다양한 교과 개설	43	25.0	233	26.4	69	32.7	67	22.9	200	28.0	78	30.2
교(강)사 확보	85	49.4	538	60.9	144	68.2	178	60.8	421	58.9	168	65.1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	83	48.3	350	39.6	73	34.6	125	42.7	278	38.9	103	39.9
수강신청 및 시간표 작성	41	23.8	224	25.4	45	21.3	78	26.6	176	24.6	56	21.7
공강 시간의 활용 및 생활지도	52	30.2	214	24.2	45	21.3	68	23.2	184	25.7	59	22.9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안전 책임 및 관리	15	8.7	71	8.0	12	5.7	27	9.2	61	8.5	10	3.9
교실 확보	24	14.0	116	13.1	31	14.7	33	11.3	101	14.1	37	14.3
전 체	172	100.0	883	100.0	211	100.0	293	100.0	715	100.0	258	100.0



[그림 III-6] 규모별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요 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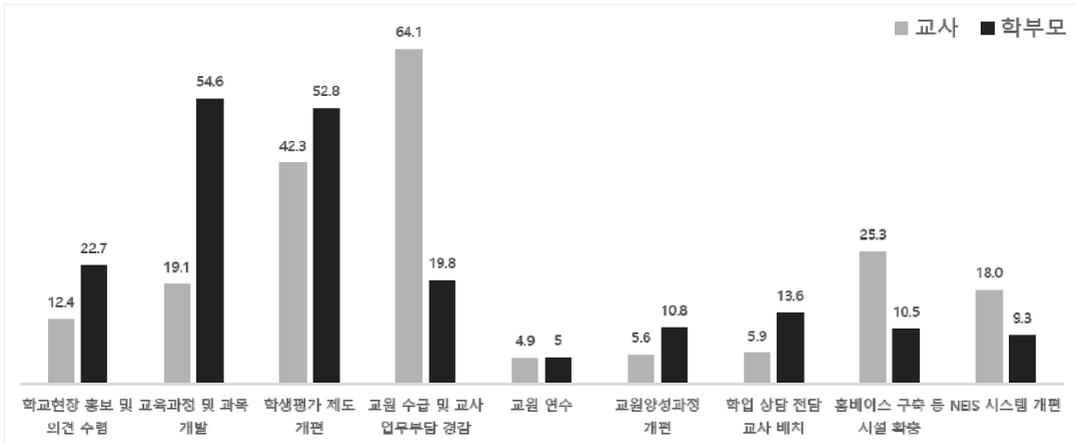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강)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규모의 학교 및 지역에서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3)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 응답자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다중응답)

구분	교사		학부모	
	N	%	N	%
교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312	12.4	284	22.7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과목 개발	482	19.1	683	54.6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	1065	42.3	661	52.8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	1613	64.1	248	19.8
교원 연수	124	4.9	63	5.0
복수전공 필수 등 교원양성과정 개편	140	5.6	135	10.8
학업 상담 전담 교사 배치	148	5.9	170	13.6
필요한 교실 확보, 휴메이스 구축 등 시설 확충	636	25.3	132	10.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편성 등 NEIS 시스템 개편	452	18.0	117	9.3
전 체	2518	100.0	12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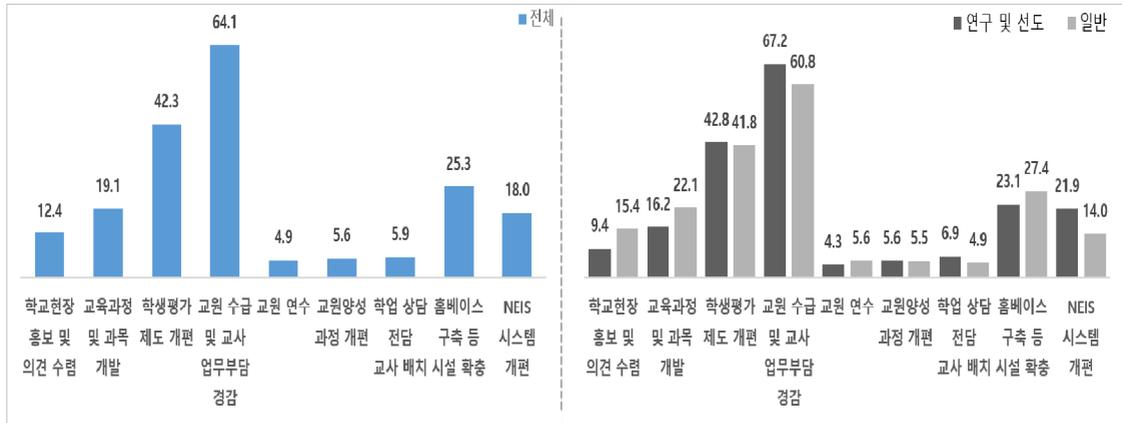
[그림 III-기] 응답자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는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부모 또는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과목 개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 참여경험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다중응답)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교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119	9.4	193	15.4	312	12.4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과목 개발	205	16.2	277	22.1	482	19.1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	542	42.8	523	41.8	1,065	42.3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	852	67.2	761	60.8	1,613	64.1		
교원 연수	54	4.3	70	5.6	124	4.9		
복수전공 필수 등 교원양성과정 개편	71	5.6	69	5.5	140	5.6		
학업 상담 전담 교사 배치	87	6.9	61	4.9	148	5.9		
필요한 교실 확보, 홈페이지 구축 등 시설 확충	293	23.1	343	27.4	636	25.3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편성 등 NEIS 시스템 개편	277	21.9	175	14.0	452	18.0		
전 체	1,267	100.0	1,251	100.0	2,5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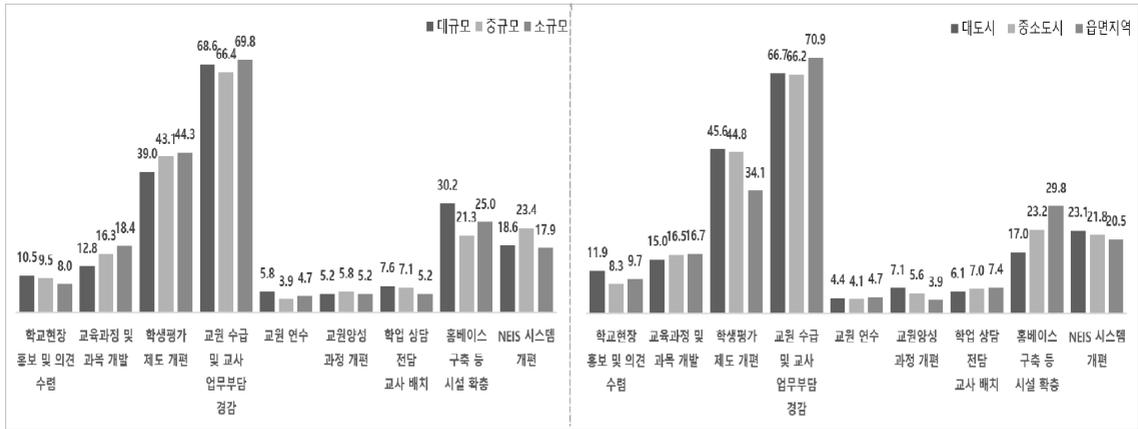
[그림 Ⅲ-8] 참여경험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단위 : %)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고교 내신 학생 평가 제도 개편, 필요한 교실 확보, 홈페이지 구축 등 시설 확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2] 규모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다중응답)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교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18	10.5	84	9.5	17	8.0	35	11.9	59	8.3	25	9.7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과목 개발	22	12.8	144	16.3	39	18.4	44	15.0	118	16.5	43	16.7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	67	39.0	381	43.1	94	44.3	134	45.6	320	44.8	88	34.1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	118	68.6	586	66.4	148	69.8	196	66.7	473	66.2	183	70.9
교원 연수	10	5.8	34	3.9	10	4.7	13	4.4	29	4.1	12	4.7
복수전공 필수 등 교원양성과정 개편	9	5.2	51	5.8	11	5.2	21	7.1	40	5.6	10	3.9
학업 상담 전담 교사 배치	13	7.6	63	7.1	11	5.2	18	6.1	50	7.0	19	7.4
필요한 교실 확보, 홈페이지 구축 등 시설 확충	52	30.2	188	21.3	53	25.0	50	17.0	166	23.2	77	29.8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편성 등 NEIS 시스템 개편	32	18.6	207	23.4	38	17.9	68	23.1	156	21.8	53	20.5
전 체	172	100.0	883	100.0	212	100.0	294	100.0	715	100.0	258	100.0



[그림 III-9] 규모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우선 시행 항목 (단위 : %)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든 규모의 학교 및 지역에서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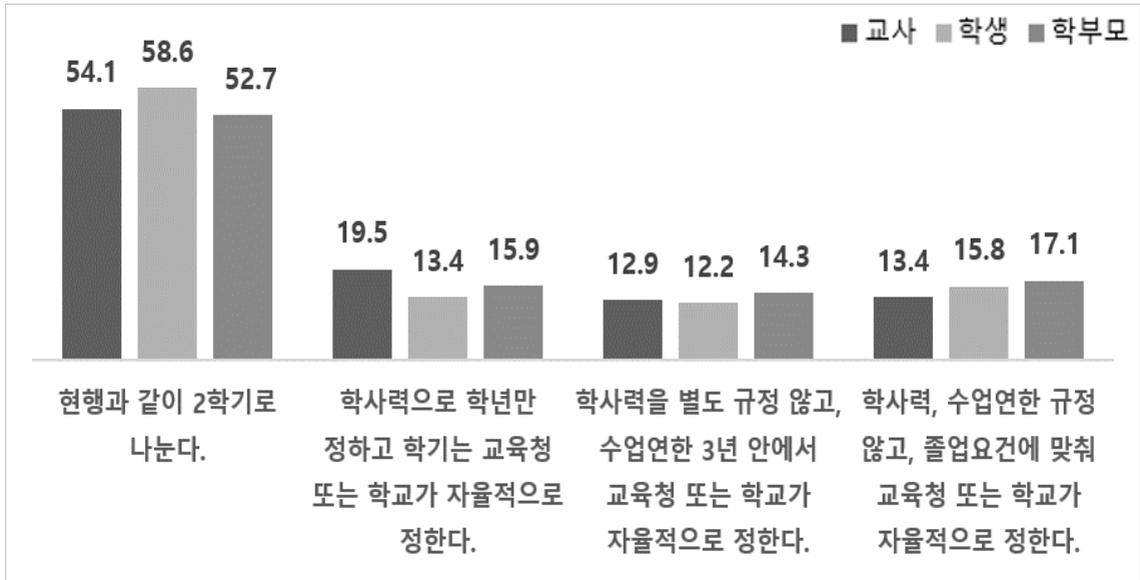
4) 학기 규정의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의 현행 '학기'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 응답자별 학기 규정의 운영 방안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357	54.1	2,245	58.6	658	52.7
학사력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90	19.5	514	13.4	198	15.9
학사력을 규정 않고, 수업연한 3년 안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323	12.9	466	12.2	179	14.3
학사력, 수업연한 규정 없고, 졸업요건에 맞춰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337	13.4	605	15.8	213	17.1
전 체	2,507	100.0	3,830	100.0	1,248	100.0

$$\chi^2 = 56.819; df = 6, p = .000$$



[그림 Ⅲ-10] 응답자별 학기 규정의 운영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사력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많이 선택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사력, 수업연한 규정 않고, 졸업요건에 맞춰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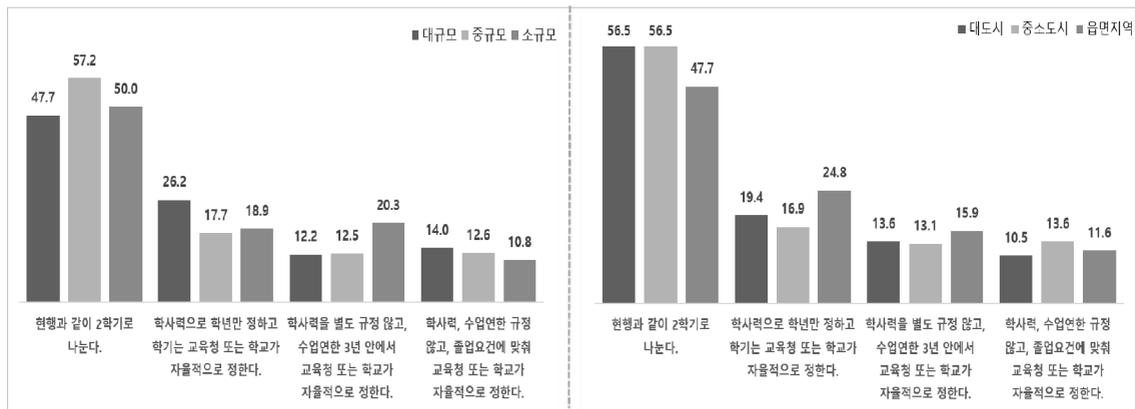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4〉 규모별 학기 규정의 운영 방안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82	47.7	503	57.2	106	50.0	166	56.5	402	56.5	123	47.7
학사력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5	26.2	156	17.7	40	18.9	57	19.4	120	16.9	64	24.8
학사력을 별도 규정 않고, 수업연한 3년 안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21	12.2	110	12.5	43	20.3	40	13.6	93	13.1	41	15.9
학사력, 수업연한 규정 없고, 졸업요건에 맞춰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24	14.0	111	12.6	23	10.8	31	10.5	97	13.6	30	11.6
전 체	172	100.0	880	100.0	212	100.0	294	100.0	712	100.0	258	100.0

$\chi^2 = 17.338$ · $df = 6$, $p = .008$

$\chi^2 = 12.086$ · $df = 6$, $p = .060$



〈그림 III-11〉 규모별 학기 규정의 운영 방안 (단위 : %)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시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면, 모든 규모의 학교에서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규모와 중규모 학교는 ‘학사력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사력을 별도 규정 않고, 수업연한 3년 안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면, 모든 규모의 지역에서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학사력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순으

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 < .05$),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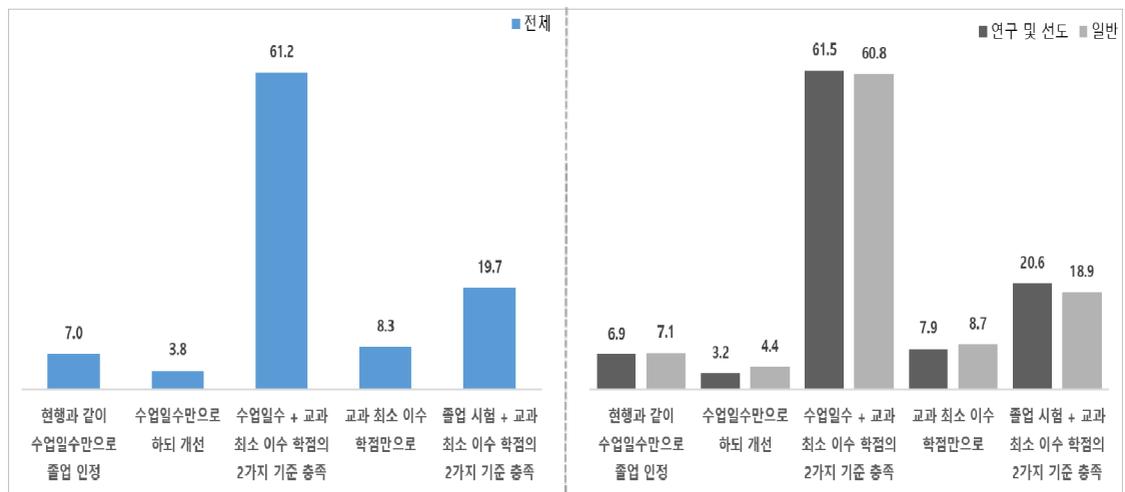
5) 졸업 요건의 적용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경우 현행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5〉 참여경험별 졸업 요건의 적용 방안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연구/선도학교		일반학교			
	N	%	N	%	N	%
현행과 같이 수업일수만으로 졸업 인정	86	6.9	88	7.1	174	7.0
수업일수만으로 하되 개선	40	3.2	55	4.4	95	3.8
수업일수 +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가지 기준 충족	772	61.5	752	60.8	1,524	61.2
교과 최소 이수 학점만으로	99	7.9	108	8.7	207	8.3
졸업 시험 +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가지 기준 충족	258	20.6	233	18.9	491	19.7
전 체	1,255	100.0	1,236	100.0	2,491	100.0

$$\chi^2 = 4.173, df = 4, p = .383$$



[그림 Ⅲ-12] 참여경험별 졸업 요건의 적용 방안 (단위 : %)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경우 현행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수업일수 +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가지 기준 충족’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수업일수 +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가지 기준 충족’이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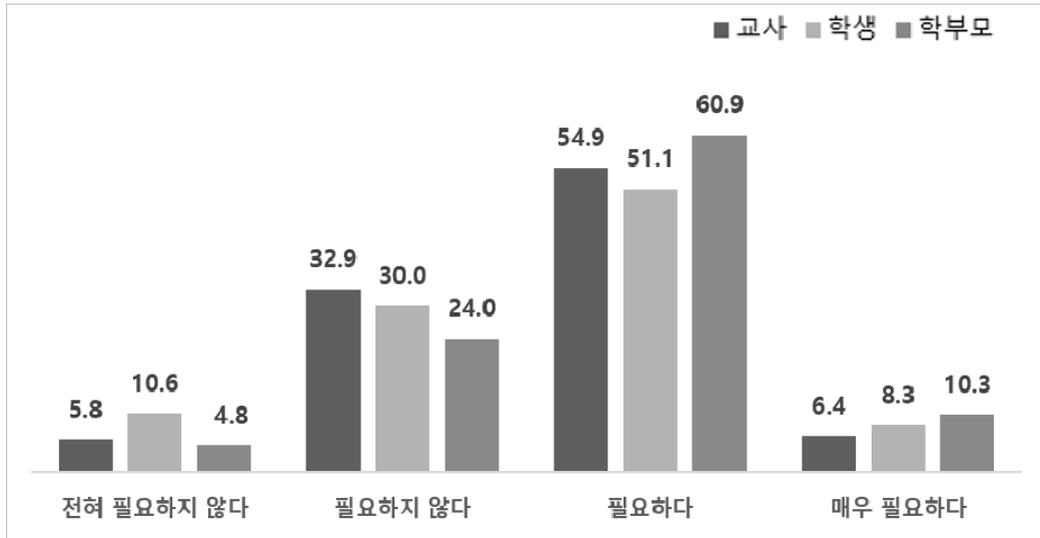
6) 고등학교 수업 연한의 필요성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수업 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 응답자별 고등학교 수업 연한의 필요성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5	5.8	407	10.6	60	4.8
필요하지 않다	829	32.9	1,154	30.0	301	24.0
필요하다	1,383	54.9	1,967	51.1	762	60.9
매우 필요하다	161	6.4	321	8.3	129	10.3
전 체	2,518	100.0	3,849	100.0	1,252	100.0

$$\chi^2 = 119.769 \quad df = 6, \quad p = .000$$



[그림 Ⅲ-13] 응답자별 고등학교 수업 연한의 필요성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수업 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다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나, 학생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수업 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고등학교 수업 연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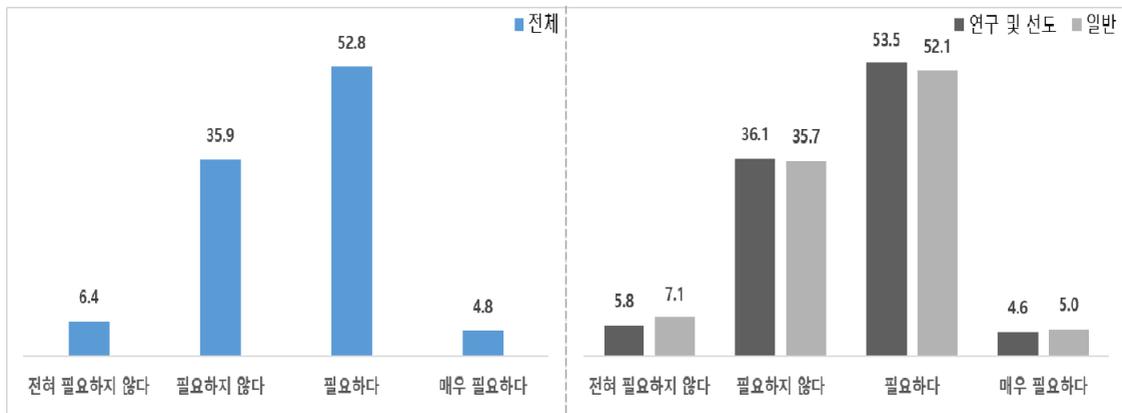
7) 조기졸업제도의 필요성

고교학점제 도입 시 조기졸업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7〉 참여경험별 조기졸업 제도의 필요성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연구/선도학교		일반학교			
	N	%	N	%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73	5.8	89	7.1	162	6.4
필요하지 않다	458	36.1	447	35.7	905	35.9
필요하다	678	53.5	652	52.1	1,330	52.8
매우 필요하다	58	4.6	63	5.0	121	4.8
전 체	1,267	100.0	1,251	100.0	2,518	100.0

$\chi^2 = 2.327, df = 3, p = .507$



〔그림 III-14〕 참여경험별 조기졸업 제도의 필요성 (단위 : %)

고교학점제 도입 시 조기졸업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 조기졸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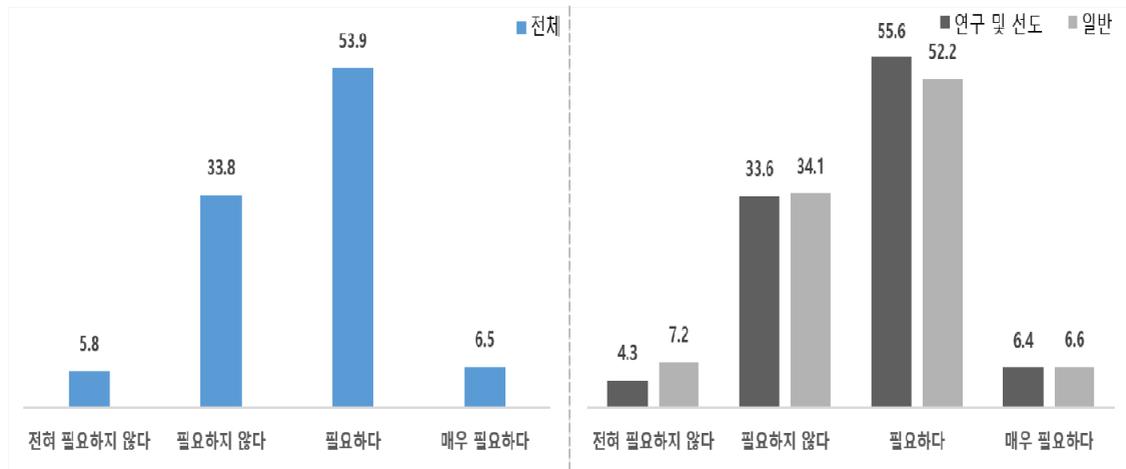
8) 교과 집중이수제 필요성, 적용 교과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교의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8〉 참여경험별 교과 집중이수제 필요성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55	4.3	90	7.2	145	5.8
필요하지 않다	426	33.6	426	34.1	852	33.8
필요하다	705	55.6	653	52.2	1,358	53.9
매우 필요하다	81	6.4	82	6.6	163	6.5
전 체	1,267	100.0	1,251	100.0	2,518	100.0

$\chi^2 = 10.344$, $df = 3$, $p = .016$



[그림 Ⅲ-15] 참여경험별 교과 집중이수제 필요성 (단위 : %)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선도학교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다 순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학교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참여경험별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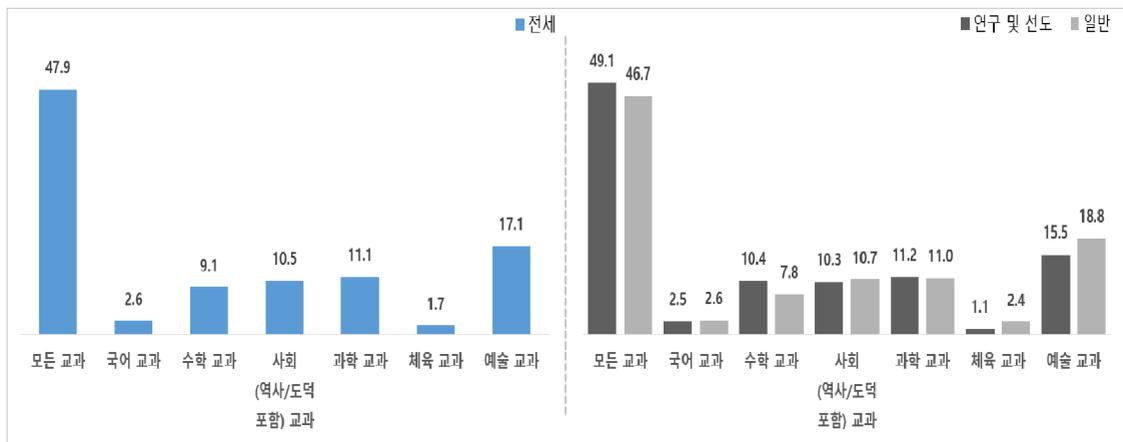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군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9〉 참여경험별 교과 집중이수제 적용 교과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모든 교과	373	49.1	335	46.7	708	47.9
국어 교과	19	2.5	19	2.6	38	2.6
수학 교과	79	10.4	56	7.8	135	9.1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78	10.3	77	10.7	155	10.5
과학 교과	85	11.2	79	11.0	164	11.1
체육 교과	8	1.1	17	2.4	25	1.7
예술 교과	118	15.5	135	18.8	253	17.1
전 체	760	100.0	718	100.0	1,478	100.0

$\chi^2 = 9.380$ $df = 6$, $p = .153$



[그림 III-16] 참여경험별 교과 집중이수제 적용 교과 (단위 : %)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군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모든 교과에서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 모든 교과에서의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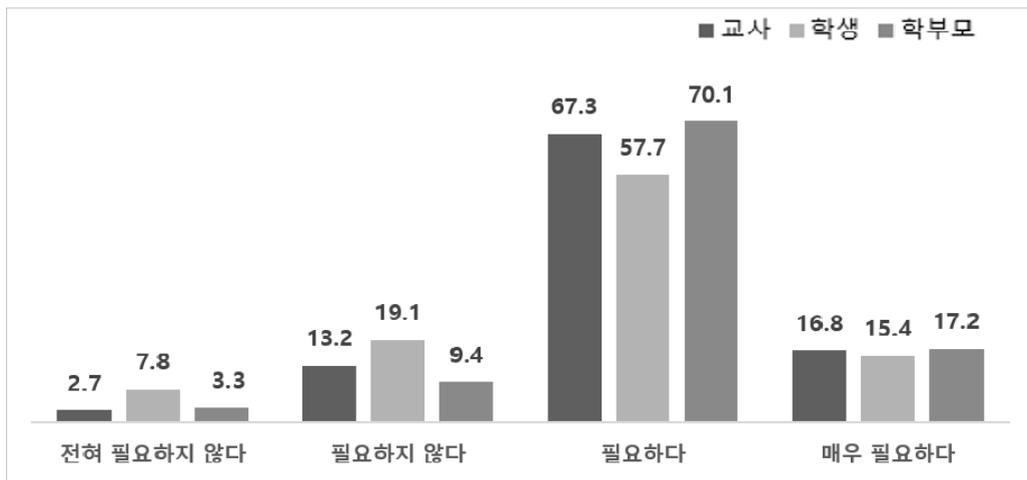
9) 재이수제 필요성, 대체 방안, 적용 범위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과목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0〉 응답자별 재이수제 필요성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69	2.7	299	7.8	41	3.3
필요하지 않다	332	13.2	737	19.1	118	9.4
필요하다	1,695	67.3	2,219	57.7	878	70.1
매우 필요하다	422	16.8	594	15.4	215	17.2
전 체	2,518	100.0	3,849	100.0	1,252	100.0

$\chi^2 = 192.758$ df = 6, $p = .000$



[그림 Ⅲ-17] 응답자별 재이수제 필요성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과목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나, 학생은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다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과목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과목 미이수자 대상의 재이수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이수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응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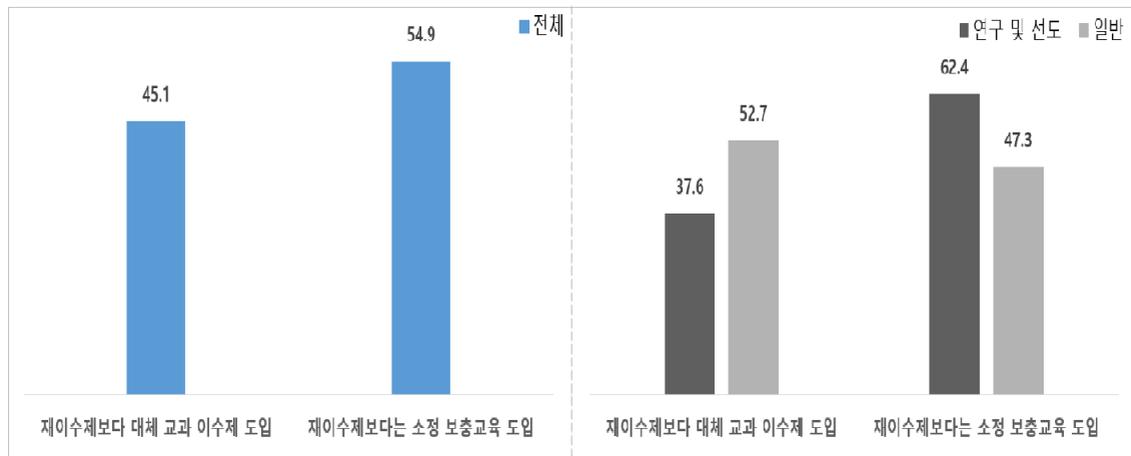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는 재이수제보다는 소정 보충교육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생은 재이수제보다 대체 교과 이수제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두 응답의 비율은 동일하였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1〉 참여경험별 재이수제 대체 방안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재이수제보다 대체 교과 이수제 도입	71	37.6	99	52.7	170	45.1
재이수제보다는 소정 보충교육 도입	118	62.4	89	47.3	207	54.9
전 체	189	100.0	188	100.0	377	100.0

$$\chi^2 = 8.672; df = 1, p = .003$$



[그림 III-18] 참여경험별 재이수제 대체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연구/선도학교 교사는 재이수제보다는 소정 보충교육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학교 교사는 재이수제보다 대체 교과 이수제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참여경험별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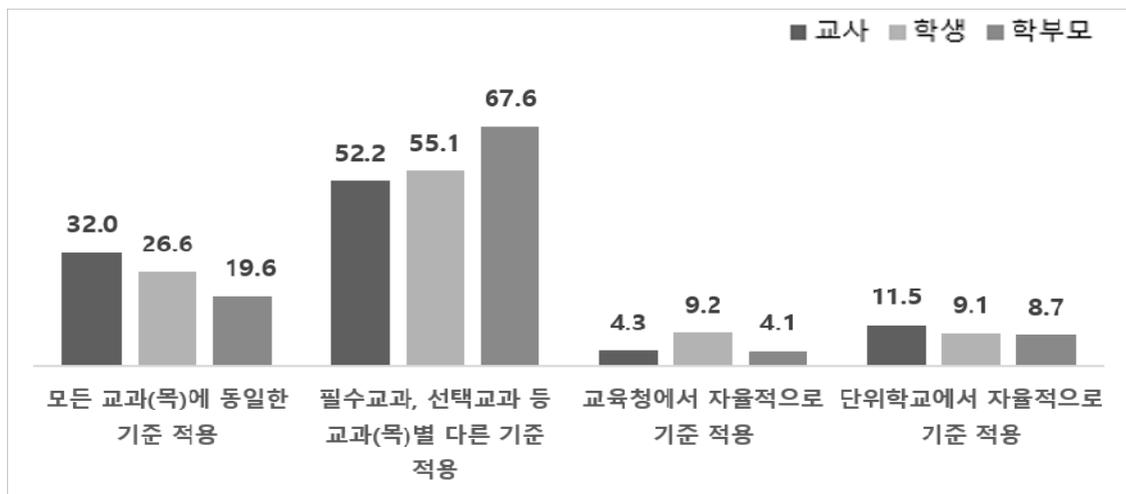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대규모 학교는 재이수제보다 대체 교과 이수제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중규모 및 소규모 학교와 모든 규모의 지역에서는 재이수제보다는 소정 보충교육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2〉 응답자별 재이수제 적용 범위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기준 적용	676	32.0	744	26.6	214	19.6
필수교과, 선택교과 등 교과(목)별 다른 기준 적용	1,102	52.2	1,542	55.1	738	67.6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91	4.3	259	9.2	45	4.1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244	11.5	256	9.1	95	8.7
전 체	2,113	100.0	2,801	100.0	1,092	100.0

$\chi^2 = 139.315$ $df = 6$, $p = .000$



[그림 III-19] 응답자별 재이수제 적용 범위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필수교과, 선택교과 등 교과(목)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기준 적용,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순으로 응답이 많았던 반면, 학생은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기준 적용,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재이수제 적용 범위에 대한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필수교과, 선택교과 등 교과(목)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 서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면 필수교과, 선택교과 등 교과(목)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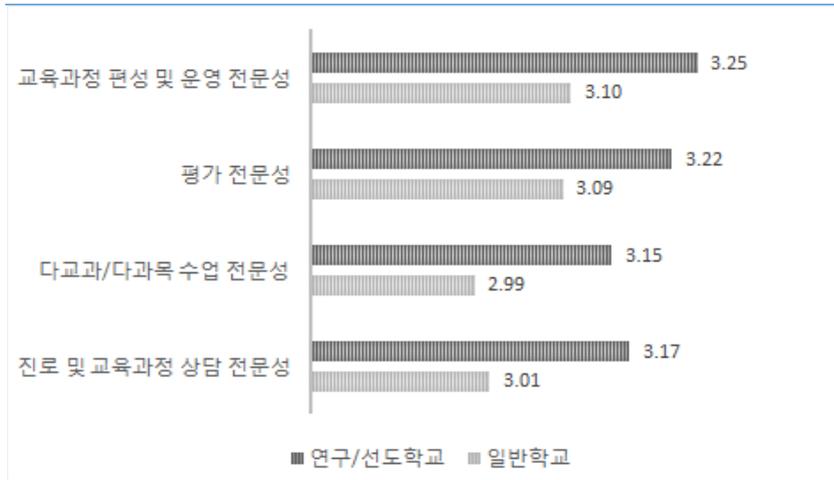
나. '교원' 영역 학교 문화

1) 교사전문성에 대한 요구

고교학점제 도입 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영역을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변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교사의 영역별 동의 정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3〉 참여경험별 교사전문성 변화 영역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문성	3.25	(.65)	3.10	(.68)	3.18	(.67)
평가 전문성	3.22	(.67)	3.09	(.71)	3.16	(.69)
다교과/다과목 수업 전문성	3.15	(.77)	2.99	(.79)	3.07	(.78)
진로 및 교육과정 상담 전문성	3.17	(.71)	3.01	(.72)	3.0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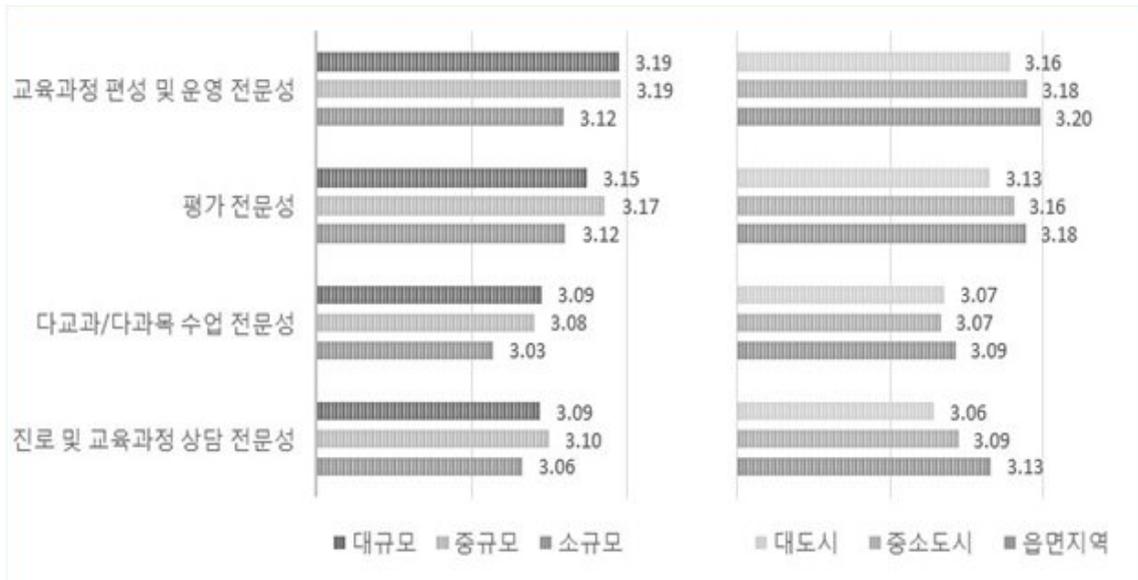
[그림 Ⅲ-20] 참여경험별 교사전문성 변화 영역 평균

전반적으로 교사전문성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연구/선도학교 교사가 일반학교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문성, 평가전문성, 진로교육 및 교육과정 상담 전문성, 다교과/다과목 수업 전문성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영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일반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같은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4> 규모별 교사전문성 변화 영역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문성	3.19	(.67)	3.19	(.67)	3.12	(.65)	3.16	(.66)	3.18	(.68)	3.20	(.64)
평가 전문성	3.15	(.70)	3.17	(.70)	3.12	(.65)	3.13	(.70)	3.16	(.70)	3.18	(.66)
다교과/다과목 수업 전문성	3.09	(.77)	3.08	(.79)	3.03	(.77)	3.07	(.78)	3.07	(.79)	3.09	(.77)
진로 및 교육과정 상담 전문성	3.09	(.74)	3.10	(.71)	3.06	(.71)	3.06	(.73)	3.09	(.72)	3.13	(.69)



[그림 III-21] 규모별 교사전문성 변화 영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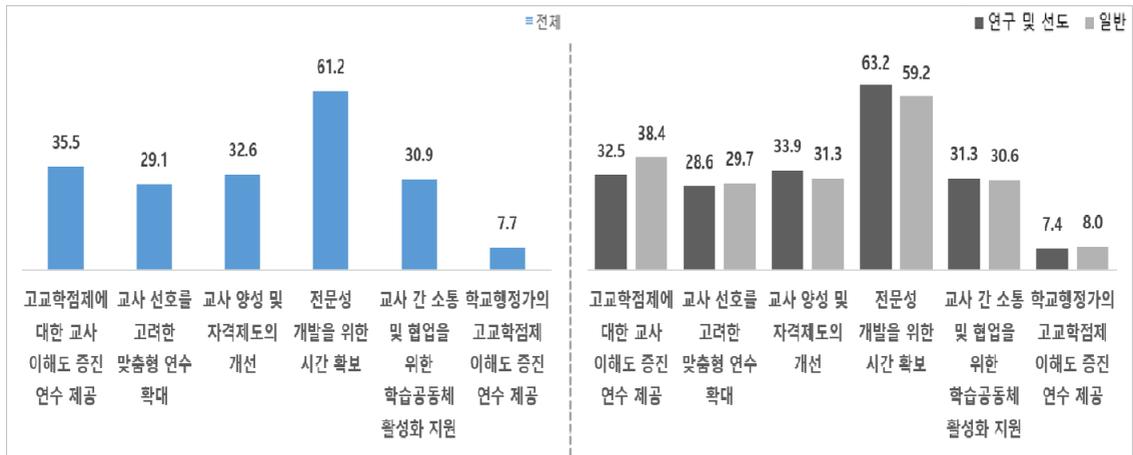
학교의 규모에 따른 교사전문성 영역별 변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중규모 학교에 비하여 소규모 학교 교사의 동의 정도가 다소 낮았다. 반면, 지역규모에 따른 비교에서는 읍면지역 교사의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았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교사전문성 변화에 대한 영역별 순서도 대체로 일치하였다.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경우, 학교규모나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여, 교사전문성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5〉 참여경험별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다중응답)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411	32.5	481	38.4	892	35.5
교사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확대	362	28.6	371	29.7	733	29.1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	429	33.9	392	31.3	821	32.6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	799	63.2	741	59.2	1,540	61.2
교사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395	31.3	383	30.6	778	30.9
학교행정부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93	7.4	100	8.0	193	7.7
전 체	1,264	100.0	1,251	100.0	2,5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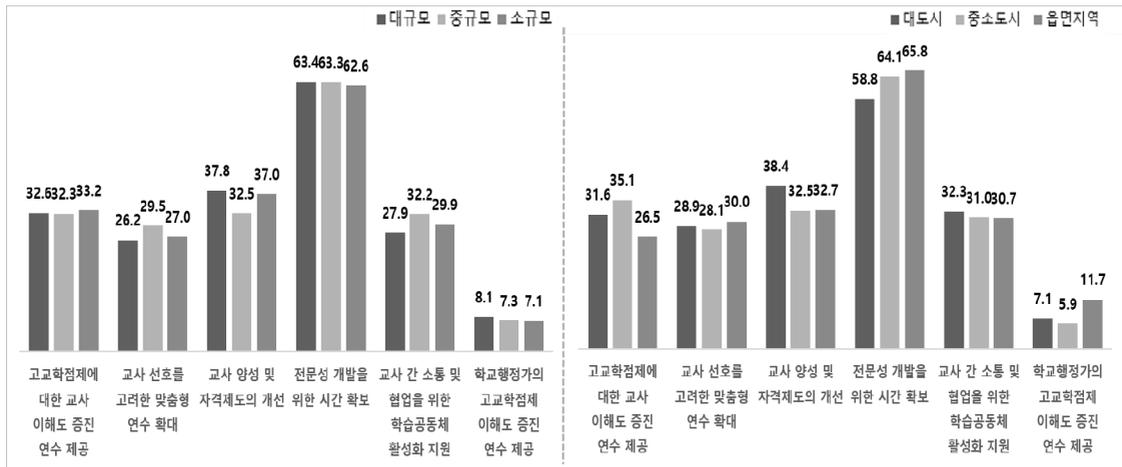


〈그림 Ⅲ-22〉 참여경험별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경우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며, 일반교사의 경우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6〉 규모별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다중응답)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56	32.6	285	32.3	70	33.2	93	31.6	250	35.1	68	26.5
교사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확대	45	26.2	260	29.5	57	27.0	85	28.9	200	28.1	77	30.0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	65	37.8	286	32.5	78	37.0	113	38.4	232	32.5	84	32.7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	109	63.4	558	63.3	132	62.6	173	58.8	457	64.1	169	65.8
교사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48	27.9	284	32.2	63	29.9	95	32.3	221	31.0	79	30.7
학교행정가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14	8.1	64	7.3	15	7.1	21	7.1	42	5.9	30	11.7
전 체	172	100.0	881	100.0	211	100.0	294	100.0	713	100.0	257	100.0



[그림 III-23] 규모별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단위 : %)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시 교사의 전문성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규모의 학교에서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한 응답이 많았던 반면, 중소도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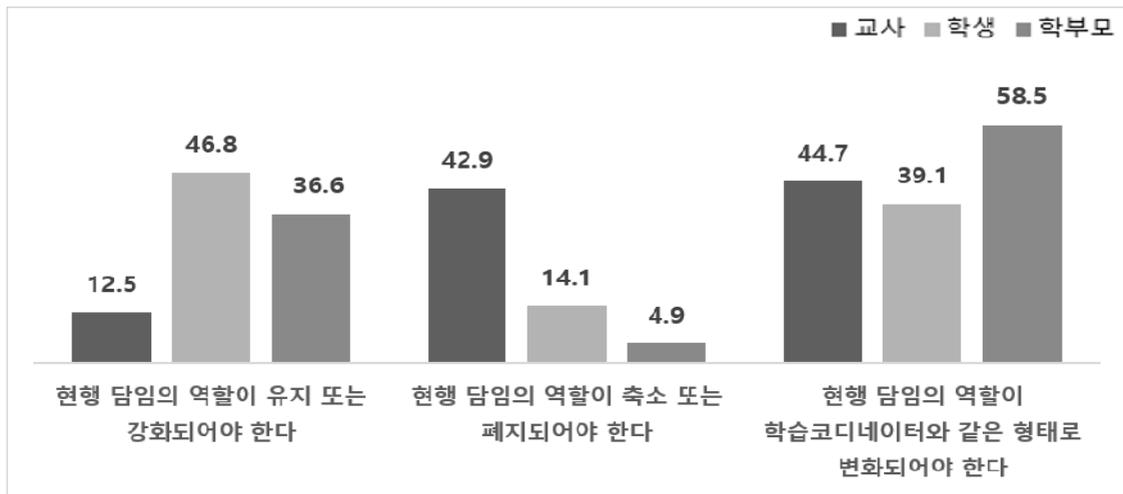
3) 담임교사 역할의 변화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교사의 역할의 방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7〉 응답자별 담임교사 역할의 변화 방향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현행 담임의 역할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	309	12.5	1,787	46.8	455	36.6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1,061	42.9	539	14.1	61	4.9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1,106	44.7	1,493	39.1	727	58.5
전 체	2,476	100.0	3,819	100.0	1,243	100.0

$$\chi^2 = 1367.268; df = 4, p = .000$$



[그림 Ⅲ-24] 응답자별 담임교사 역할의 변화 방향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와 학부모는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생은 현행 담임의 역할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는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학생은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부모는 현행 담임의 역할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교사의 역할의 방향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

답을 비교한 결과, 연구/선도학교 교사는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일반학교 교사는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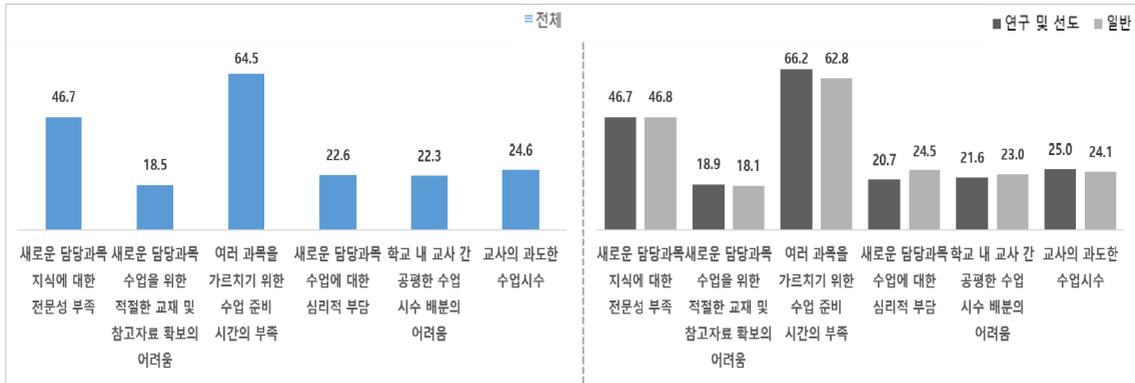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의 문제점, 지원 방안, 대처 방안

교사의 다교과, 다과목 수업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8〉 참여경험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의 문제점 (다중응답)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새로운 담당과목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	591	46.7	585	46.8	1,176	46.7
새로운 담당과목 수업을 위한 적절한 교재 및 참고자료 확보의 어려움	239	18.9	227	18.1	466	18.5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838	66.2	786	62.8	1,624	64.5
새로운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	262	20.7	306	24.5	568	22.6
학교 내 교사 간 공평한 수업 시수 배분의 어려움	274	21.6	288	23.0	562	22.3
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	317	25.0	301	24.1	618	24.6
전 체	1,266	100.0	1,251	100.0	2,5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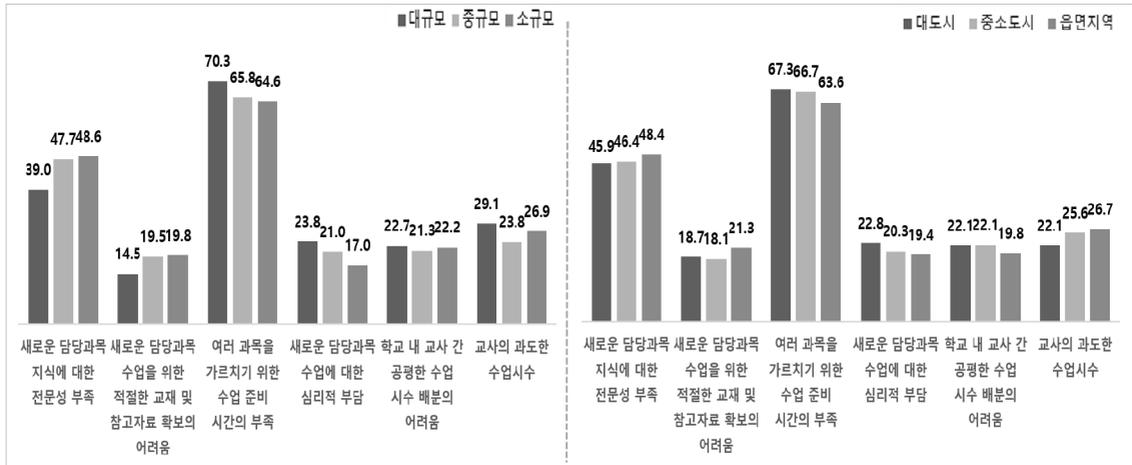
[그림 Ⅲ-25] 참여경험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의 문제점 (단위 : %)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경우 새로운 담당과목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 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며, 일반교사의 경우 새로운 담당과목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 새로운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9> 규모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의 문제점 (다중응답)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새로운 담당과목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	67	39.0	421	47.7	103	48.6	135	45.9	331	46.4	125	48.4
새로운 담당과목 수업을 위한 적절한 교재 및 참고자료 확보의 어려움	25	14.5	172	19.5	42	19.8	55	18.7	129	18.1	55	21.3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121	70.3	580	65.8	137	64.6	198	67.3	476	66.7	164	63.6
새로운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	41	23.8	185	21.0	36	17.0	67	22.8	145	20.3	50	19.4
학교 내 교사 간 공평한 수업 시수 배분의 어려움	39	22.7	188	21.3	47	22.2	65	22.1	158	22.1	51	19.8
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	50	29.1	210	23.8	57	26.9	65	22.1	183	25.6	69	26.7
전 체	172	100.0	882	100.0	212	100.0	294	100.0	714	100.0	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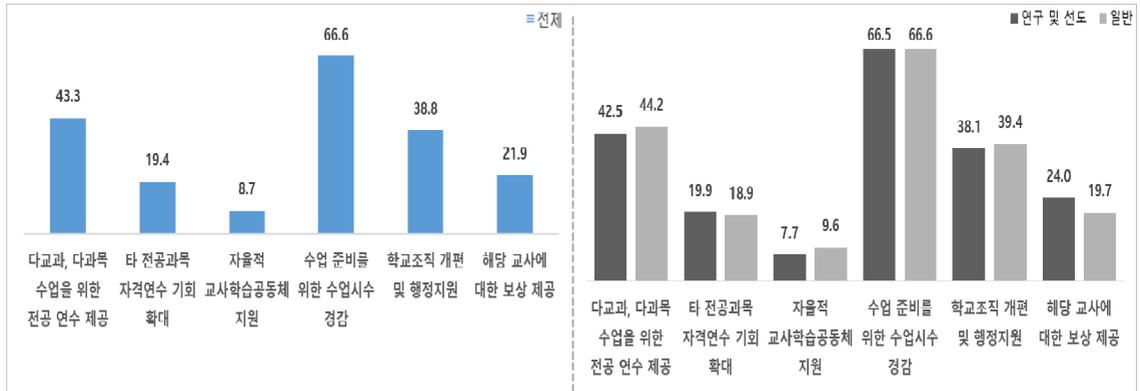
[그림 III-26] 규모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의 문제점 (단위 : %)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다교과, 다과목 수업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에 대한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다음으로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새로운 담당과목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교사의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0> 참여경험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지원 방안 (다중응답)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위한 전공 연수 제공	538	42.5	553	44.2	1,091	43.3
타 전공과목 자격연수 기회 확대	252	19.9	237	18.9	489	19.4
자율적 교사학습 공동체 지원	98	7.7	120	9.6	218	8.7
수업 준비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	843	66.5	833	66.6	1,676	66.6
학교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행정전담팀운영, 교과부 교무실 운영 등)	483	38.1	493	39.4	976	38.8
해당 교사에 대한 보상 제공(인사고과 점수, 연구년, 수당 등)	304	24.0	247	19.7	551	21.9
전 체	1,267	100.0	1,251	100.0	2,5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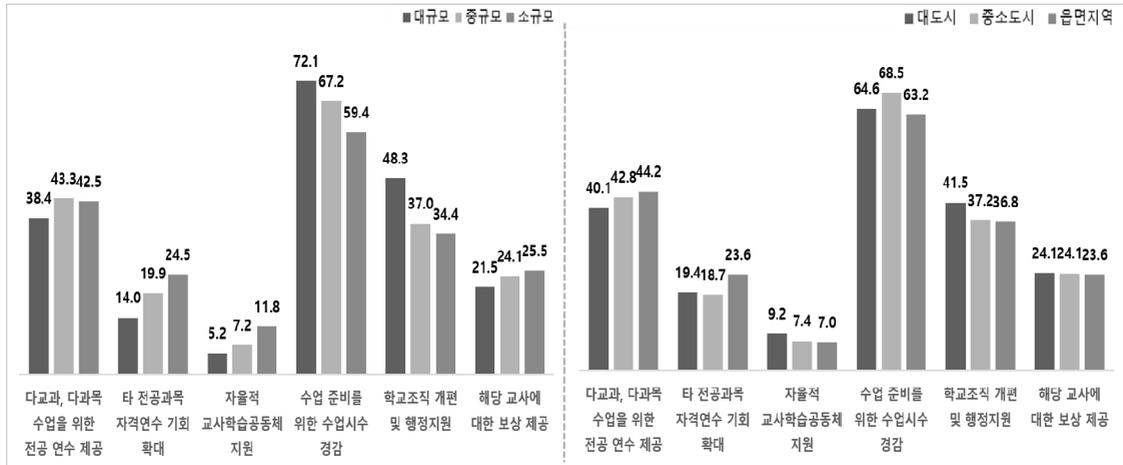
[그림 Ⅲ-27] 참여경험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지원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수업 준비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위한 전공 연수 제공, 학교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행정전담팀운영, 교과부 교무실 운영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1> 규모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지원 방안 (다중응답)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위한 전공 연수 제공	66	38.4	382	43.3	90	42.5	118	40.1	306	42.8	114	44.2
타 전공과목 자격연수 기회 확대	24	14.0	176	19.9	52	24.5	57	19.4	134	18.7	61	23.6
자율적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9	5.2	64	7.2	25	11.8	27	9.2	53	7.4	18	7.0
수업 준비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	124	72.1	593	67.2	126	59.4	190	64.6	490	68.5	163	63.2
학교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행정전담팀운영, 교과부 교무실 운영 등)	83	48.3	327	37.0	73	34.4	122	41.5	266	37.2	95	36.8
해당 교사에 대한 보상 제공 (인사고과 점수, 연구년, 수당 등)	37	21.5	213	24.1	54	25.5	71	24.1	172	24.1	61	23.6
전 체	172	100.0	883	100.0	212	100.0	294	100.0	715	100.0	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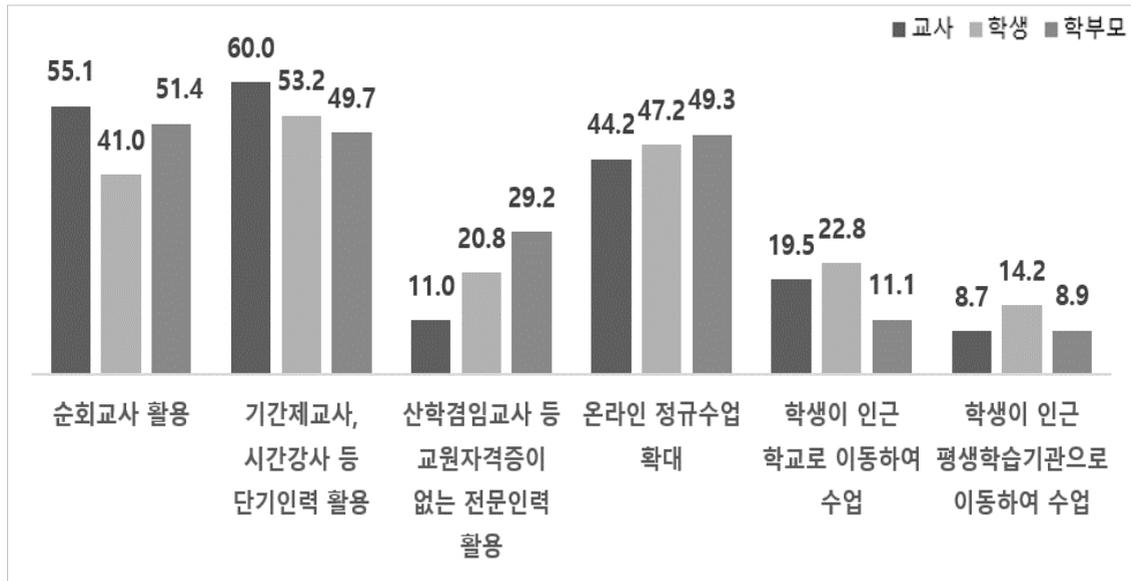
[그림 III-28] 규모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지원 방안 (단위 : %)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수업 준비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에 대한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다음으로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규모 학교는 학교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행정전담팀운영, 교과부 교무실 운영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았던 반면, 중규모 및 소규모 학교는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위한 전공 연수 제공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도시는 학교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행정전담팀운영, 교과부 교무실 운영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위한 전공 연수 제공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학교 여건 상 교사의 다과목 수업이 어려울 경우,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2〉 응답자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대처 방안 (다중응답)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순회교사 활용	1,386	55.1	1,579	41.0	644	51.4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	1,509	60.0	2,046	53.2	622	49.7
산학겸임교사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력 활용	276	11.0	799	20.8	366	29.2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1,111	44.2	1,816	47.2	617	49.3
학생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490	19.5	876	22.8	139	11.1
학생이 인근 평생학습기관으로 이동하여 수업	220	8.7	545	14.2	112	8.9
전 체	2,516	100.0	3,849	100.0	1,2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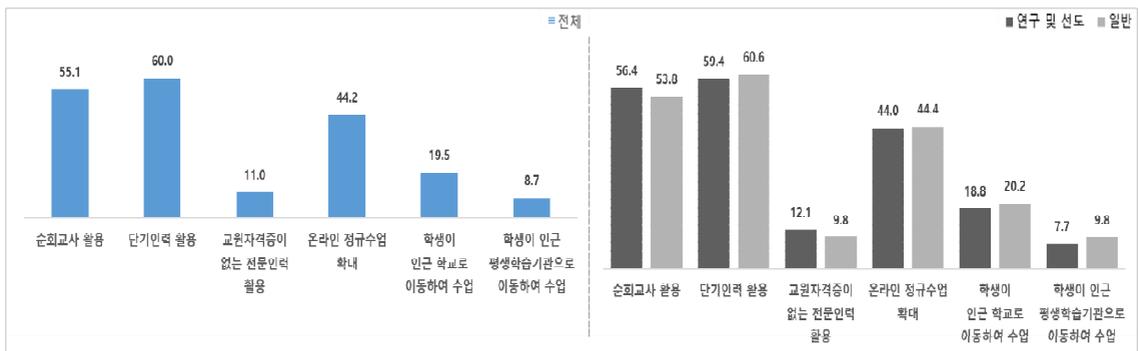
[그림 Ⅲ-29] 응답자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대처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와 학생은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부모는 순회교사 활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는 순회교사 활용, 학생은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학부모는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3〉 참여경험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대처 방안 (다중응답)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순회교사 활용	714	56.4	672	53.8	1,386	55.1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	752	59.4	757	60.6	1,509	60.0
산학겸임교사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력 활용	153	12.1	123	9.8	276	11.0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557	44.0	554	44.4	1,111	44.2
학생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238	18.8	252	20.2	490	19.5
학생이 인근 평생학습기관으로 이동하여 수업	98	7.7	122	9.8	220	8.7
전 체	1,267	100.0	1,249	100.0	2,5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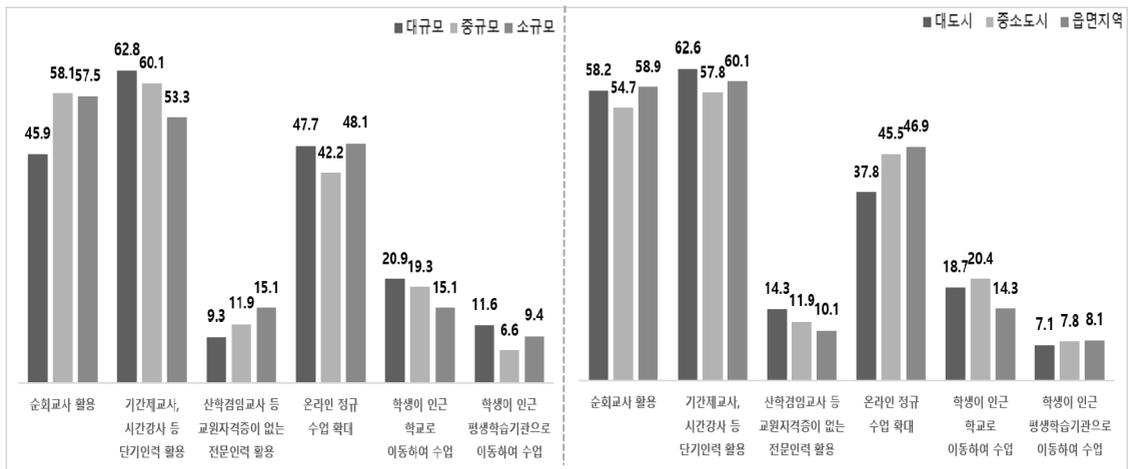
[그림 III-30] 참여경험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대처 방안 (단위 : %)

두 집단 모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순회교사 활용,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4〉 규모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대처 방안 (다중응답)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순회교사 활용	79	45.9	513	58.1	122	57.5	171	58.2	391	54.7	152	58.9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	108	62.8	531	60.1	113	53.3	184	62.6	413	57.8	155	60.1
산학겸임교사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력 활용	16	9.3	105	11.9	32	15.1	42	14.3	85	11.9	26	10.1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82	47.7	373	42.2	102	48.1	111	37.8	325	45.5	121	46.9
학생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36	20.9	170	19.3	32	15.1	55	18.7	146	20.4	37	14.3
학생이 인근 평생학습기관으로 이동하여 수업	20	11.6	58	6.6	20	9.4	21	7.1	56	7.8	21	8.1
전 체	172	100.0	883	100.0	212	100.0	294	100.0	715	100.0	258	100.0



〈그림 III-31〉 규모별 다교과/다과목 수업 운영 대처 방안 (단위 : %)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면,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및 중규모 학교는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소규모 학교는 순회교사 활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을 비교해 보면,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규모의 지역에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순회교사 활용,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다.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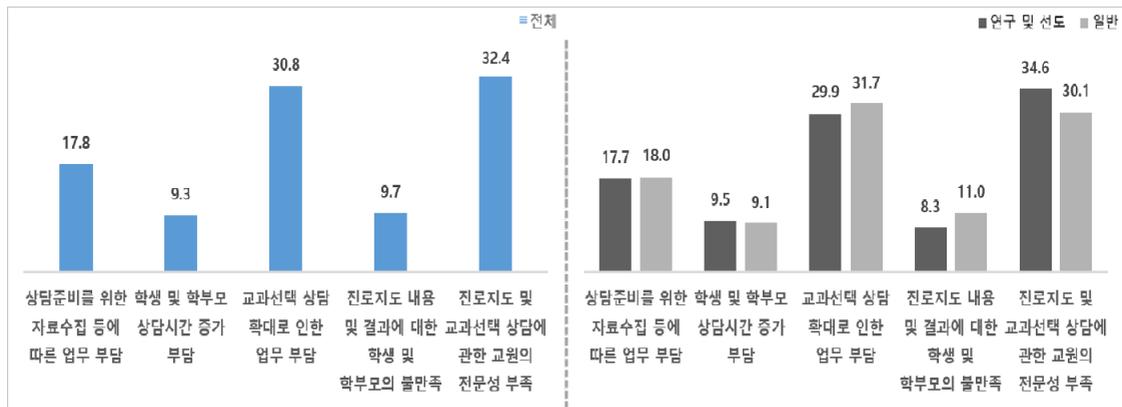
1) 진로지도 관련 어려움

고교학점제 도입 시 예상되는 진로지도 관련 업무 부담 등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5〉 참여경험별 진로지도 관련 어려움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상담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따른 업무 부담	219	17.7	222	18.0	441	17.8
학생 및 학부모 상담시간 증가 부담	118	9.5	113	9.1	231	9.3
교과선택 상담 확대에 인한 업무 부담	371	29.9	392	31.7	763	30.8
진로지도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족	103	8.3	136	11.0	239	9.7
진로지도 및 교과선택 상담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	429	34.6	372	30.1	801	32.4
전 체	1,240	100.0	1,235	100.0	2,475	100.0

$$\chi^2 = 9.309 \quad df = 4, \quad p = .054$$



[그림 III-32] 참여경험별 진로지도 관련 어려움 (단위: %)

고교학점제 도입 시 예상되는 진로지도 관련 어려움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연구/선도학교는 진로지도 및 교과선택 상담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반학교는 교과선택 상담 확대에 인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

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 예상되는 진로지도 관련 어려움으로 진로지도 및 교과선택 상담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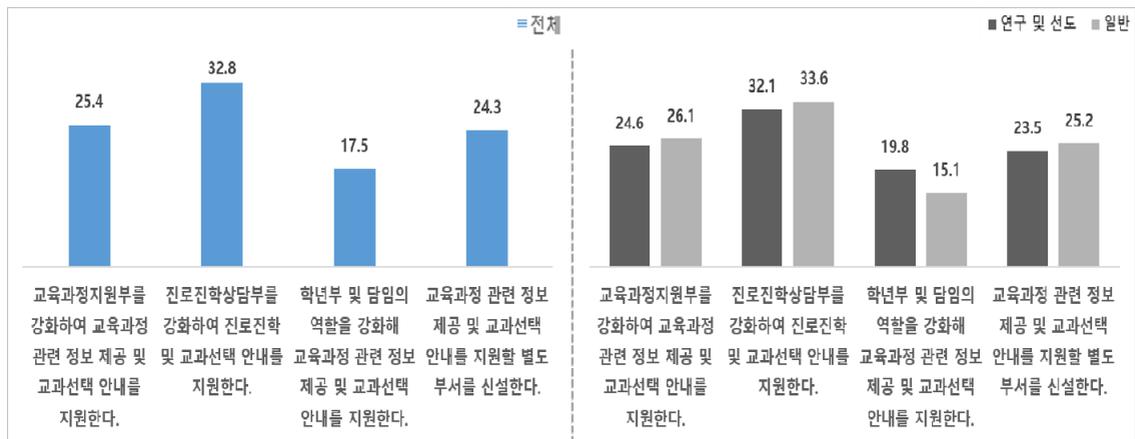
2) 진로지도 체제 구축 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진로지도와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6〉 참여경험별 진로지도 체제 구축 방안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교육과정지원부를 강화하여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한다.	307	24.6	323	26.1	630	25.4
진로진학상담부를 강화하여 진로진학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한다.	400	32.1	415	33.6	815	32.8
학년부 및 담임의 역할을 강화해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한다.	247	19.8	187	15.1	434	17.5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할 별도 부서를 신설한다.	293	23.5	311	25.2	604	24.3
전 체	1,247	100.0	1,236	100.0	2,483	100.0

$$\chi^2 = 9.465, df = 3, p = .024$$



〈그림 III-33〉 참여경험별 진로지도 체제 구축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진로진학상담부를 강화하여 진로진학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교육과정지원부를 강화하여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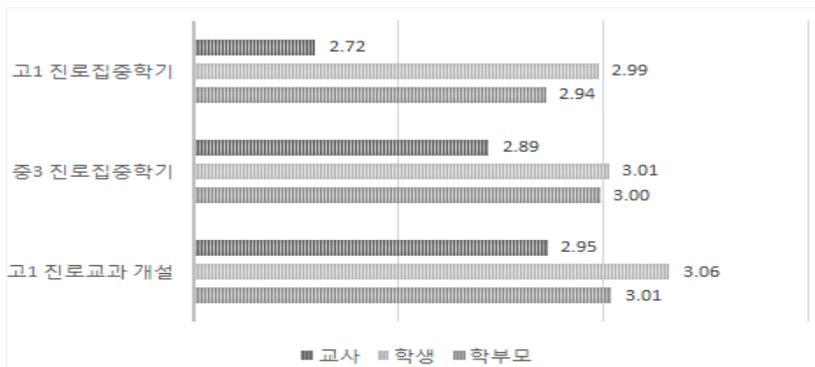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진로지도와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규모의 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부를 강화하여 진로진학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대도시는 교육과정지원부를 강화하여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하는 것과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할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진로진학상담부를 강화하여 진로진학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진로지도와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에 진로집중학기 운영,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진로교과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을 4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방안별 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별 동의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Ⅲ-37〉 응답자별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1 진로집중학기	2.72	(.87)	2.99	(.77)	2.94	(.76)
중3 진로집중학기	2.89	(.75)	3.01	(.76)	3.00	(.75)
고1 진로교과 개설	2.95	(.86)	3.06	(.80)	3.01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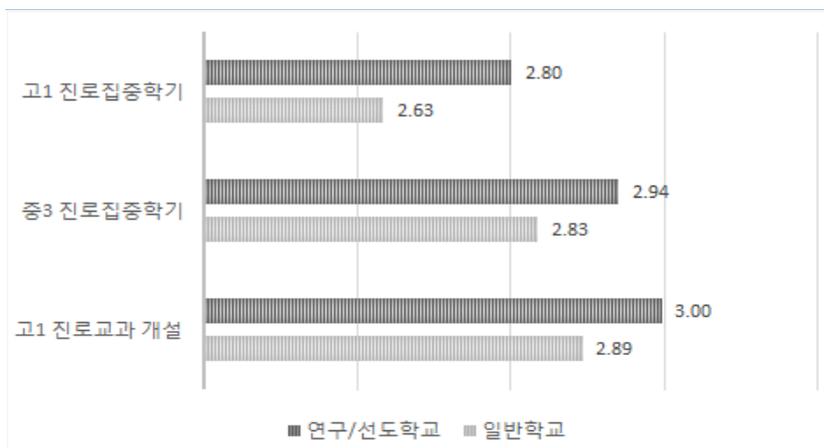
〔그림 Ⅲ-34〕 응답자별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평균

진로지도와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진로교과 개설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진로집중학기에 대한 응답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보다는 중학교 3학년 시기 운영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았다. 전반적으로 교사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연구/선도학교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8〉 참여경험별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1 진로집중학기	2.80	(.86)	2.63	(.87)	2.72	(.87)
중3 진로집중학기	2.94	(.74)	2.83	(.76)	2.89	(.75)
고1 진로교과 개설	3.00	(.86)	2.89	(.85)	2.95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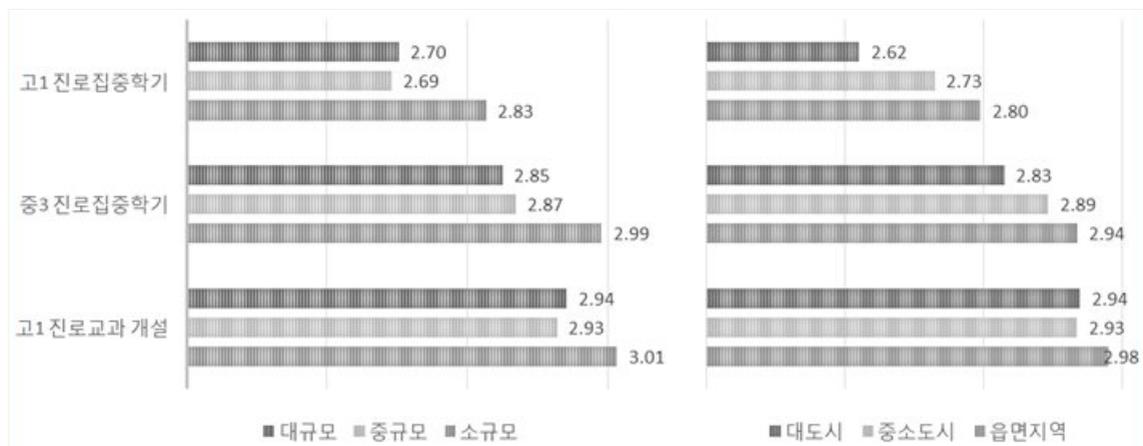
[그림 Ⅲ-35] 참여경험별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평균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 모두 고등학교 1학년 진로교과 개설, 중학교 3학년 진로집중학기 운영, 고등학교 1학년 진로집중학기 운영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9〉 규모별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표준 편차										
고1 진로집중학기	2.70	(.89)	2.69	(.89)	2.83	(.78)	2.62	(.88)	2.73	(.87)	2.80	(.87)
중3 진로집중학기	2.85	(.77)	2.87	(.77)	2.99	(.66)	2.83	(.75)	2.89	(.75)	2.94	(.76)
고1 진로교과 개설	2.94	(.84)	2.93	(.88)	3.01	(.79)	2.94	(.87)	2.93	(.85)	2.98	(.86)



[그림 III-36] 규모별 교과 및 진로 선택 지원 방안 평균

진로집중학기 운영과 진로교과 개설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교사의 의견은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라 동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순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소규모 학교와 읍면지역 학교 교사의 동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고, 적절성의 순위는 모두 고등학교 1학년 진로교과 개설, 중학교 3학년 진로집중학기 운영, 고등학교 1학년 진로집중학기 운영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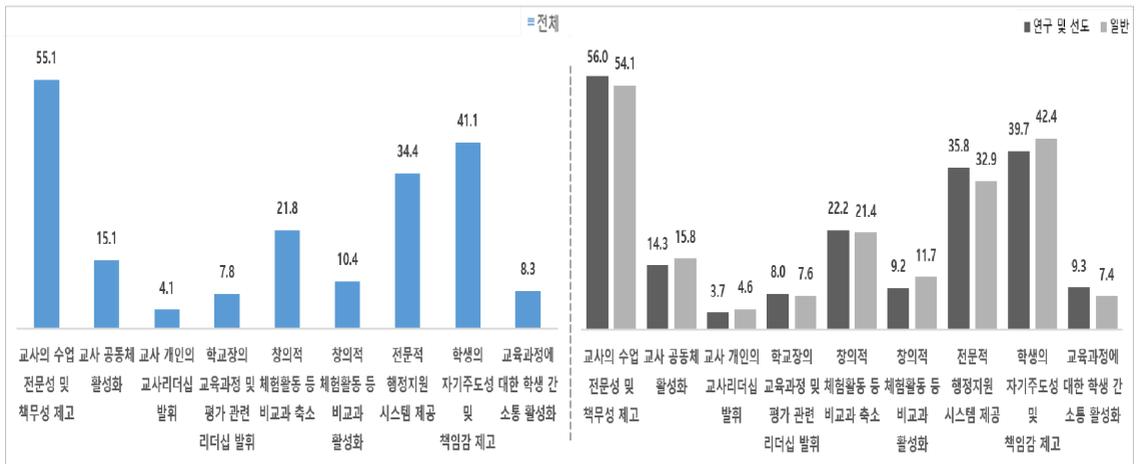
라.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1)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는 전제 조건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40〉 참여경험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다중응답)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	710	56.0	677	54.1	1,387	55.1
교사 공동체 활성화	181	14.3	198	15.8	379	15.1
교사 개인의 교사리더십 발휘	47	3.7	57	4.6	104	4.1
학교장의 교육과정 및 평가 관련 리더십 발휘	101	8.0	95	7.6	196	7.8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축소	281	22.2	268	21.4	549	21.8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성화	117	9.2	146	11.7	263	10.4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454	35.8	411	32.9	865	34.4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503	39.7	531	42.4	1,034	41.1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간 소통 활성화	118	9.3	92	7.4	210	8.3
전 체	1,267	100.0	1,251	100.0	2,5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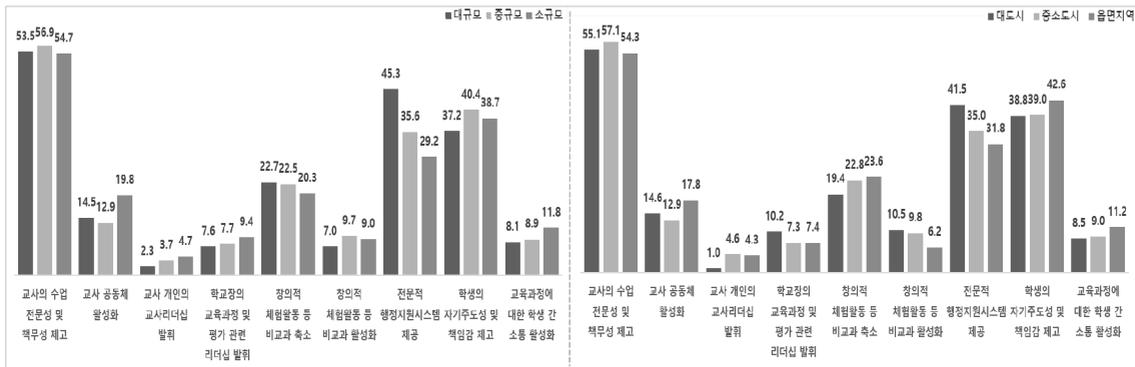


〈그림 III-37〉 참여경험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단위 : %)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41〉 규모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다중응답)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	92	53.5	502	56.9	116	54.7	162	55.1	408	57.1	140	54.3
교사 공동체 활성화	25	14.5	114	12.9	42	19.8	43	14.6	92	12.9	46	17.8
교사 개인의 교사리더십 발휘	4	2.3	33	3.7	10	4.7	3	1.0	33	4.6	11	4.3
학교장의 교육과정 및 평가 관련 리더십 발휘	13	7.6	68	7.7	20	9.4	30	10.2	52	7.3	19	7.4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축소	39	22.7	199	22.5	43	20.3	57	19.4	163	22.8	61	23.6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성화	12	7.0	86	9.7	19	9.0	31	10.5	70	9.8	16	6.2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78	45.3	314	35.6	62	29.2	122	41.5	250	35.0	82	31.8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64	37.2	357	40.4	82	38.7	114	38.8	279	39.0	110	42.6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간 소통 활성화	14	8.1	79	8.9	25	11.8	25	8.5	64	9.0	29	11.2
전 체	172	100.0	883	100.0	212	100.0	294	100.0	715	100.0	258	100.0



〈그림 III-38〉 규모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단위 : %)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규모 학교는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중규모 및 소규모 학교는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도시는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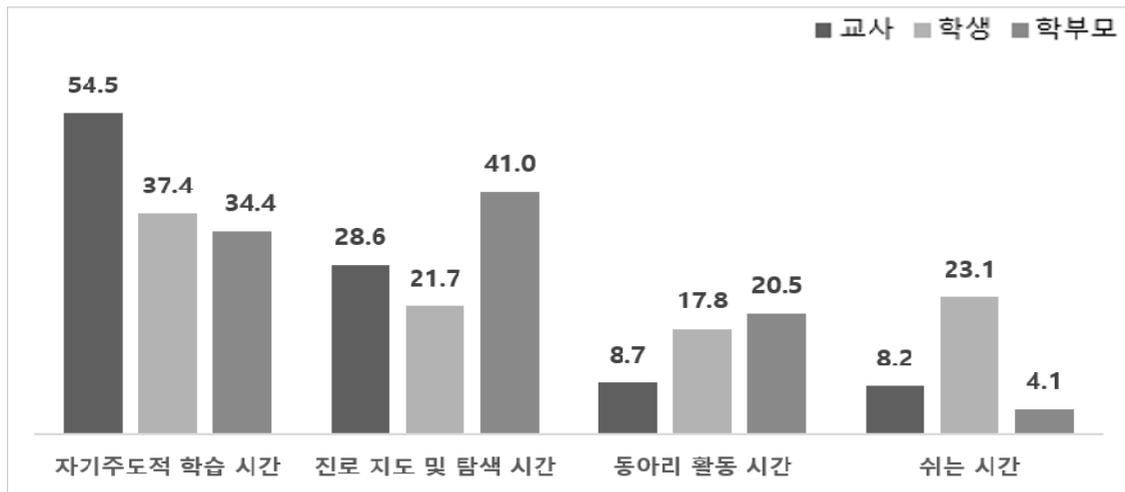
2) 공강시간 활용 방안,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고교학점제가 도입·시행될 경우,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하게 됨으로써 개인별로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2〉 응답자별 공강시간 활용 방안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1,336	54.5	1,412	37.4	425	34.4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	701	28.6	819	21.7	507	41.0
동아리 활동 시간	214	8.7	674	17.8	253	20.5
쉬는 시간	200	8.2	874	23.1	51	4.1
전 체	2,451	100.0	3,779	100.0	1,236	100.0

$\chi^2 = 702.453$ $df = 6$, $p = .000$



[그림 Ⅲ-39] 응답자별 공강시간 활용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교사와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부모는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는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며, 학생은 쉬는 시간,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학부모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하게 됨으로써 개인별로 발생하는 공강시간에 대해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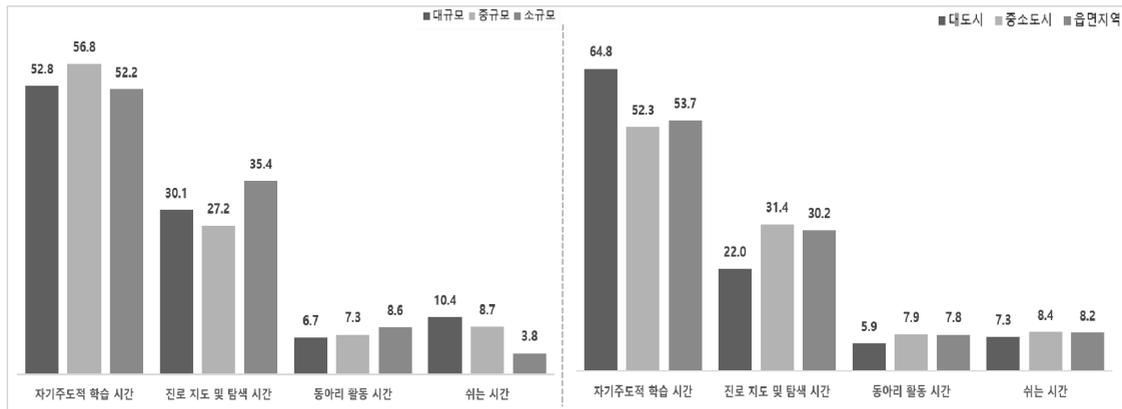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43〉 규모별 공강시간 활용 방안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N	%	N	%	N	%	N	%	N	%	N	%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86	52.8	491	56.8	109	52.2	186	64.8	363	52.3	137	53.7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	49	30.1	235	27.2	74	35.4	63	22.0	218	31.4	77	30.2
동아리 활동 시간	11	6.7	63	7.3	18	8.6	17	5.9	55	7.9	20	7.8
쉬는 시간	17	10.4	75	8.7	8	3.8	21	7.3	58	8.4	21	8.2
전 체	163	100.0	864	100.0	209	100.0	287	100.0	694	100.0	255	100.0

$\chi^2 = 11.593 \cdot df = 6, p = .072$

$\chi^2 = 13.786 \cdot df = 6, p = .032$



[그림 III-40] 규모별 공강시간 활용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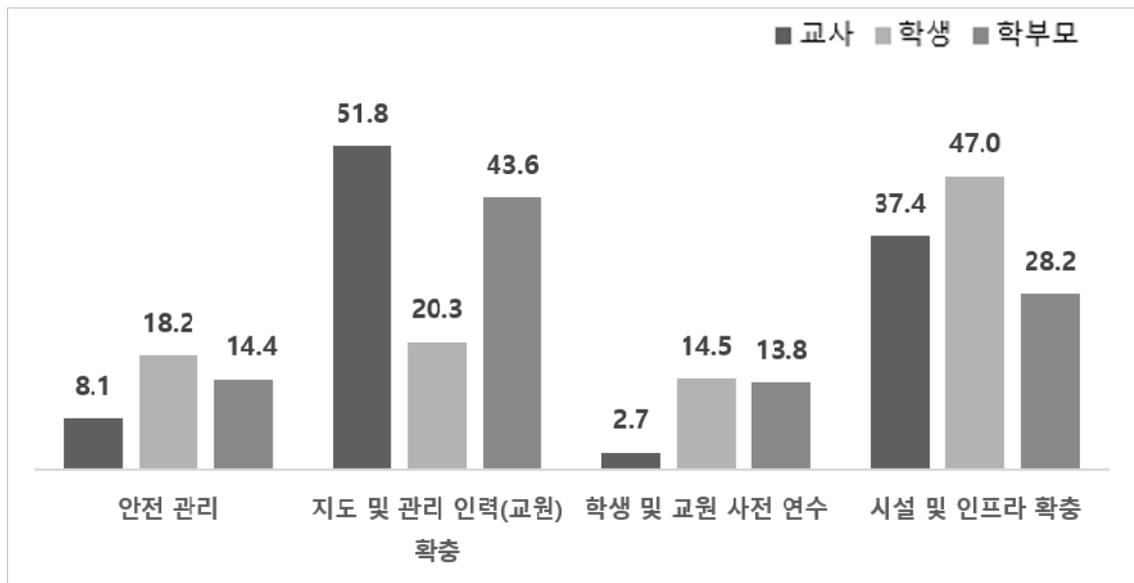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의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에 대한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다음으로,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공강 시간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4〉 응답자별 공강시간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구 분	교사		학생		학부모	
	N	%	N	%	N	%
안전 관리	202	8.1	689	18.2	180	14.4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	1,289	51.8	772	20.3	545	43.6
학생 및 교원 사전 연수	67	2.7	551	14.5	173	13.8
시설 및 인프라 확충	930	37.4	1,782	47.0	352	28.2
전 체	2,488	100.0	3,794	100.0	1,250	100.0

$\chi^2 = 879.394$ $df = 6$, $p = .000$



[그림 Ⅲ-41] 응답자별 공강시간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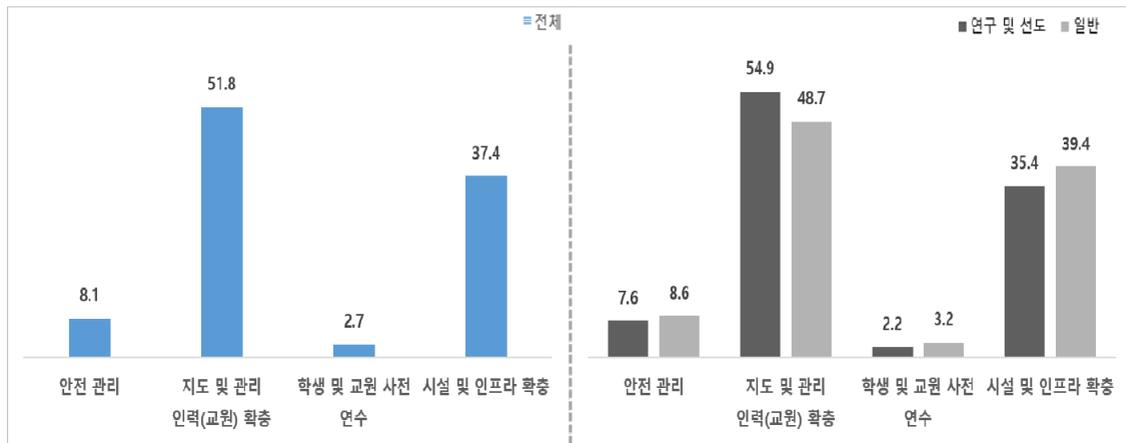
응답 결과, 교사와 학부모는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학생은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생은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학생은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고교학점제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45〉 참여경험별 공강시간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N	%	N	%	N	%
안전 관리	95	7.6	107	8.6	202	8.1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	686	54.9	603	48.7	1,289	51.8
학생 및 교원 사전 연수	27	2.2	40	3.2	67	2.7
시설 및 인프라 확충	442	35.4	488	39.4	930	37.4
전 체	1,250	100.0	1,238	100.0	2,488	100.0

$$\chi^2 = 10.797 \quad df = 3, \quad p = .013$$



[그림 III-42] 참여경험별 공강시간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단위 : %)

응답 결과, 연구/선도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 모두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 모두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참여경험별 응답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공강시간 활용을 위해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든 규모의 학교와 지역에서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 교·강사 제도

교·강사 제도를 10가지로 분류하여 각 제도에 대한 교사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각 제도에 대한 교사의 동의 정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6〉 참여경험별 교·강사 제도 관련 교원 인식

구 분	고교학점제 참여				전체 교사	
	연구/선도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가 차원에서 고교 교원 정원 확대	4.24	(.87)	4.17	(.93)	4.21	(.90)
시·도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에 교원 정원 추가 배정	4.36	(.76)	4.17	(.9)	4.26	(.84)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 배치	4.23	(.86)	4.03	(.94)	4.13	(.91)
학교 교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선택과목은 외부 강사 채용	4.01	(.96)	3.95	(.97)	3.98	(.96)
학교 교원과 외부 강사 중 전문성 있는 사람이 선택과목 담당	3.52	(1.17)	3.44	(1.17)	3.48	(1.17)
고교 교원의 적정수업시수 기준을 학교별, 지역별로 결정	3.54	(1.11)	3.45	(1.12)	3.49	(1.12)
새로운 과목 담당 교원의 수업 연구를 위한 집중연수기간	4.09	(.86)	4.01	(.86)	4.05	(.86)
교원의 임용과목 외의 과목 지도 허용	3.12	(1.25)	2.94	(1.22)	3.03	(1.24)
교원자격이 없는 외부 강사의 단독 수업 허용(평가만 교원 담당)	2.76	(1.27)	2.67	(1.26)	2.72	(1.27)
교원자격이 없는 외부 강사의 단독 수업과 평가 허용	2.80	(1.32)	2.77	(1.31)	2.79	(1.32)

전반적으로 교·강사 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연구/선도학교 교사가 일반학교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경우, 시·도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에 교원 정원 추가 배정, 국가 차원에서 고교 교원 정원 확대,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 배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일반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같은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학교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연구/선도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47〉 규모별 교·강사 제도 관련 교원 인식

구 분	학교규모						지역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표준 편차										
국가 차원에서 고교 교원 정원 확대	4.28	(.82)	4.24	(.89)	4.23	(.82)	4.20	(.9)	4.26	(.85)	4.24	(.87)
시·도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에 교원 정원 추가 배정	4.41	(.71)	4.36	(.76)	4.31	(.83)	4.33	(.8)	4.36	(.75)	4.37	(.76)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 배치	4.16	(.9)	4.24	(.85)	4.25	(.89)	4.25	(.81)	4.21	(.87)	4.26	(.89)
학교 교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선택과목은 외부 강사 채용	3.98	(1)	4.00	(.96)	4.08	(.91)	4.04	(.89)	3.97	(1)	4.10	(.94)
학교 교원과 외부 강사 중 전문성 있는 사람이 선택과목 담당	3.56	(1.18)	3.48	(1.17)	3.66	(1.14)	3.56	(1.15)	3.43	(1.19)	3.72	(1.09)
고교 교원의 적정수업시수 기준을 학교별, 지역별로 결정	3.44	(1.18)	3.52	(1.12)	3.67	(1.04)	3.57	(1.03)	3.48	(1.16)	3.65	(1.08)
새로운 과목 담당 교원의 수업 연구를 위한 집중연수기간	4.13	(.87)	4.10	(.85)	4.00	(.89)	4.02	(.9)	4.11	(.85)	4.11	(.86)
교원의 임용과목 외의 과목 지도 허용	3.16	(1.2)	3.08	(1.27)	3.25	(1.18)	3.30	(1.23)	3.04	(1.26)	3.14	(1.23)
교원자격이 없는 외부 강사의 단독 수업 허용 (평가만 교원 담당)	2.76	(1.28)	2.71	(1.26)	2.98	(1.3)	2.88	(1.28)	2.67	(1.26)	2.89	(1.29)
교원자격이 없는 외부 강사의 단독 수업과 평가 허용	2.73	(1.27)	2.78	(1.32)	2.98	(1.33)	2.85	(1.32)	2.76	(1.31)	2.87	(1.33)

학교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교·강사 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및 중규모의 학교와 중소도시의 학교는 시·도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에 교원 정원 추가 배정, 국가 차원에서 고교 교원 정원 확대,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 배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던 반면, 소규모의 학교와 대도시 및 읍면지역의 학교는 시·도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에 교원 정원 추가 배정,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 배치, 국가 차원에서 고교 교원 정원 확대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관련 델파이 조사 분석

1. 델파이 조사 개요
 2. 델파이 조사 결과
- 

IV. 고교학점제와 학교 문화 관련 델파이 조사 분석

1 델파이 조사 개요

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및 조사 내용

연구진은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2단계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32명이며,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분	인원 수(명)	비고
대학 교수 및 연구자	15	
장학사	4	
교장 및 교감	6	
교사	7	연구·선도학교
총합	32	

델파이 1차 조사는 2019년 10월 1일(화)부터 10월 10일(목)까지 진행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차 조사지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2차 조사는 11월 4일(월)부터 11월 13일(수)까지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e-mail로 델파이 조사지를 발송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델파이 1차 조사는 학교 문화의 4가지 영역 및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에 대한 제작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델파이 2차 조사는 1차의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예상되는 어려움은 시급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고, 해결 방안은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제시하였다.

〈표 IV-2〉 델파이 조사의 내용

구분	질문의 내용		질문의 형식
1차 (10월)	학사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관련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개방형
	교원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관련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진로지도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관련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학교생활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관련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2차 (11월)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예상되는 어려움 - 시급도/중요도	혼합형 (리커트 척도 및 부분 개방형)
		해결 방안 - 적합도/실현가능성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	예상되는 어려움 - 시급도/중요도	
		해결 방안 - 적합도/실현가능성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조성	예상되는 어려움 - 시급도/중요도	
		해결 방안 - 적합도/실현가능성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	예상되는 어려움 - 시급도/중요도	
해결 방안 - 적합도/실현가능성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 적절성			

나. 델파이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비전 수립과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영역별 실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각 영역별로 학교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화한 지표의 타당화를 위해 고교교육제도 및 미래교육 관련 전문가, 고교학점제 관련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하였다. 각 영역별로 타당성을 묻기 위해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의 중요도와 시급도, 해결방안에 대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함께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 연구는 특히 각 문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1) 특정 지표별 응답값의 평균값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을 응용하여, 2) 예상되는 어려움의 중요도-시급도 분석, 3) 해결방안의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어려움의 중요도-시급도 분석에서는 각 영역별 중요도 문항과 시급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X축과 Y축을 설정하고, 각 문항들이 어느 4분면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① 중요하면서, 시급도가 높은 수준인 문항, ② 중요하지만, 시급도는 낮은 문항, ③ 중요도가 낮지만, 시급도가 높은 문항, ④ 중요도가 낮고, 시급도도 낮은 문항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해결방안의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각 영역별로 적합도 응답의 평균값과, 실현가능성 응답의 평균값으로 X축과 Y축을 설정한 후, 각 문항의 위치를 4분면에 표현 가능하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①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

이 높은 문항, ②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항, ③ 적합도가 낮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 ④ 적합도가 낮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과 판단기준을 요약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3〉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방법

구분	내 용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 ○ 영역별 학교 문화 조성 - 해결방안 ○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관련 문항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한 선결과제로서의 중요정도 ○ 영역별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한 단기-중장기 해결과로서의 시급도 ○ 영역별 학교 문화 조성 방안으로서의 적합도 ○ 영역별 학교 문화 조성 방안으로서의 실현가능성 ○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관련 문항의 적절성

2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앞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화 된 문항을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예상되는 어려움(선결과제)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사영역 학교 문화,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의 각 영역별 학교 문화 조성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에 각 영역별로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한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먼저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전문가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사영역 학교 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관하여, 1차 응답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의 경우, 4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선결과제), 교사의 경우, 4가지 예상되는 어려움, 학교의 경우, 9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총 17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IV-4〉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응답 결과

구분		중요도				시급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개인 시간표 작성, 공강 시간의 활용 등에 대한 인식 부족	3.938	0.840	2	5	3.750	0.842	2	5
	②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목 선택에 어려움 발생	4.219	0.792	3	5	4.031	0.967	2	5
	③ 전입 등 불가피한 미이수 과목 발생 우려	3.688	0.896	1	5	3.438	1.014	1	5
	④ 소외 학생 발생 우려	3.125	0.793	1	5	3.000	0.803	1	5
교사	⑤ 교사 간 수업 시수 불균형 및 순회교사 활용에 따른 불만	4.344	0.653	3	5	4.281	0.851	2	5
	⑥ 교사 간 업무 및 행정 부담 불균형 초래	4.125	0.609	3	5	4.156	0.723	3	5
	⑦ 다과목이나 야간강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요구	4.250	0.718	3	5	4.094	0.995	2	5
	⑧ 융합 교과 또는 협력교사 활용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한 갈등 우려	3.500	0.718	2	5	3.250	0.803	2	5
학교	⑨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4.344	0.827	2	5	4.219	0.792	2	5
	⑩ 특정 과목 쏠림, 소수 선택과목 지원의 어려움	4.344	0.653	3	5	4.219	0.706	3	5
	⑪ 집중이수제 운영의 어려움 및 집중이수제 운영을 위한 유연한 학기 운영 필요	3.906	0.963	2	5	3.688	0.965	2	5
	⑫ 재이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도 미비 가능성	4.094	0.856	2	5	3.813	1.120	1	5
	⑬ 교원 수급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 발생	4.313	0.592	3	5	4.094	1.088	1	5
	⑭ 공강 시간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406	1.043	1	5	3.594	0.979	1	5
	⑮ 학생 이동 및 공강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	3.531	0.879	2	5	3.656	0.745	2	5
	⑯ 학사 운영에 대한 학교 간 편차 발생 우려	3.563	0.982	1	5	3.656	0.971	1	5
	⑰ 현 대입제도 유지 시 고교학점제 안착 어려움	4.406	0.837	2	5	4.344	0.902	2	5
사례수		3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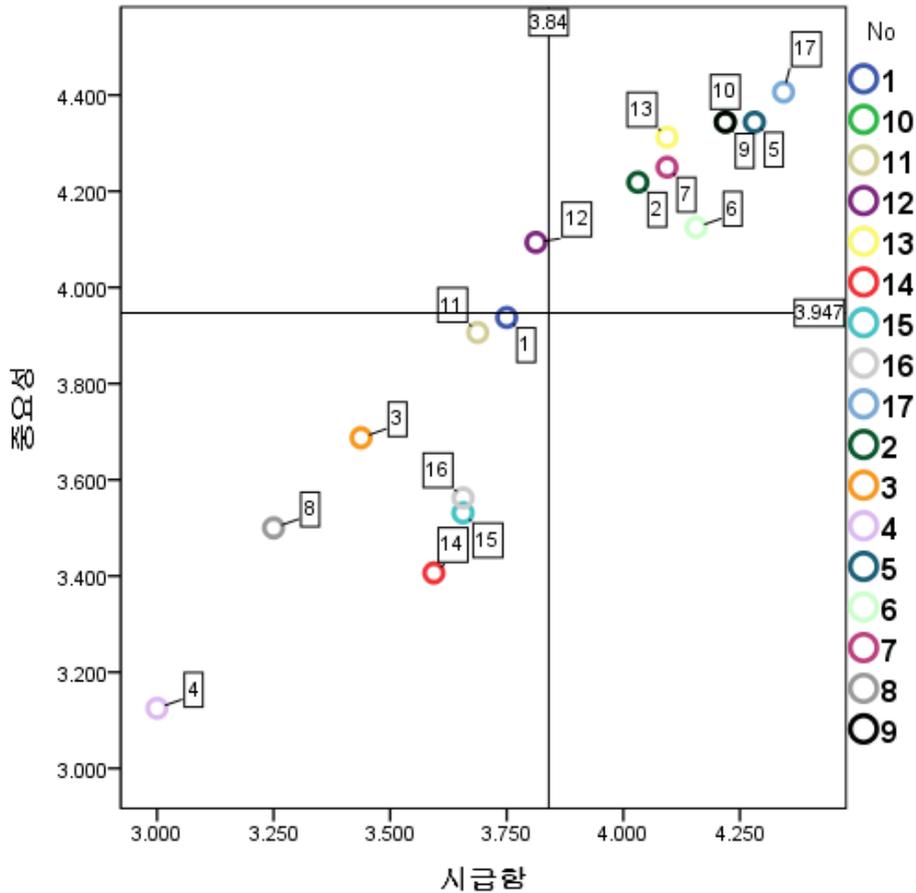
먼저,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영역별로 분석해보았을 때, 학생과 관련하여서는 ‘②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목 선택에 어려움 발생’이 응답 평균 4.219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시급도 또한 4.0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 영역에서는 ‘⑤ 교사 간 수업 시수 불균형 및 순회교사 활용에 따른 불만’의 중요도가 4.3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급도도 4.281로 가장 높았다. 학교 영역에서는 ‘⑰ 현 대입제도 유지 시 고교학점제 안착 어려움’이 중요도가 4.406점, 시급도가 4.344점으로 각각 가장 높은 응답 평균을 보였다. 각 영역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 시급도 또한 가장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사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어려운 점에 대한 전체 문항을 분석해보면, 전문가들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문항은 학교 영역의 ‘⑰ 현 대입제도 유지 시 안착 어려움’이다. 시급도 측면에서도 해당 문항이 가장 응답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사 영역에서 고교학점제 확산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주요 문항으로는 ‘⑤ 교사 간 수업 시수 불균형 및 순회교사 활용에 따른 불만’, 문항이 있었다. 또한 순으로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의 응답 편차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⑬ 교원 수급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 발생’의 중요도에 관한 전문가 인식의 편차는 0.592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양상과 인식이 비교적 일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시급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⑩ 특정 과목 쏠림, 소수 선택과목 지원의 어려움’ 편차가 0.706으로 다른 문항의 표준편차에 비해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의 시급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양상과 인식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문가 응답 분석을 통해 학사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를 위한 문화 조성 시 어려움 중, 문항들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각각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도와 시급도를 사분면에 나타낸 중요도-시급도 분석을 통해 1)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문항, 2) 중요도는 낮으나, 시급한 문항, 3) 중요도는 높으나, 시급하지 않은 문항, 4) 중요도가 낮고, 시급하지 않은 문항으로 전체 문항을 분류하였다. 4분면에서 X축, Y축 각각의 축은 중요도와 시급도의 전체 응답 평균이다. 즉 1사분면에 위치할 경우,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문항, 2사분면에 위치할 경우, 중요도가 높고 시급하지 않은 문항, 3사분면에 위치할 경우, 중요도가 낮고, 시급하지 않은 문항, 4사분면에 위치할 경우, 중요도는 낮으나, 시급한 문항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문화 조성 시에 어려움을 분석한 중요도-시급도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V-1]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예상되는 어려움) 중요도-시급함 분석

중요도-시급도를 분석한 위 그림에 따르면 중요성의 전체 응답 평균은 3.947, 시급함의 전체 응답 평균은 3.840으로 나타났다.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중요도가 높고 시급도가 높은 문항은 총 8개 문항으로 ‘17 현 대입제도 유지 시 고교학점제 안착 어려움’, ‘5 교사 간 수업 시수 불균형 및 순회교사 활용에 따른 불만’, ‘10 특정 과목 쏠림, 소수 선택과목 지원의 어려움’, ‘9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13 교원 수급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 발생’, ‘7 다과목이나 야간강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요구’, ‘6 교사 간 업무 및 행정 부담 불균형 초래’, ‘2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목 선택에 어려움 발생’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사 영역과 학교 영역에 속한 문항들이었으며, 특히 이 중에서는 교사 영역에 속한 4문항 중, 3문항이 포함되어 해당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학사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 확산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시급하지 않은 문항은 ‘12 재이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도 미비 가능성’

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 중, 중요성이 높고 시급한 문항부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가 조사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해결방안에 대해 학생, 교사, 학교 영역별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별로 해결방안으로써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학생의 경우, 5가지 해결방안, 교사의 경우, 4가지 해결방안, 학교 영역에서는 8가지 해결방안으로 총 17개 문항을 해결방안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설문 문항을 통한 전문가 2차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영역별, 전체 경향성, 적합도-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해결방안 응답 결과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개인맞춤형 학생지도 방안 마련 (고교 3년간 학생 개인별 진로로드맵 구축 등)	4.250	0.672	3	5	3.969	0.740	2	5
	②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438	0.619	3	5	4.281	0.888	2	5
	③ 공강 시간 활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공강 시간을 위한 학교 내 다양한 시설 구축	4.219	0.832	2	5	3.750	0.803	1	5
	④ 소속감, 유대감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련	3.563	0.948	2	5	3.594	0.665	2	5
	⑤ 교과목에 대한 안내서 개발 및 제공 (대학의 강의 요람 또는 강의계획서 등과 유사)	4.313	0.592	3	5	4.375	0.793	2	5
교사	⑥ 수업시간표 작성 관련 교사 간 협력 절대적 필요	4.438	0.619	3	5	4.094	0.689	3	5
	⑦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의 적정 의무시 수 규정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4.375	0.751	2	5	3.688	0.738	2	5
	⑧ 교원 연수, 컨설팅,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외부 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	3.969	0.782	2	5	3.688	0.859	2	5
	⑨ 생활지도 교사, 교육과정 편성 전담 교사, 진로 전담 교사, 교무행정사 배치 확대 등에 대한 검토	4.344	0.653	3	5	3.750	0.842	2	5
학교	⑩ 교육과정 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250	0.718	3	5	4.063	0.564	3	5
	⑪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한 '학점제 교육과정' 개발	4.375	0.793	2	5	4.000	0.718	2	5
	⑫ 원활한 교사 수급, 학교 시설 관련 재정적 지원 및 근접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마련(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등과 정기적 협의 운영, 학사관리 공동 지침 개발 등)	4.313	0.592	3	5	3.719	0.924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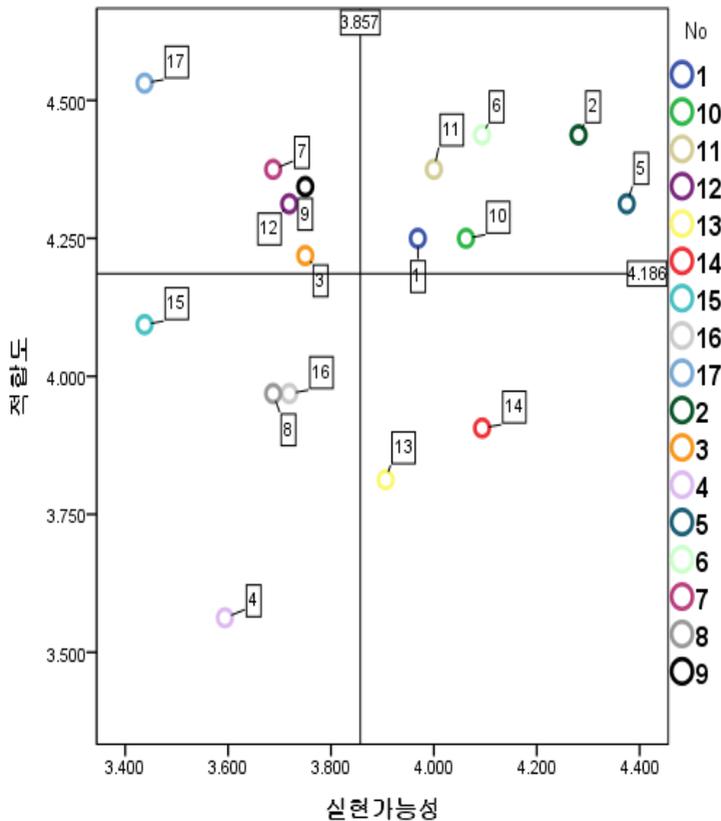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⑬ 공강 시간 활용에 대한 가이드 등 개발 및 제공(다양한 사례, 모형 제시 및 인식 제고, 활용을 위한 연수 제공 등)	3.813	0.859	2	5	3.906	0.963	1	5
⑭ 학생 이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 방안 마련	3.906	0.777	2	5	4.094	0.734	3	5
⑮ 고교학점제에 맞게 학교시설 재구조화(소규모 교실, 공강 시간 이용 교실 등)	4.094	0.818	2	5	3.438	0.759	2	5
⑯ 개별 고등학교 운영(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에 학교선택권 부여 검토	3.969	0.861	2	5	3.719	0.958	2	5
⑰ 현 집중이수제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 평가(절대평가제 도입 등) 및 대입제도 개선	4.531	0.671	2	5	3.438	1.162	1	5
사례수	32				32			

우선,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결과를 영역별로 분석해보면, 학생 영역에서는 '②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적합도가 4.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4.375의 응답 평균을 나타낸 '⑤ 교과목에 대한 안내서 개발 및 제공(대학의 강의 요람 또는 강의계획서 등과 유사)'이 학생 영역 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영역의 경우, '⑥ 수업시간표 작성 관련 교사 간 협력 절대적 필요' 문항의 적합도가 4.438로 가장 높았으며, 실현가능성 또한 4.094로 해당 영역 내에서 가장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영역에서는 '⑰ 현 집중이수제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 평가(절대평가제 도입 등) 및 대입제도 개선'이 가장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문항의 실현응답 평균은 3.438로 낮게 나타났다.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⑭ 학생 이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 방안 마련'이었다. 전반적으로 각 영역 내에서 적합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 실현가능성 또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 영역에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전체 문항의 전문가 응답 경향을 분석해보면, 학교 영역의 '⑰ 현 집중이수제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 평가(절대평가제 도입 등) 및 대입제도 개선'이 응답 평균 4.531을 기록하여,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학생 영역의 '②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교사 영역의 '⑥ 수업시간표 작성 관련 교사 간 협력 절대적 필요' 문항의 적합도가 4.43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학생 영역의 '⑤ 교과목에 대한 안내서 개발 및 제공(대학의 강의 요람 또는 강의계획서 등과 유사)' 방안의 응답 평균값이 가장 높아,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해결방안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학생 영역의 '②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교사 영역의 '⑥ 수업시간표 작성 관련 교사 간 협력 절대적 필요', 학교 영역의 '⑭ 학생 이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 방안 마련'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의 해결방안 관련 설문 문항의 응답 편차를 학생, 교사, 학교 전 영역을 살펴본 결과, 적합도 측면에서는 학생 영역의 '⑤ 교과목에 대한 안내서 개발 및 제공(대학의 강의 요람 또는 강의계획서 등과 유사)'와 학교 영역의 '⑫ 원활한 교사 수급, 학교 시설 관련 재정적 지원 및 근접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마련(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등과 정기적 협의회 운영, 학사관리 공동 지침 개발 등)'의 전문가 인식의 편차가 0.592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해당 문항의 적합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양상이 비교적 일관됨을 의미한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학교 영역의 '⑩ 교육과정 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의 편차가 0.564로 나타나, 해당 문항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에 비해 전문가들이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해결방안)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

앞서 본 연구에서는 같이 학교 문화 조성 시 어려움에 대하여 문항 평균 응답값을 표시한 산점도 도표를 통해 각 문항들의 중요도-시급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문화 조성 시 해결방안의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적합도와 실현도를 사분면으로 나타내어, 1)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 2)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항, 3) 적합도도 낮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항, 4) 적합도는 낮으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 때에 그래프의 X축, Y축 각각의 축은 적합도 응답평균값과 실현가능성의 응답평균값이다. 이에 특정 해결방안 문항이 1사분면에 위치할 경우,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 2사분면은, 적합도가 낮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 3사분면은 적합도가 낮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항, 4사분면은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항이다. 이에 따라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문화 조성 시에 어려움을 분석한 중요도-시급도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적합도-실현가능성을 분석한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적합도의 전체 응답 평균은 4.186, 실현가능성의 전체 응답 평균은 3.857로 나타났다. 학사 영역에서 학교 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은 총 6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영역의 경우, ‘②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⑤ 교과목에 대한 안내서 개발 및 제공(대학의 강의 요람 또는 강의계획서 등과 유사)’, ‘① 개인맞춤형 학생지도 방안 마련(고교 3년간 학생 개인별 진로로드맵 구축 등)’, 교사 영역은 ‘⑥ 수업시간표 작성 관련 교사 간 협력 절대적 필요’, 학교 영역은 ‘⑩ 교육과정 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⑪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한 ‘학점제 교육과정’ 개발’이었다.

대부분 학생과 학교 영역에 속한 문항들이었으며, 특히 학생 영역은 5개의 해결방안 중 3개의 해결방안이 적합도와 실현가능성 머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에서 다른 해결방안들이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적합도는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편인 문항들은 ‘③ 공강 시간 활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공강 시간을 위한 학교 내 다양한 시설 구축’, ‘⑦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의 적정 의무시수 규정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⑨ 생활지도 교사, 교육과정 편성 전담 교사, 진로 전담 교사, 교무행정사 배치 확대 등에 대한 검토’, ‘⑫ 원활한 교사 수급, 학교 시설 관련 재정적 지원 및 근접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마련(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등과 정기적 협의회 운영, 학사관리 공동 지침 개발 등)’, ‘⑰ 현 집중이수제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 평가(절대평가제 도입 등) 및 대입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들의 경우,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합하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학사 영역에서의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나.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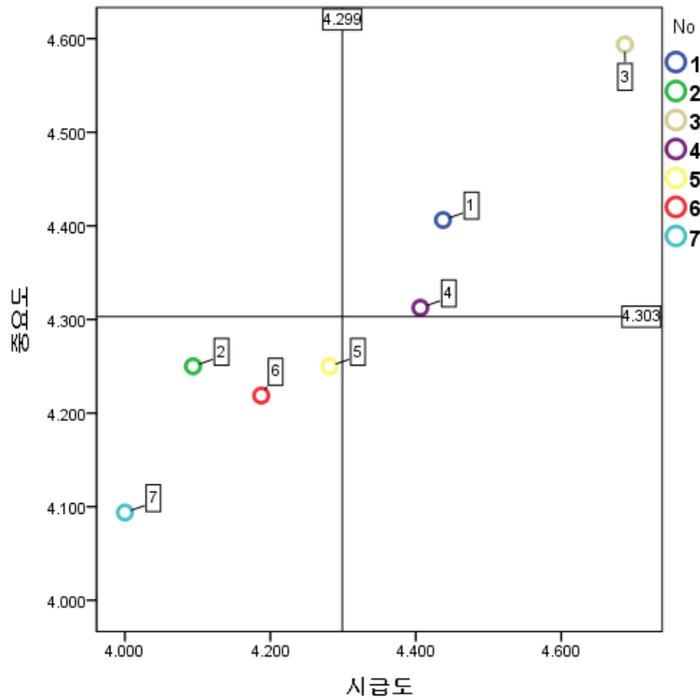
다음으로 교원 영역에서의 고교학년제 확산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학교 문화 조성 시 교원영역에서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학생, 교사 영역별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 어려움의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학생의 경우, 4가지 어려움에 대한 문항, 교사의 경우, 3가지 어려움에 대한 문항으로 총 7가지 교원 영역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 문항을 통해 전문가 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영역별, 전체 경향성, 중요도-시급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표 IV-6〉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응답 결과

구분		중요도				시급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부족, 정책거부감 해소 필요(수업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미흡)	4.406	0.665	3	5	4.438	0.759	3	5
	② 과목선택 불균형 및 편중에 대한 우려, 위축감	4.250	0.672	3	5	4.094	0.856	2	5
	③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적절한 연수의 부족, 수업전문성 제고 기회 부족 및 다과목 수업의 질저하에 대한 우려,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순회교사 수급의 어려움)	4.594	0.615	3	5	4.688	0.592	3	5
	④ 과목선택 지도·상담 역할을 담당할 교사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4.313	0.738	2	5	4.406	0.798	2	5
교사	⑤ 교사 업무과중 문제로 인한 교사 피로도 증폭(수업준비 및 평가 부담, 과목선택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외부강사 및 순회교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	4.250	0.718	3	5	4.281	0.813	3	5
	⑥ 수업 중심이 아닌 업무 중심 학교 문화(기존 교사, 학교 여건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과정 운영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어려움, 교사 중심 교과 편성 및 업무 배분 관행)	4.219	0.751	3	5	4.188	0.821	2	5
	⑦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의 경험 부족(동교과 교사 간 소통의 기회 제한적, 협력 문화 부재, 협의시간을 만들기 어려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운영할 교사의 부족,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족)	4.094	0.777	3	5	4.000	0.842	2	5
사례수		32				32			

먼저 각 영역별로 전문가 응답을 분석해보았을 때, 학생 영역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어려움은 ‘③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적절한 연수의 부족, 수업전문성 제고 기회 부족 및 다과목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순회교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경우, 시급도 측면에서도 학생 영역 내에서 가장 높은 응답 평균을 보여, 중요한 동시에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교사 영역에서는 ‘⑤ 교사 업무과중 문제로 인한 교사 피로도 증폭(수업준비 및 평가 부담, 과목선택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외부강사 및 순회교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 문항의 중요도 응답평균이 4.2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급도 또한 4.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 내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항의 경우, 시급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 영역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어려운 점에 대해 전체 문항의 전문가 응답 경향을 분석해보았을 때,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학생 영역의 ‘③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적절한 연수의 부족, 수업전문성 제고 기회 부족 및 다과목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순회교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①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부족, 정책거부감 해소 필요(수업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미흡)’, ‘④ 과목선택 지도·상담 역할을 담당할 교사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생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시급도 측면에서 또한 ‘③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적절한 연수의 부족, 수업전문성 제고 기회 부족 및 다과목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순회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가장 시급하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중요도와 동일하게 ‘①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부족, 정책거부감 해소 필요’, ‘④ 과목선택 지도·상담 역할을 담당할 교사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시급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예상되는 어려움) 중요도-시급함 분석

한편,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편차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 측면에서는 ‘③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의 전문가 인식 편차가 0.615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의 중요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인식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시급도에 대한 문항도 마찬가지로 동일 문항의 표준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의 시급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교원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를 위한 문화 조성 시 어려움 중, 문항들의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중요도와 시급도,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문화 조성 시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중요도-시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원 영역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문화 조성 시에 어려움을 분석한 중요도-시급도 분석결과를 다음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중요도-시급도 분석을 실시한 그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교원 영역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물은 문항들의 중요도 평균은 4.303, 시급도의 경우, 평균 4.299로 나타났다. 교원영역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높은 어려움은 총 3개 문항으로 모두 학생 영역에 속한 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③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 ‘①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

해 및 공감대 부족, 정책거부감 해소 필요(수업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미흡), '④ 과목선택 지도·상담 역할을 담당할 교사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다. 해당 문항들의 경우,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높은 사안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외 문항들의 경우,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시급도 또한 낮은 사안으로 구분되었다.

교원 영역에서의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문가에게 물은 설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 및 전문성, 업무 및 문화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별 문항들은 각각 해결방안으로써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인식 및 전문성 영역은 7가지 해결방안 관련 문항, 업무 및 문화 영역은 총 8가지 해결방안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설문 문항을 통한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를 영역별, 전체 경향성, 적합도-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7〉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해결방안 응답 결과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 소	최 대	평균	표준 편차	최 소	최 대	
인식 및 전문성	①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모든 교사 연수 참여, 학습공동체,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 등 연수의 개별화 및 소규모화 필요)	4.250	0.718	3	5	4.500	0.622	3	5
	② 수업전문가로서 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확대(홍보 필요)	4.094	0.777	3	5	4.094	0.777	3	5
	③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 명확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및 신뢰성 제고	4.344	0.787	3	5	4.094	0.818	2	5
	④ 수업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다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체계화,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대한 기존 교원 재교육, 자율적 연수, 외부강사 질 관리(교직에 대한 소정 교육 이수))	4.406	0.560	3	5	4.063	0.801	2	5
	⑤ 진로설계 전문역량 신장 (전 교원에 대해 과목선택 지도·상담 전문성 개발 연수 실시)	4.469	0.671	3	5	3.906	0.734	3	5
	⑥ 새로운 과목의 수업자료 개발 보급(교수요목, 학생평가 방법 등 기본 지도안 등, 학습공동체와 연계 지원)	4.094	0.856	3	5	4.000	0.718	3	5
	⑦ 교원양성단계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의무화, 임용단계 다과목 전공 우대	4.313	0.965	1	5	3.781	0.941	2	5
업무 및	⑧ 전담행정요원 배치 및 효율적 행정업무시스템 구축(보직교사 중심의 행정업무 분리, 과목선택 전담부서 마련 등)	4.500	0.762	3	5	3.750	0.916	2	5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 소	최 대	평균	표준 편차	최 소	최 대	
문 화	⑨ 표준시수제 도입, 교원복무 규정 개정 (연수, 협의, 수업 연구시간 고정 등)	4.375	0.833	3	5	3.906	0.995	1	5
	⑩ 수업보조교사 지원	3.438	0.801	2	5	3.063	0.840	1	5
	⑪ 다과목 수업, 다수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처우 방안 마련(보수체계 개선, 학습연구년제 등)	4.375	0.660	3	5	3.719	0.813	2	5
	⑫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 업무 분장	4.438	0.564	3	5	3.750	0.803	1	5
	⑬ 협력적 교원 문화 조성을 위한 단·중·장기의 실천계획 및 방안을 개발하여 보급	3.781	0.792	2	5	3.813	0.821	2	5
	⑭ 협력적 교원 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 개발 및 공동체 활동 지원(교원동아리, 신규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간 코칭, 스터디그룹, 공동수업 계획 협의 모임 등)	4.094	0.689	3	5	3.906	0.641	3	5
	⑮ 수업나눔 문화 조성(수업개방 및 상호피드백 활성화)	4.000	0.568	3	5	3.906	0.689	3	5
사례수	32				32				

먼저 각 영역별로 전문가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인식 및 전문성 영역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해결방안은 ‘⑤ 진로설계 전문역량 신장(전 교원에 대해 과목선택 지도·상담 전문성 개발 연수 실시)’으로 적합도 응답 평균이 4.469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응답 평균을 나타낸 문항은 ‘①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모든 교사 연수 참여, 학습공동체,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 등 연수의 개별화 및 소규모화 필요)’으로 4.500의 응답 평균을 나타냈다. 업무 및 문화 영역에서는 적합도의 경우, ‘⑧ 전담행정요원 배치 및 효율적 행정업무시스템 구축(보직교사 중심의 행정업무 분리, 과목선택 전담부서 마련 등)’이 4.500의 가장 높은 응답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⑨ 표준시수제 도입, 교원복무 규정 개정(연수, 협의, 수업 연구시간 고정 등)’, ‘⑭ 협력적 교원 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 개발 및 공동체 활동 지원(교원동아리, 신규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간 코칭, 스터디그룹, 공동수업 계획 협의 모임 등)’, ‘⑮ 수업나눔 문화 조성(수업개방 및 상호피드백 활성화)’의 3가지 해결방안 관련 문항의 응답 평균이 3.90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전문가 응답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적합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응답 평균을 보인 문항은 ‘⑧ 전담행정요원 배치 및 효율적 행정업무시스템 구축(보직교사 중심의 행정업무 분리, 과목선택 전담부서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⑤ 진로설계 전문역량 신장(전 교원에 대해 과목선택 지도·상담 전문성 개발 연수 실시)’, ‘⑫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 업무 분장’ 순으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응답 평균을 보인 해결방안은 ‘①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모든 교사 연수 참여, 학습공동체,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 등 연수의 개별화 및 소규모화 필요)’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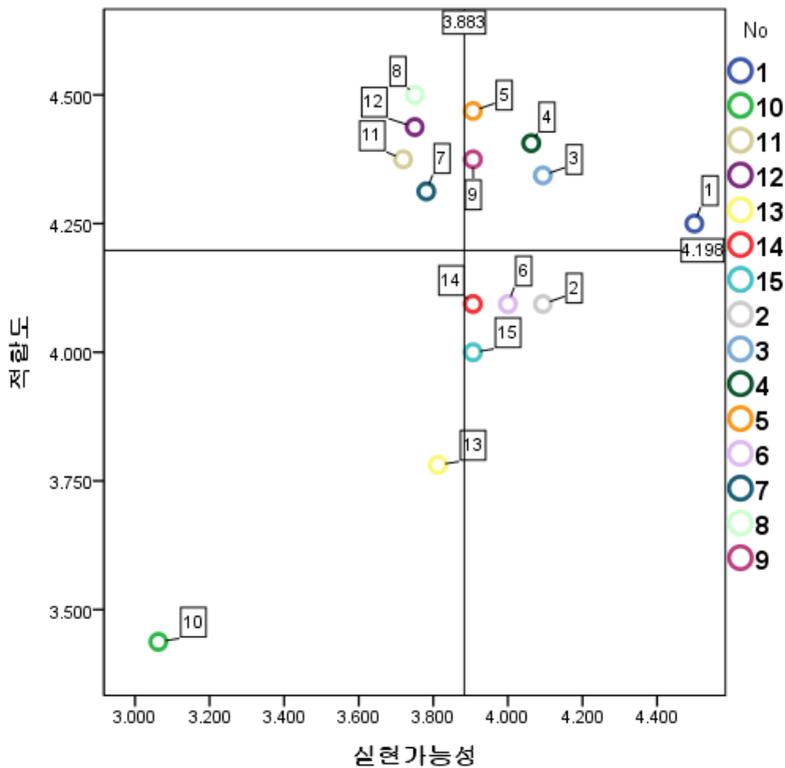
가는 연수, 컨설팅 등 연수의 개별화 및 소규모화 필요)였으며, 이외에 ‘② 수업전문가로서 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확대(홍보 필요)’ ‘③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 명확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및 신뢰성 제고’ ‘④ 수업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다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체계화,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대한 기존 교원 재교육, 자율적 연수, 외부강사 질 관리(교직에 대한 소정 교육 이수))’ 순으로 응답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적합도의 경우, 인식 및 전문성과 업무 및 문화 관련 해결방안들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실현가능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식 및 전문성 영역에서 응답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인식 및 전문성과 업무 및 문화 영역의 해결방안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지만, 실현가능성의 경우, 인식 및 전문성 관련 문항들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의 응답 편차를 살펴보면 적합도 측면에서는 ‘④ 수업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다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체계화,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대한 기존 교원 재교육, 자율적 연수, 외부강사 질 관리(교직에 대한 소정 교육 이수))’에 대한 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응답의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①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모든 교사 연수 참여, 학습공동체,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 등 연수의 개별화 및 소규모화 필요)’의 표준편차가 0.622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해결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이 상대적으로 일관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원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들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교원영역에서의 문화 조성 시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한 그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교원영역에서의 어려움의 해결방안 관련 문항들의 적합도 평균은 4.198, 실현가능성의 경우, 평균 3.883으로 나타났다.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은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5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인식 및 전문성에 관한 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 ‘③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 명확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및 신뢰성 제고’, ‘④ 수업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다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체계화,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대한 기존 교원 재교육, 자율적 연수, 외부강사 질 관리(교직에 대한 소정 교육 이수))’, ‘⑤ 진로설계 전문역량 신장’, ‘⑨ 표준시수제 도입, 교원복무 규정 개정’ 이다. 구체적으로는 ‘③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 이외에 적합도는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은 4개로 ‘② 수업전문가로서 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확대(홍보 필요)’, ‘⑥ 새로운 과목의 수업 자료 개발 보급(교수요목, 학생평가 방법 등 기본 지도안 등, 학습공동체와 연계 지원)’, ‘⑭ 협력적 교

원 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 개발 및 공동체 활동 지원(교원동아리, 신규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간 코칭, 스터디그룹, 공동수업 계획 협의 모임 등), '⑮ 수업나눔 문화 조성(수업개방 및 상호피드백 활성화)'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적합도는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해결방안들의 경우, 실현가능성의 제고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림 IV-4]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해결방안)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

다.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조성

다음으로 진로지도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다음 표이다. 학교 문화 조성 시 진로지도 영역에서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학생, 교사, 학교의 3가지 영역으로 분부하여, 각 영역별로 진로지도 관련 어려움의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영역별로는 학생의 경우, 5가지 문항, 교사의 경우, 4가지 문항, 학교의 경우, 4가지 문항, 총 13개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영역별, 전체 경향성, 중요도-시급도 측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8〉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응답 결과

구분		중요도				시급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학생의 무계획적, 비전략적 과목 선택 우려	3.969	0.933	1	5	3.688	1.091	1	5
	② 고2~3시기에 학생의 진로 계획 변경 시 대입 준비의 불확실성 증대	4.094	0.777	3	5	3.844	0.847	3	5
	③ 고1 이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가중	4.125	0.907	2	5	3.875	1.008	2	5
	④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찾는 '진학 중심 진로 설계' 발생	4.156	0.987	2	5	3.875	0.942	2	5
	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국한된 진로를 설계, 선택해야 하는 제약 발생	4.063	0.759	3	5	3.844	0.920	2	5
교사	⑥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교사 간 역량 차이가 매우 큼	4.406	0.798	2	5	4.156	0.954	2	5
	⑦ 특정교사(고1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에게 진로지도 및 수강신청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4.219	0.792	2	5	4.188	0.821	2	5
	⑧ 진로지도와 관련한 교사 간 역할 구분 갈등(고1 담임교사, 3학년부장,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교과 교사 등)	3.906	0.893	2	5	3.656	1.035	1	5
	⑨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 경험과 역량 부족	4.094	0.777	2	5	3.938	0.982	2	5
학교	⑩ 진로지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교의 교육과정	3.750	1.016	2	5	3.656	1.035	2	5
	⑪ 학생과 교사 간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부족	3.094	0.818	2	5	3.063	0.914	1	5
	⑫ 학교 업무분장 체계(교무, 연구, 학생, 학년, 창체, 방과후 등)와 고교학점제 진로지도 업무 간 불일치	3.906	0.818	2	5	3.781	0.906	2	5
	⑬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이고, 공부에 흥미가 없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3.406	1.160	1	5	3.188	1.176	1	5
사례수		3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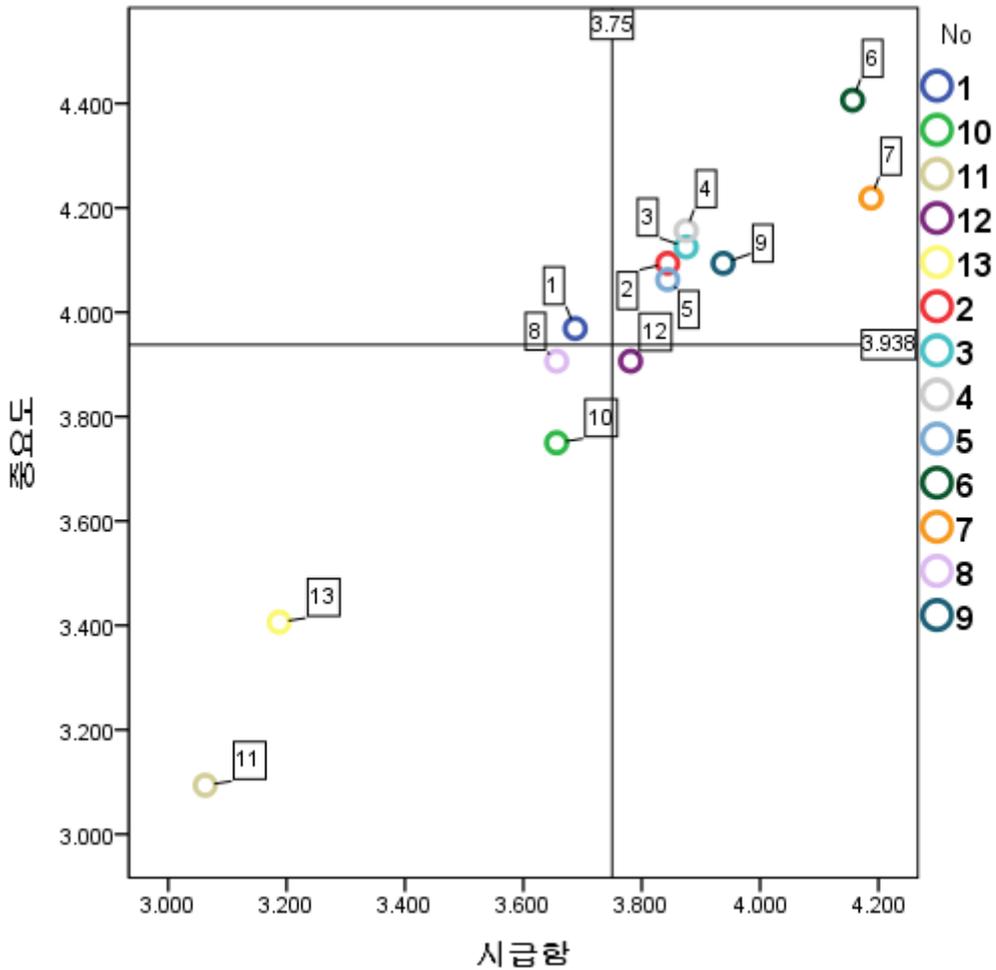
먼저 학생, 교사, 학교의 각 영역별로 학교 문화 조성 시 어려움에 대한 설문 결과, 학생 영역에서는 '④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찾는 '진학 중심 진로 설계' 문항의 중요도가 4.156으로 영역 내에서 가장 높았다. 시급도 또한 3.875로 해당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시급도의 경우, '③ 고1 이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가중'도 3.875로 높은 응답 평균을 보였다. 교사 영역에서는 '⑥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교사 간 역량 차이가 매우 큼'의 중요도가 4.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도의 경우, '⑦ 특정교사(고1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에

게 진로지도 및 수강신청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문항의 응답 평균이 4.188로 가장 높았다. 학교 영역에서는 '⑫ 학교 업무분장 체계(교무, 연구, 학생, 학년, 창체, 방과후 등)와 고교학점제 진로지도 업무 간 불일치' 문항의 중요도가 3.906으로 가장 높았고, 시급도 또한 3.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교사영역의 '⑥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교사 간 역량 차이가 매우 큼'으로 응답 평균이 4.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⑦ 특정교사(고1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에게 진로지도 및 수강신청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④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찾는 '진학 중심 진로 설계' 발생'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급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⑦ 특정교사(고1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에게 진로지도 및 수강신청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⑥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교사 간 역량 차이가 매우 큼', '⑨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 경험과 역량 부족'이 시급한 사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의 편차를 살펴보았을 때, 중요도 측면에서는 학생 영역의 '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교육과정에 국한된 진로를 설계, 선택해야 하는 제약 발생'의 표준편차가 0.759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비교적 전문가들의 응답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급도 측면에서는 교사 영역의 '⑦ 특정교사(고1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에게 진로지도 및 수강신청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문항의 표준 편차가 0.821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의 시급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이 상대적으로 일관됨을 알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해당 문항은 진로지도 영역 전체에서 시급도 응답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임을 미루어 볼 때, 해당 문항의 시급함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원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들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일일이 점검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시급함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교원영역에서의 문화 조성 시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중요도-시급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중요도-시급함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V-5]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조성(예상되는 어려움) 중요도-시급함 분석

중요도-시급함 분석을 실시한 위 그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진로지도 영역에서의 어려움 해결방안 문항들의 중요도 평균은 3.938, 시급함의 경우, 평균 3.750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시급함이 모두 높게 나타난 문항은 ‘⑥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교사 간 역량 차이가 매우 큼’, ‘⑦ 특정교사(고1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에게 진로지도 및 수강신청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⑨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 경험과 역량 부족’ ‘④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찾는 ‘진학 중심 진로 설계’ 발생’, ‘③ 고1 이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가중’, ‘② 고2~3시기에 학생의 진로 계획 변경 시 대입 준비의 불확실성 증대’, ‘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국한된 진로를 설계, 선택해야 하는 제약 발생’으로, 이상 총 7개이다. 이들 7개 문항은 주

로 학생과 교사 영역의 어려움에 관한 문항들로, 특히 학생 영역의 경우, 5가지 문항 중에서 4개 문항이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어려움인 것으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시급함이 높은 문항은 학교 영역의 '⑫ 학교 업무분장 체계(교무, 연구, 학생, 학년, 창체, 방과후 등)와 고교학점제 진로지도 업무 간 불일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지도 영역의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해결방안에 대하여 학생, 교사, 학교, 기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별 문항들은 해결방안으로써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각각 전문가들에게 대해 물었다. 이에 학생 영역은 3개 문항, 교사 영역은 6개 문항, 학교 영역은 7개 문항, 기타 영역 3개 문항으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이에 해당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 응답 분석결과를 영역별, 전체 응답 경향, 적합도-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9〉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해결 방안 응답 결과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학생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로드맵 북(진로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작성 지원	3.938	0.840	2	5	4.000	0.718	2	5
	② 대학의 전공 계열별로 연계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서 작성 및 제공	4.063	0.759	3	5	4.188	0.693	3	5
	③ 진로설계는 학생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안내	3.906	0.893	1	5	3.875	0.707	3	5
교사	④ 진로전담교사의 양성 과정 내실화, 고교학점제 관련 추가 연수 강화	4.031	0.822	2	5	4.094	0.963	1	5
	⑤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구체화 및 명확화	4.156	0.723	3	5	3.969	0.695	3	5
	⑥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	4.281	0.729	2	5	4.125	0.793	2	5
	⑦ 학교 내 진로지도 및 교육과정 상담 겸임 교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3.469	1.016	2	5	3.219	1.039	1	5
	⑧ 교사의 각 교과전문성에 '교과 연계 진로'를 포함시켜 교과 내에서 관련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4.094	0.734	3	5	3.781	0.870	2	5
	⑨ 학생을 타율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보는 인식 변화	4.125	0.833	2	5	3.594	0.837	2	5
학교	⑩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진로집중주간 등) 편성	4.000	0.842	2	5	4.094	0.856	2	5
	⑪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환경 조성 시 상담공간에 대한 고려 강조	3.656	0.827	2	5	3.625	0.793	2	5
	⑫ 진로 전담 부서 외에 교육과정 전담 부서 설치	4.063	0.840	2	5	4.063	0.759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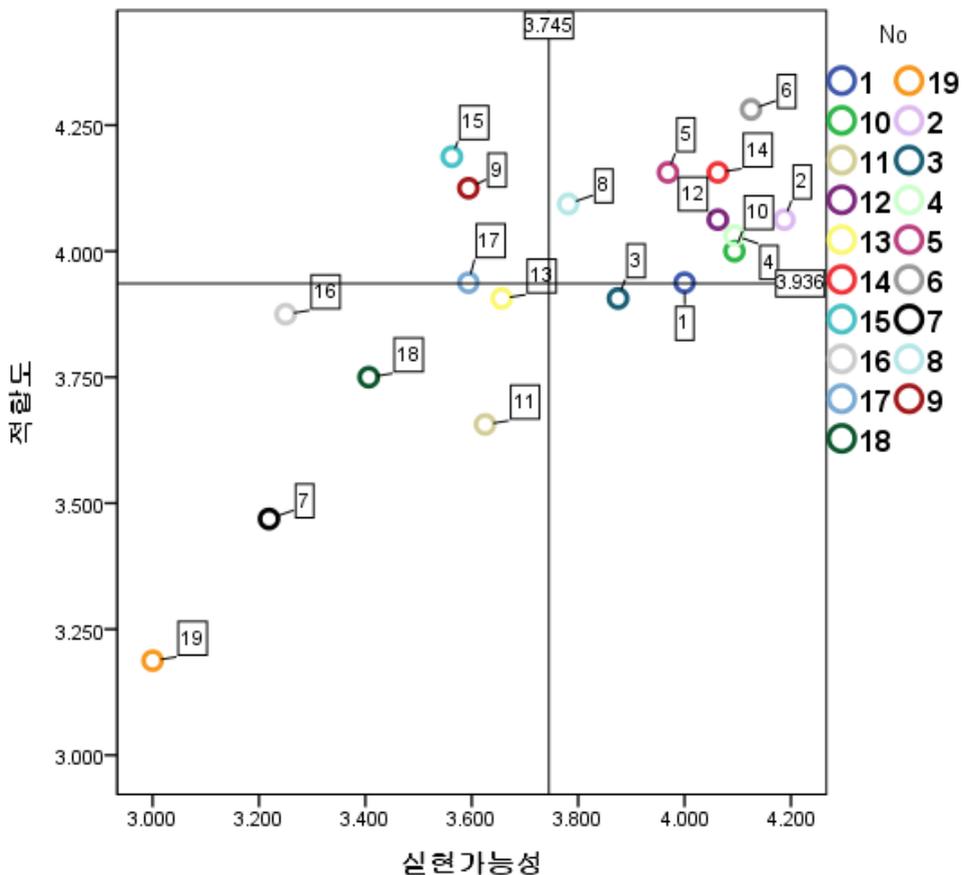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⑬ 학교 업무체계를 진로-교육과정-연구-생활 지도 축으로 재구조화	3.906	0.893	2	5	3.656	0.827	2	5
⑭ 고1 시기에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	4.156	0.808	2	5	4.063	0.759	2	5
⑮ 중학교와 연계된 진로 연계 교육 필요 (자유학기제 이후 진로 프로파일 공유)	4.188	0.693	3	5	3.563	0.948	1	5
⑯ 인근 대학 및 지역 기관(기업)과 연계 체제 강화	3.875	0.833	2	5	3.250	0.916	1	5
기타								
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 활성화, 중 3 시기에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집중학기제 편성	3.938	0.878	2	5	3.594	0.798	2	5
⑱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후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상담이력제 도입	3.750	0.842	2	5	3.406	0.798	2	5
⑲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진로교육 도입	3.188	1.148	1	5	3.000	0.916	1	5
사례수	32				32			

먼저 세부 영역별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을 분석해보면, 학생 영역에서는 ‘② 대학의 전공 계열별로 연계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서 작성 및 제공’의 적합도가 4.0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현 가능성 또한 4.188로 가장 높았다. 교사 영역에서는 ‘⑥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의 해결방안으로써의 적합도가 4.281로 가장 높았으며, 실현가능성 또한 4.12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학교 영역에서는 ‘⑮ 중학교와 연계된 진로 연계 교육 필요(자유학기제 이후 진로 프로파일 공유)’의 적합도가 4.188로 가장 높았으나, 해당 문항의 실현 가능성은 영역 내에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기타 영역에서는 ‘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 활성화, 중3 시기에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 집중학기제 편성’ 문항의 해결방안으로써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 실현가능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 응답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해보면, 적합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교사 영역의 ‘⑥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⑮ 중학교와 연계된 진로 연계 교육 필요(자유학기제 이후 진로 프로파일 공유)’, ‘⑤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구체화 및 명확화’, ‘⑭ 고1 시기에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 순으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학생 영역의 ‘② 대학의 전공 계열별로 연계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서 작성 및 제공’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⑥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 ‘④ 진로전담교사의 양성 과정 내실화, 고교학점제 관련 추가 연수 강화’, ‘⑩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진로집중주간 등) 편성’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적합도 측면에서는 교사와 학교 영역에서의 문항들이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학생과 교사 영역에 순위가 높은 문항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에 대한 편차를 분석해보면, 적합도 측면에서는 ‘⑤ 고교학점제에서 진로 전담교사의 역할 구체화 및 명확화’ 문항의 편차가 0.7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문가 응답의 일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② 대학의 전공 계열별로 연계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서 작성 및 제공’의 표준편차가 0.6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해결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응답경향이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진로지도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들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학교 문화 조성 시 진로지도 영역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V-6] 진로지도영역 학교 문화 조성(해결방안)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한 위 그림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진로지도 영역에서의 해결방안 관련 문항들의 적합도 평균이 3.936, 실현가능성의 경우, 평균 3.745임을 알 수 있다. 전체 문항 중에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문항은 총 8개 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⑥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 ‘⑭ 고1 시기에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 ‘⑤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구체화 및 명확화’, ‘② 대학의 전공 계열 별로 연계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서 작성 및 제공’, ‘⑫ 진로 전담 부서 외에 교육과정 전담 부서 설치’, ‘⑩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진로집중주간 등) 편성’, ‘④ 진로전담교사의 양성 과정 내실화, 고교학점제 관련 추가 연수 강화’, ‘⑧ 교사의 각 교과전문성에 ‘교과 연계 진로’를 포함시켜 교과 내에서 관련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이다. 이와 같이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먼저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덧붙여 적합도는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해결방안, 예컨대 ‘⑨ 학생을 타율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보는 인식 변화’, ‘⑮ 중학교와 연계된 진로 연계 교육 필요(자유학기제 이후 진로 프로파일 공유)’와 같은 해결 방안들의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에 있어 어려움 해결방안을 묻은 설문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는 이어지는 표와 같다. 해결방안에 대해 학생, 교사, 교사-학생 관계, 학교, 기타의 총 5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학교 문화 조성 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을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요도와 시급도를 각각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영역의 경우, 7개 문항, 교사 영역의 경우, 7개 문항, 교사-학생 관계 영역의 경우, 3개 문항, 학교 영역의 경우, 4개 문항,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23개 설문 문항을 통한 전문가 응답 분석결과를 영역별, 전체 경향성, 적합도-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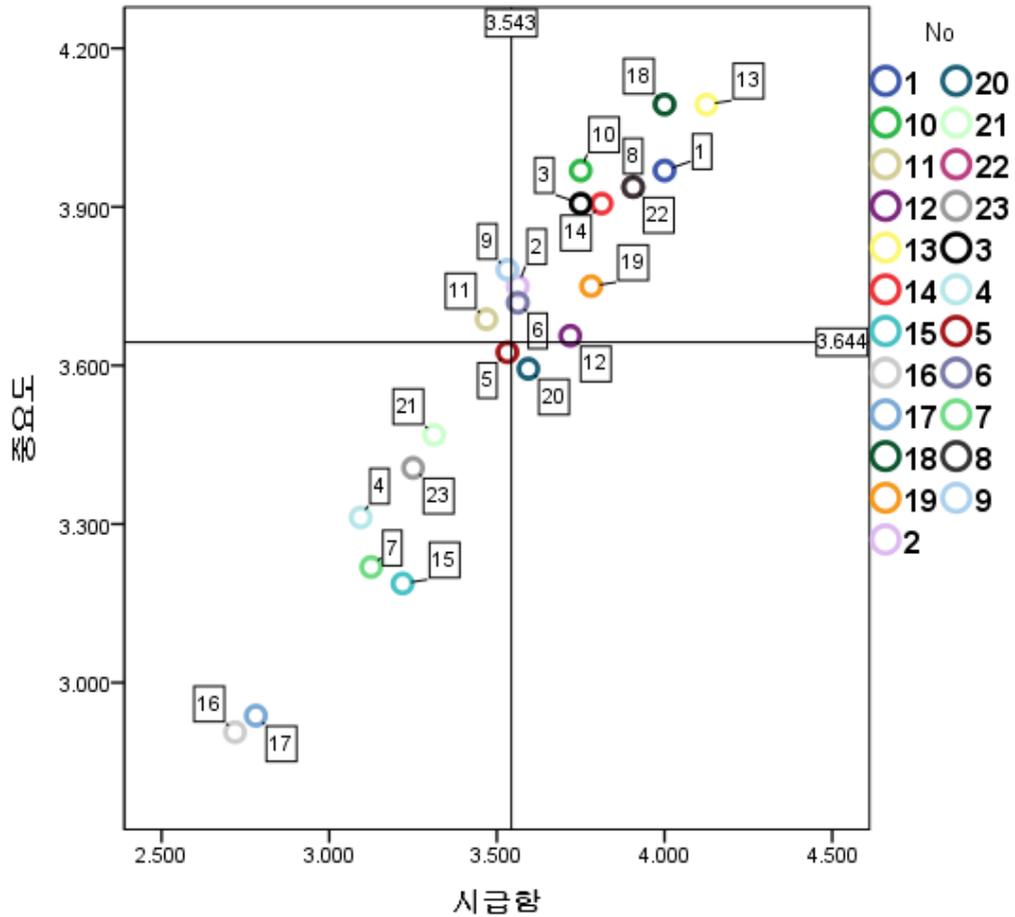
〈표 IV-10〉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응답 결과

구분	중요도				시급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책무성, 윤리성 부족	3.969	0.822	2	5	4.000	0.916	2	5
	② 과도한 학생 선택의 부작용	3.750	1.016	2	5	3.563	1.105	2	5
	③ 학생의 과목 선택, 과목 수강에서 책임감 및 주관 부족(학생이 적성과 흥미가 아닌 성적 혹은 친한 친구와 함께 수강 등의 이유로 과목을 선택할 위험)	3.906	0.856	2	5	3.750	0.984	2	5
	④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실에 가서 수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3.313	0.859	2	5	3.094	0.893	1	5
	⑤ 공강 시간의 적절한 활용의 어려움	3.625	0.793	2	5	3.531	0.803	1	5
	⑥ 학생 자치를 실행하는 문화의 부족	3.719	0.851	2	5	3.563	0.840	2	5
	⑦ 더 이상 학급에 소속되지 않음으로 인한 소속감 문제	3.219	0.941	2	5	3.125	0.976	2	5
교사	⑧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감 증가	3.938	0.914	2	5	3.906	0.963	2	5
	⑨ 교사의 역할 변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및 피로	3.781	0.870	2	5	3.531	0.803	2	5
	⑩ 학생 지도의 전문성 및 일관성 필요	3.969	0.861	2	5	3.750	0.950	2	5
	⑪ 학생의 권리 강조에 따른 교원의 심리적 부담감	3.688	0.998	2	5	3.469	1.016	2	5
	⑫ 학부모의 책임 전가 및 민원제기에 따른 고통	3.656	1.066	2	5	3.719	0.991	2	5
	⑬ 다과목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	4.094	0.818	2	5	4.125	0.871	2	5
	⑭ 학급관리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3.906	0.818	2	5	3.813	0.931	2	5
교사 - 학생 관계	⑮ 교사-학생 간의 관계 변화로 인한 혼동 및 갈등 초래	3.188	1.148	1	5	3.219	1.070	1	5
	⑯ 담임교사의 역할 약화로 인해 학생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2.906	1.088	1	5	2.719	1.023	1	5
	⑰ 교사-학생들 간의 갈등 증가 가능성	2.938	1.014	1	5	2.781	0.941	1	5
학교	⑰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4.094	1.058	1	5	4.000	1.047	1	5
	⑱ 소모적인 이벤트성 활동의 증대로 인한 교육과정 부실	3.750	1.191	1	5	3.781	1.263	1	5
	⑳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도출의 곤란	3.594	0.712	2	5	3.594	0.665	3	5
	㉑ 학교 시설 관리에 따른 어려움	3.469	0.915	2	5	3.313	0.896	2	5
기타	㉒ 학교 간 교육과정 공유에 따른 순회 교사의 불만 확대	3.938	1.045	1	5	3.906	0.963	2	5
	㉓ 학생 자치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의 미비에 따른 어려움	3.406	1.012	1	5	3.250	0.842	1	5
사례수		32				32			

먼저 각각의 세부 영역별로 학교 문화 조성 시 학교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영역에서는 ‘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책무성, 윤리성 부족’ 문항의 중요도가 3.969로 가장 높았으며, 시급도 또한 4.000의 응답 평균을 보여 학생 영역 내에서 가장 높았다. 교사 영역에서는 ‘⑬ 다과목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의 중요도가 4.094로 가장 높았고, 시급도의 경우도 4.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학생 관계 영역에는 ‘⑮ 교사-학생 간의 관계 변화로 인한 혼동 및 갈등 초래’ 문항의 응답 평균이 3.188로 높았으며, 시급도 또한 영역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영역에서는 ‘⑱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해당 영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학교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의 경우,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항들의 시급도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 고교학점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영역에서 관련 어려움들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영역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설문지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중요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교사영역의 ‘⑬ 다과목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과 ‘⑱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로 각각의 응답 평균이 4.09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에는 ‘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책무성, 윤리성 부족’, ‘⑩ 학생 지도의 전문성 및 일관성 필요’, ‘⑧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감 증가’, ‘③ 학생의 과목 선택, 과목 수강에서 책임감 및 주관 부족(학생이 적성과 흥미가 아닌 성적 혹은 친한 친구와 함께 수강 등의 이유로 과목을 선택할 위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급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교사 영역의 ‘⑬ 다과목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책무성, 윤리성 부족’, ‘⑱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순으로 사안의 시급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응답의 편차를 분석해보면, 중요도 측면에서는 학교 영역에서 ‘⑳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도출의 곤란’의 편차가 0.712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비교적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성이 일관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시급도 측면을 살펴보면, 동일 문항의 편차가 0.665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의 시급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이 일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7]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예상되는 어려움) 중요도-시급함 분석

앞서 논의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방안들의 중요도와 시급함을 각각 점검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시급함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 후에 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요도-시급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위의 그림과 같다.

중요도-시급함 분석을 실시한 그림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학교생활 영역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방안 문항의 중요도 평균은 3.644, 시급함은 평균 3.543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시급함이 모두 높게 나타나 우선적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문항(경계선에 위치한 문항은 우선 제외하였음)은 ‘⑬ 다과목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 ‘⑱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책무성, 윤리성 부족’ ‘⑧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감 증가’, ‘⑩ 학생 지도의 전문성 및

일관성 필요’, ‘⑫ 학교 간 교육과정 공유에 따른 순회 교사의 불만 확대’, ‘⑬ 학생의 과목 선택, 과목 수강에서 책임감 및 주관 부족(학생이 적성과 흥미가 아닌 성적 혹은 친한 친구와 함께 수강 등의 이유로 과목을 선택할 위험)’, ‘⑭ 학급관리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⑮ 소모적인 이벤트성 활동의 증대로 인한 교육과정 부실’ 이상 총 9개이다. 다음으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시급함이 높은 문항으로는 학교 영역의 ‘⑳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도출의 곤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영역의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전문가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설문 문항의 경우, 해결방안에 대하여 학생, 교사, 학교, 기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각각 물었다. 이에 학생 영역은 8개 문항, 교사 영역은 7개 문항, 학교 영역은 16개 문항, 기타 영역 8개 문항으로 학교생활 영역 설문이 구성되었다. 학교생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응답 분석결과를 영역별, 전체 응답 경향, 적합도-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11〉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해결 방안 응답 결과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생활지도 관련 규칙을 정할 때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	3.938	0.878	2	5	4.125	0.707	3	5
	② 공강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4.031	0.861	1	5	3.844	0.808	1	5
	③ 학생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예산 배정, 학생-학부모-교원간의 대화 활성화)	3.875	0.751	2	5	3.719	0.851	2	5
	④ 학생 자치 활동이 일과 시간 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3.531	0.879	2	5	3.406	0.712	2	5
	⑤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재정적 지원	3.781	0.751	2	5	3.844	0.515	3	5
	⑥ 존중 및 배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 강화	3.594	0.875	1	5	3.594	0.837	1	5
	⑦ 학생 간 교육과정 멘토-멘티제 도입	3.688	0.738	3	5	3.750	0.622	3	5
	⑧ 적절한 과목 선택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짐	4.281	0.634	3	5	4.000	0.672	3	5
교사	⑨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다양한 훈육 방식 활용	3.688	0.859	2	5	3.438	0.759	2	5
	⑩ 생활지도 관련 규칙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3.906	0.734	3	5	3.781	0.706	2	5
	⑪ 소그룹 단위로 모든 교사를 담임화하여 상시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교사의 생활 지도 활성화)	3.969	0.782	2	5	3.344	0.937	1	5
	⑫ 담임교사와의 홀름 시간을 학생의 자기성찰,	4.031	0.740	3	5	3.750	0.718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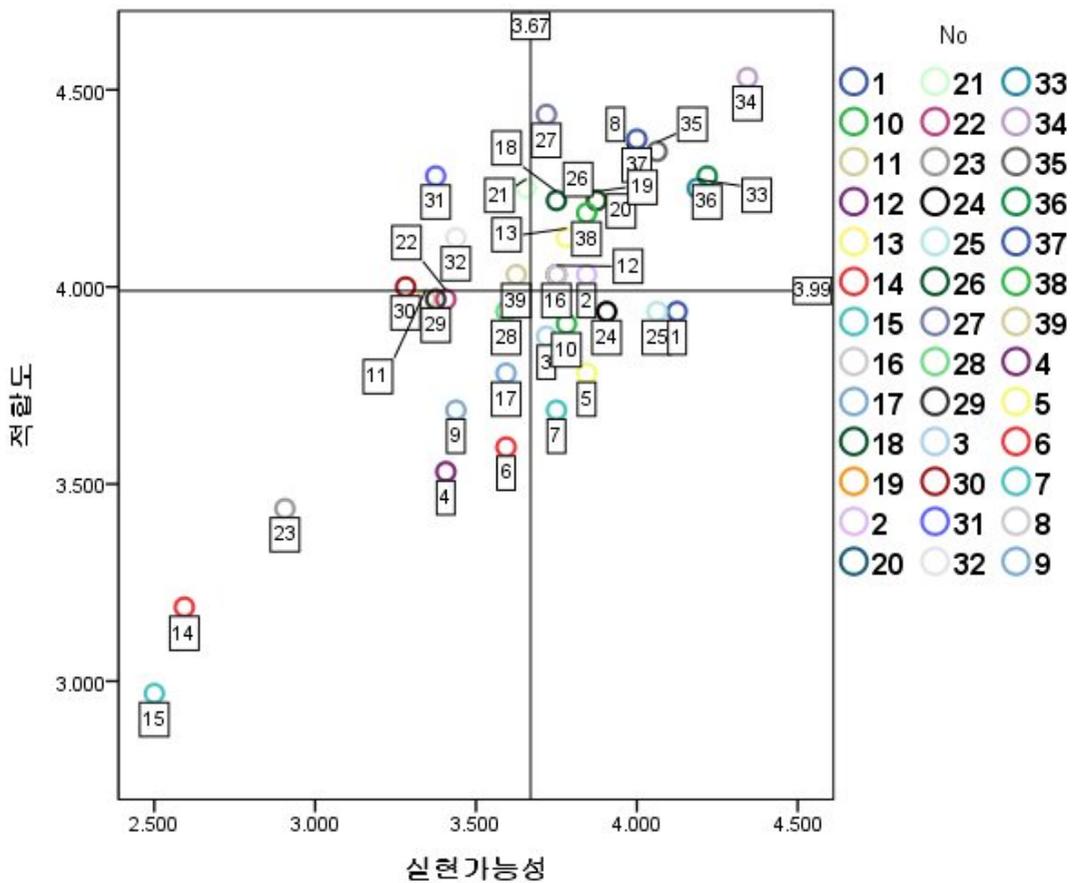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자율역량 함양,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									
	⑬ 각 교과 수업에서 활동 중심 수업, 학생 참여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이에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4.125	0.554	3	5	3.781	0.659	3	5	
	⑭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면제해 주는 방안	3.188	1.230	1	5	2.594	0.837	1	4	
	⑮ 3년 담임교사제 실시	2.969	0.782	1	4	2.500	0.984	1	5	
학교	⑯ 교육과정 편성 시 학부모와 학생 의견(진로)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031	0.695	3	5	3.750	0.762	2	5	
	⑰ 수강 신청 변경 규정 및 학기 중 변경 금지 규정 제정	3.781	1.008	2	5	3.594	1.073	1	5	
	⑱ 주기적으로 학생의 개별적인 교과목 선택 점검 및 컨설팅	4.219	0.706	3	5	3.750	0.672	3	5	
	⑲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 강화	4.219	0.792	2	5	3.875	0.751	2	5	
	⑳ 학생이 자신의 과목 선택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4.281	0.634	3	5	4.000	0.762	2	5	
	㉑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체제 개선	4.250	0.718	2	5	3.656	0.787	2	5	
	㉒ 과목 이수 슈퍼바이저를 고용하여 학생 지도(과목 선택, 공강 시간 활용 등)	3.969	0.822	2	5	3.406	0.798	2	5	
	㉓ 담임교사제를 폐지하고, 교과교사와 생활지도전담 교사제 도입	3.438	1.162	1	5	2.906	1.058	1	5	
	㉔ 학부모 연수	3.938	0.716	2	5	3.906	0.928	1	5	
	㉕ 입학 초기 신입생 워크숍을 통해 교원, 학교를 아우르는 학교 공동체의 덕목과 실천사항 제시	3.938	0.878	2	5	4.063	0.759	3	5	
	㉖ 행사성 활동보다는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배움을 강조	4.219	0.659	3	5	3.875	0.751	2	5	
	㉗ 학교장의 전문성 제고 및 확고한 리더십 확보	4.438	0.669	3	5	3.719	0.813	1	5	
	㉘ 학교 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임	3.938	0.759	3	5	3.594	0.837	2	5	
	㉙ 대학교와 같은 생활지도 방안 도입(학생 개인의 책임 기반, 출결 단순화 등)	3.969	0.999	1	5	3.375	0.871	2	5	
	㉚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형성	4.000	0.672	3	5	3.281	0.772	1	5	
	㉛ 학점제에 적합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혁신	4.281	0.683	3	5	3.375	0.833	2	5	
	기타	㉜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협력학교 간 학사 일정 통일	4.125	0.976	2	5	3.438	1.216	1	5
		㉝ 교육과정 운영부 등 운영 조직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250	0.718	3	5	4.188	0.693	3	5
		㉞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	4.531	0.507	4	5	4.344	0.545	3	5

구분	적합도				실현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㉕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 문제 발생 시 학교나 교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	4.344	0.745	3	5	4.063	0.716	2	5
㉖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홍보	4.281	0.523	3	5	4.219	0.608	3	5
㉗ 다교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4.375	0.833	2	5	4.000	0.672	3	5
㉘ 순회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4.188	0.821	2	5	3.844	0.677	2	5
㉙ 학교 간 교류, 학교-지역 간 교류 활성화	4.031	0.740	2	5	3.625	0.793	1	5
사례수	32				32			

우선 세부 영역별로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성을 살펴보면, 학생 영역에서는 적합도 측면에서 ‘⑧ 적절한 과목 선택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① 생활지도 관련 규칙을 정할 때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게 나타났다. 교사 영역에서는 ‘⑬ 각 교과 수업에서 활동 중심 수업, 학생 참여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이에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문항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급도의 경우, 응답 평균이 3.781로 나타났는데, ‘⑩ 생활지도 관련 규칙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문항과 동일하였다. 학교 영역에서는 ‘㉗ 학교장의 전문성 제고 및 확고한 리더십 확보’ 문항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급함의 경우, ‘㉕ 입학 초기 신입생 워크숍을 통해 교원, 학교를 아우르는 학교 공동체의 덕목과 실천사항 제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응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영역에서는 ‘㉘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 문항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전체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보면, 적합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기타 영역의 ‘㉘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은 문항으로는 ‘㉗ 학교장의 전문성 제고 및 확고한 리더십 확보’, ‘㉙ 다교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㉕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 문제 발생 시 학교나 교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 순이었다. 주로 기타 영역의 문항들이 적합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앞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기타 영역의 ‘㉘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㉖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홍보’, ‘㉚ 교육과정 운영부 등 운영 조직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순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적합도 측면에서는 순위가 높게 나타난 기타 영역의 문항들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 응답 경향의 편차를 분석해보면, 적합도 측면에서 ‘㉔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 문항의 편차가 0.507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문항에 비해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게 응답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㉕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재정적 지원’ 문항의 표준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㉔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 문항의 편차도 0.545로 낮게 나타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해당문항의 경우, 적합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는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8]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해결방안)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

앞선 분석결과를 통해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들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각각 검토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학교 문화 조성 시 학교생활 영역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

의하고자,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결과는 위의 그림이다.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한 그림을 살펴보았을 때,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시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해결방안 관련 문항들의 적합도 평균은 3.990, 실현가능성 평균은 3.675로 나타났다. 해결방안과 관련한 전체 문항 중에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문항은 총 13개 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34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 ‘35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 문제 발생 시 학교나 교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 ‘36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홍보’, ‘37 다교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33 교육과정 운영부 등 운영 조직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8 적절한 과목 선택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짐’, ‘20 학생이 자신의 과목 선택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38 순회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6 행사성 활동보다는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배움을 강조’, ‘27 학교장의 전문성 제고 및 확고한 리더십 확보’, ‘16 교육과정 편성 시 학부모와 학생 의견(진로)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공강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13 각 교과 수업에서 활동 중심 수업, 학생 참여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이에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이다. 이상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으로써 구체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적합도는 높은 수준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31 학점제에 적합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혁신’, ‘32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협력학교 간 학사 일정 통일’, ‘39 학교 간 교류, 학교-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같은 해결 방안들은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수반된다면,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확산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라.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 상에 대해 학생, 교사, 교사-학생 관계, 학교 각 세부 영역별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세부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13개 문항, 교사의 경우, 4개 문항, 교사-학생 관계에서는 1개 문항, 학교 영역에서는 12개 문항,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전문가들에게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전문가들에게 해당 설문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12〉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구분		적절성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학생	① 인격 존중	3.938	0.759	3	5
	② 성장	4.344	0.701	3	5
	③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	4.656	0.483	4	5
	④ 삶의 질	3.906	0.734	3	5
	⑤ 조화로운 행복한 삶	3.875	0.793	2	5
	⑥ 주체적인 삶(주체적인 인간)	4.531	0.567	3	5
	⑦ 자신의 배움과 삶	4.406	0.665	3	5
	⑧ 자신의 역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힘	4.469	0.567	3	5
	⑨ 미래 역량	4.281	0.581	3	5
	⑩ 취업에서 벗어난 대학 1~2학년 중심의 캠퍼스 같은 모습	3.094	0.963	1	5
	⑪ 자유로움	3.344	0.827	2	5
	⑫ 학생 개인 맞춤	4.063	0.669	2	5
	교사	⑬ 학생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적 시민	4.469	0.718	3
⑭ 학생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 노력하는 교사		4.406	0.615	3	5
⑮ 보람 있게 가르치는 수업		4.125	0.751	3	5
⑯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습공동체		4.375	0.707	3	5
교사-학생 관계	⑰ 교사들의 노력이 생동감 있는 활동들로 채워지는 학교	4.188	0.859	2	5
	⑱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습공동체	4.250	0.842	2	5
학교	⑲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	4.375	0.660	3	5
	⑳ 학생의 주체적 배움과 삶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4.625	0.492	4	5
	㉑ 학생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4.531	0.567	3	5
	㉒ 학생이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적 시민 양성 기관	4.469	0.621	3	5
	㉓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 환경 제공	4.375	0.609	3	5
	㉔ 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4.500	0.718	2	5
	㉕ 학교의 형태: 종합고등학교 형태,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율형 종합학교	3.844	1.167	1	5
	㉖ 신뢰와 배움이 있는 교학상장의 배움터	4.125	0.833	3	5
	㉗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학교	3.969	0.822	3	5
	㉘ 경쟁이 아닌 협력의 학교 문화	4.125	0.660	3	5
	㉙ 연대와 협력으로 학생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	4.125	0.707	3	5
㉚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	4.188	0.738	3	5	
사례수		32			

우선 세부 영역별로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학생 영역에서는 적절성 측면에서 ‘③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 영역에서는 ‘⑭ 학생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 노력하는 교사’ 문항이 가장 적절성이 높았다. 학교 영역에서는 ‘㉒ 학생의 주체적 배움과 삶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전체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보면, 적절성이 가장 높은 문항은 학생 영역의 '③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적절성이 높다고 응답한 문항은 '㉑ 학생의 주체적 배움과 삶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⑥ 주체적인 삶(주체적인 인간)', '㉑ 학생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⑧ 자신의 역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힘', '⑬ 학생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적 시민', '㉒ 학생이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적 시민 양성 기관' 순이었다.

한편, 전문가 응답 경향의 편차를 분석해보면, 적절성 측면에서 '⑥ 주체적인 삶(주체적인 인간)' 문항과 '㉑ 학생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의 편차가 0.567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여타 문항들에 비해 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성이 비교적 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비전 수립과 더불어 교육 현장의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학사 영역, 교사 영역, 진로지도 영역, 학교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화된 지표를 통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영역별 실천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등학교 교육제도 및 미래교육 관련 전문가, 고교학점제 관련 전문가 32명을 전문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문화 조성 시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중요도와 시급함에 대한 의견과, 예상되는 어려움의 해결방안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세부 영역별로 예상되는 어려움의 중요도와 시급함, 그리고 해결방안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예상되는 어려움에서는 중요도와 시급함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중요도-시급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어려움의 해결방안에 대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각 문항별로 적합도-실현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어려움, 그리고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해결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요약 및 제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사 영역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도가 급한 어려움은 '현 대입제도 유지 시 고교학점제 안착 어려움'이었다. 또한 해결방안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는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나타난 현 대입제도 유지의 경우, 향후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어려움

과 해결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외에 중요도는 높으나, 시급함은 낮은 수준인 '재이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도 미비 가능성'과 같은 어려움, 그리고 해결방안으로써 적합도는 높지만 실현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공강 시간 활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공강 시간을 위한 학교 내 다양한 시설 구축'과 같은 사안들도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어려움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시 교원 영역에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리라 예상되는 어려움은 학생 영역에서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적절한 연수의 부족, 수업전문성 제고 기회 부족 및 다과목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순회교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방안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는 인식 및 전문성 분야의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 '③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 명확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및 신뢰성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 영역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 그리고 정책의 명확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및 신뢰도 증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해결방안임을 시사한다. 이 밖에 교원 영역에서는 적합도는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결방안들, 특히 업무 및 문화 측면에서 '다과목 수업, 다수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처우 방안 마련(보수체계 개선, 학습연구년제 등)',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 업무 분장'의 경우, 실현가능성 제고에 대한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 진로지도 영역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도가 급한 어려움은 교사 영역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교사 간 역량 차이가 매우 큼'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방안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방안들로는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 '고1 시기에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구체화 및 명확화'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보다 진로전담교사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체계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구체화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연수 등이 해결 방안으로써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외에 중요도가 높고 시급함이 높은 학교 영역의 '학교 업무분장 체계(교무, 연구, 학생, 학년, 창체, 방과후 등)와 고교학점제 진로지도 업무 간 불일치' 같은 어려움, 그리고 해결방안으로써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안들도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해결방안 중에서 적합도는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와 방안들의 실현가능성이 제고 될 때, 진로전담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네 번째,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시 학교생활 영역에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예상되는 주요 어려움은 교사 영역의 ‘다과목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과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방안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는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 문제 발생 시 학교나 교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이 있었다. 향후 학교생활 영역에서 예상되는 중요하고 시급한 어려움은 교사 영역이지만, 적합도가 높으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은 주로 기타 영역의 해결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교사 영역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의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고 실현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응답한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체 등에 대한 재정비’ 문항의 경우, 응답의 편차도 0.545로 낮게 나타나, 전문가들의 응답 경향이 가장 일관성 있었다. 이는 여러 해결방안 중에서도 해당 해결방안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므로, 해당 해결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학교 상으로 가장 적절성이 높은 상은 학생 영역에서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상이었다. 이는 결국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자기주도적인 학생 상이며, 특히 진로 측면에서 자기주도적인 개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은 교사 영역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나타난 ‘학생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 노력하는 교사’의 상, 그리고 학교 영역에서 적절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학생의 주체적 배움과 삶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와 잘 맞닿아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시, 학교, 교사, 학생별 이상적인 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 도입을 위한 노력과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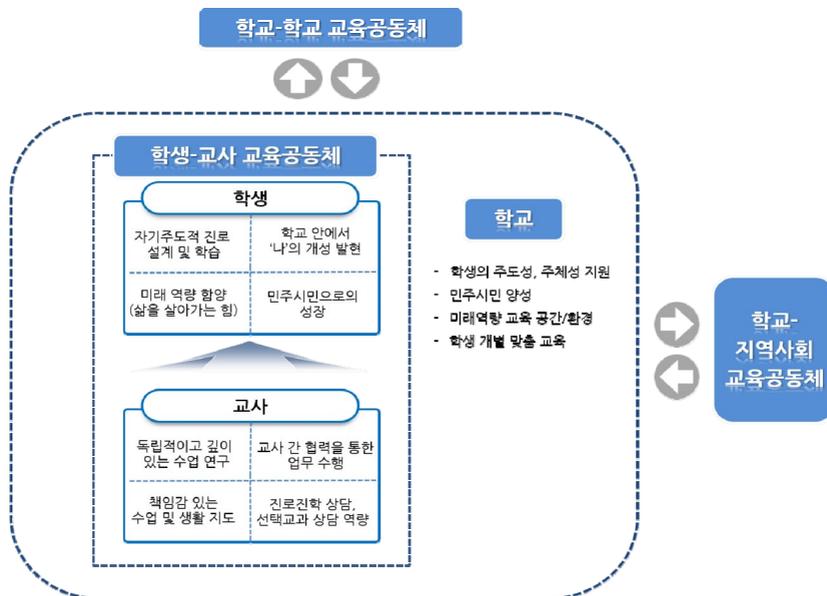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1.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2.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V.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1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고등학교는 현재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에 관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해주었다.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의 전체적인 응답 경향성을 살펴보면, 적절성이 높은 문항은 학생 영역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과 ‘주체적인 삶(주체적인 인간)’이었다. 교사 영역에서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 노력하는 교사’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습공동체’가 높은 응답 점수를 보여주었다. 학교 영역에서는 ‘학생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학생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등이 적절성 응답이 높았다. 문헌 분석과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미래 고등학교의 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V-1]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하며, 학교 안에서, 특히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나'라는 개성을 발현해나간다. 학생은 지식 학습을 넘어 미래 역량을 함양해나갈 수 있으며, 여기서 미래 역량이란 학생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학생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사는 독립적이고 깊이 있는 수업 연구를 통해 '연구하는 교사', '수업전문가로서의 교사'가 된다. 또한 학교 운영 및 학생 지도 등은 교사 간 협력을 통해 수행하며, 학생의 수업 및 생활 지도에 책임감을 갖는다. 특히 진로와 진학, 선택과목 상담 등에 대한 전문 교사는 존재하지만 모든 교사들이 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학생과 교사는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육공동체를 이루어야하며, 학교는 학생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지원하는 기관, 민주시민 양성 기관, 미래역량 교육 공간/환경, 학생 개별 맞춤 교육 기관 등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학교는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인근 학교와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와도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기업, 기관, 대학 등과도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가. '학사'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 학생 중심의 탄력적 학사 운영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교육부가 제시한 학사제도 운영 체계는 ①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 ② 학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강 과목 선택 ③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및 학년 구분 없이 자유로운 과목 수강 ④ 과정 중심 교사별 평가 및 성취평가제 적용 ⑤ 이수 및 미이수 적용 ⑥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 시 학점 취득 ⑦ 학점 기준의 졸업요건 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7:4).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형 학사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과목 개설 및 선택, 둘째, 성취 기준 도달 시 학점 취득, 셋째, 졸업 학점 도달 시 졸업 등이다.

학사영역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있는 것은 학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기존 학사제도에서는 학교 및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학교가 제시한 교과목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제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학교조직 측면에서 현재의 대입제도가 유지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체가 안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중요도 평균 4.406, 시급도 평균 4.344)가 발생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급격하게 강조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현실적인 인프라 제약으로 개설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중요도 평균 4.344, 시급도 평균 4.219),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및 소수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울 것(중요도 평균 4.344, 시급도 평균 4.219)이란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과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교원, 학부모,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42.3%가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28.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수업 및 평가 등 학사제도의 변화에 따른 문화 조성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학사 운영에 관련된 주요 단어는 수강 신청, 공동교육과정,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수업 출석 및 평가, 공강시간 활용, 이수 및 미이수, 졸업 학점 및 수업 연한, 조기졸업 및 졸업 유예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학사 운영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적합도 평균 4.438, 실현가능성 평균 4.281), 교과목에 대한 안내서 개발 및 제공(적합도 평균 4.313, 실현가능성 평균 4.375), 개인맞춤형 학생지도 방안 마련(적합도 평균 4.250, 실현가능성 평균 3.9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중심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학교 차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으로 조정·지원함). 공동교육과정,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로 무엇인가 못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제도는 꼭 해야 할 사항만 규정하고, 그 이외 학사 운영은 학교 및 학생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과목에 대한 이수 및 미이수 조건과 졸업 조건 등은 제도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은희(2019)는 과목의 학점 취득을 위해서 출석률(수업횟수의 3분의 2이상)과 과목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여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조기졸업 제도는 현행 유지하고 졸업유예 제도를 신설하며, 현행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204단위)보다 졸업 학점은 적게 설정하자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광우 외(2018)는 졸업 이수 단위를 180학점 또는

192학점 수준으로 축소하고 1학점을 15회 또는 16회의 수업량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이수 및 미이수 조건과 졸업과 관련한 학사제도는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그 이외에 학교 밖 학습경험 및 공동교육과정 수강, 새로운 교과목 개설, 평가, 재이수 과목 개설 등의 학사 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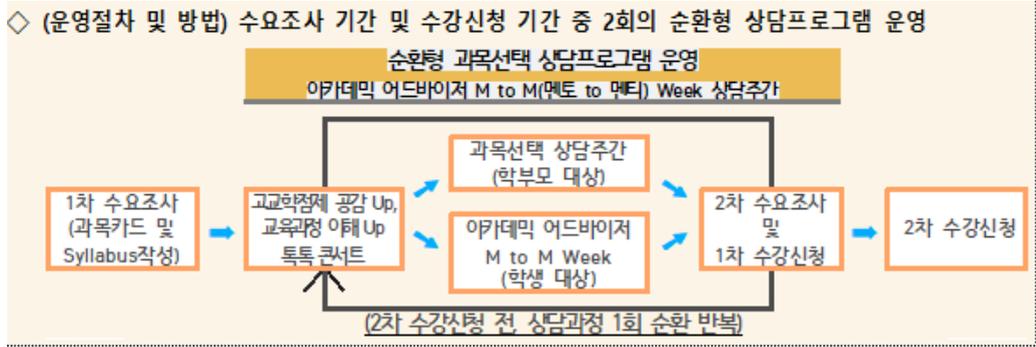
둘째, 학생 개인별 학습포탈을 개발해야 한다.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강신청 도구가 아니라 학교 개설 과목 안내, 상담 이력 조회, 학생 시간표 작성·수정, 수강과목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포탈로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개설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 안내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 개별 시간표가 출력되며, 학생이 그동안 수강한 과목의 평가 결과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나이스와 연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생이 진로·진학 계획에 따라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좋은지, 학년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학생이 진로·진학 계획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 개별 시간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개별맞춤형 지도를 해야 한다. 개인맞춤형 지도를 위해서는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을 강화하고, 선택 과목에서 최소성취기준을 도달하도록 개별적인 책임지도를 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조사, 선택과목 상담, 실제 선택과목 결정 과정에 대한 모델 구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및 발표된 사례들은 선택과목의 수요조사, 선택과목 상담, 선택과목 결정 등 각각에 대한 연구 및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에서 고1 동안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편성, 상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 상황 하에서 유연하게 고1의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 운영 사례3)

〈D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학년당 9학급 규모의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임.
-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강신청 기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임
-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 선택과목 안내 → 1차수요조사 → 교육과정위원회 협의(1)→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주간 운영(1회차) → 2차수요조사 → 교육과정 위원회 협의 (2) → 1차 수강신청 →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주간 운영(2회차) → 2차 수강신청 → 교육과정위원회 협의 (3) → 차년도운영시뮬레이션 → 1차수강변경기간 → 학반편성 및 교과교실, 시간표배정 → 2차수강변경기간 → 학반 편성 및 교과교실, 시간표배정 확정



해외 운영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주>4)

- 온타리오주 내 졸업 요건에 대해 최소 요건만을 제안(필수학점 18학점+선택학점 12학점 +40시간의 커뮤니티 참여활동+ 온타리오주 문해능력 시험(필수, 10학년 4월에 실시)하고, 그 외 학사 운영과 과목 개설, 학교 밖 학습경험과 공동교육과정 수강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주고 있음

가. 졸업 필요 학점 : 최소 30학점
필수 18학점 + 선택 12학점
* 1학점 : 110시간

나. 사회 봉사활동 : 40 시간

18 compulsory credits	
Students must earn the following compulsory credits to obtain the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4	credits in English (1 credit per grade)*
3	credits in mathematics (1 credit in Grade 11 or 12)
2	credits in science
1	credit in Canadian history
1	credit in Canadian geography
1	credit in the arts
1	credit in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1	credit in French as a second language
0.5	credit in career studies
0.5	credit in civics
In addition, students must complete:	
✓	12 optional credits†
✓	40 hours of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	the provincial literacy requirement
Plus one credit from each of the following groups:	
1	Group 1: • English or French as a second language** • a Native language • a classical or international language •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 Canadian and world studies •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 cooperative education***
1	Group 2: •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 the arts • business studies • French as a second language** • cooperative education***
1	Group 3: • science (Grade 11 or 12) • technological education • French as a second language** • computer studies • cooperative education***

[그림 V-2] 온타리오주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

출처: 온타리오주 교육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편집함

(<https://www.tdsb.on.ca/High-School/GradesExamsDiplomas/Getting-your-Diploma>)

3) 한국교육개발원(2019)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4) 한국교육개발원(2020b)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②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학사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그들의 선택만을 강조할 경우 교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서 학생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수강하기로 선택한 과목에서 기준이 되는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재이수를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한편, 교사들은 과목 개설의 자율권도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고 그 과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교사들의 과목 개설의 자율에 대한 책임은 학생의 선택여부에 달려 있다.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맞지 않고, 학생의 수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학생의 선택에서 소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교사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한편으로 책임성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학생 측면에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목 선택에 어려움(중요도 평균 4.219, 시급도 평균 4.031)이 있을 것이며, 개인 시간표 작성 및 공강 시간의 활용에 대한 어려움(중요도 평균 3.938, 시급도 평균 3.750)이 있고, 미이수 과목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중요도 평균 3.688, 시급도 평균 3.438)가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현실에서는 진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율을 부여하면 개인별 시간표를 작성하게 되고, 시간표에 따라 공강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율을 활용하는 것에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교원 측면에서 교사 간 수업 시수 불균형(중요도 평균 4.344, 시급도 평균 4.281)과 특정 과목 쏠림 문제(중요도 평균 4.344, 시급도 평균 4.219)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맡던 수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깊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기존의 학사 제도에서는 출석일수의 3분의2만 등교하면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한 과목의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생이 일정부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의 자율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조기졸업과 재이수 및 졸업유예 개념과 관련이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등교하여 출석일수만 충족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체제가 아니라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수강해야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학교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진숙 외(2018: 121)의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이 유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미도달자가 유급되는 사례는 드물며 유급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특별 과제나 보충 수업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유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재이수 및 유급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에 책임감을 인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광우 외(2018: 185)에서는 재이수제가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한 교과목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의 누적 성적 기록을 확인·통보하는 성적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이명애 외, 2018). 학생의 누적 성적 기록은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며, 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누적 성적 기록에 따라 재이수 과목 선택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며, 어느 과목을 이수했는지 파악하고 학년별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학사 문화는 교사에게도 해당한다.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있다면 교사에게는 과목 개설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정해진 과목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강좌 개설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면 교사는 좀 더 보람을 느끼며 헌신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운영에서도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까지도 교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전문성에 기반하여 자율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택과목이 대량으로 늘어날 경우 일과 시간 이외 시간에 수업이 개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학교별 또는 교사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율권을 교사에게 부여할 때만이 그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때 교사가 온전히 그 부담을 모두 떠안거나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가 주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학사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릴 수 있는 것은 학생이 구성하는 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등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교육부가 제시한 '이수 및 미이수 적용',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 시 학점 취득', '정해진 학점 도달 시 졸업' 등의 학사제도 운영 체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와 교사들은 모든 학생이 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중요한 취지이다.

구본용·정찬석(2001)에 의하면 교실에서 잠자지 않는 학생이 전체의 30.0%로 나타났다. 약 20.0% 정도의 학생들은 1시간 이상 교실에서 잠자고 있고, 36.7%의 학생들은 1시간 미만으로 자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교실에서 깨우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교육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학교나 교사 측면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학생들에게 관심도 없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게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을 수준에 맞게 가르쳐서 모든 학생들이 최소 성취기준을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성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학교 측면에서 재이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도 미비 문제(중요도 평균 4.094, 시급도 평균 3.813), 교원 수급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중요도 평균 4.313, 시급도 평균 4.094)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최소성취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과목을 재이수하는 것은 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나 제도의 미비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평가로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재이수를 해서 성취수준에 도달하더라도 하고 학점을 변경할 수 없다. 한 학생의 학점을 변경하면 모든 학생의 등급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미이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이수를 위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 담당교사들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는 제도와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첫째, 재이수가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적 책무성에 기반한 개념임을 명확화 하고 그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세부 정책 수립, 홍보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과목의 학점 취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징벌적 개념이 아니다. 이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이수 기준에

도달하도록 가르치겠다는 교육적 책무성의 표현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사전에 예방적 지도를 하여 최대한 미도달 비율을 낮추고, 미도달 학생이 있을 경우 보충프로그램이나 대체과목을 설정하여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개별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후속적으로 수립 및 집행될 재이수에 관한 세부 정책들은 그러한 개념에 기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학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이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계 및 사회전반에 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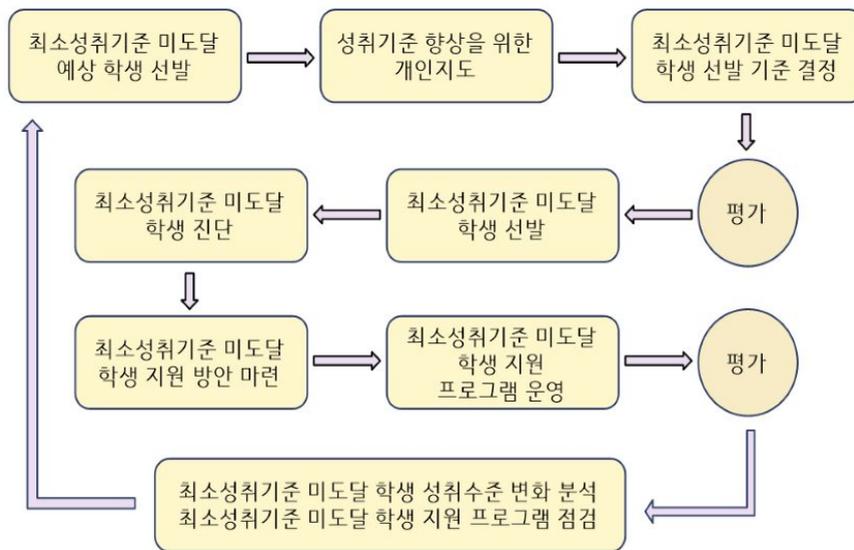
둘째,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미도달(재이수) 예상 학생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기 초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업성취율을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생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한 보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최대한 최소학업성취수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사례를 보면 예방프로그램 참여 이후 대부분 학생들이 최소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기말 평가에서 학업성취율이 40%이상 달성하지 못한 학생이 나타나면 이들을 위한 재이수 과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재이수 과정은 전체 차시를 모두 다시 수강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단원별로 학업성취율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만 수강하거나 프로젝트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별도로 재이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이수 과정을 개설하고 이수하는 방법은 학교의 상황과 학생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의 책무성 실현과 관련하여 주주자 외(2017)는 학습자 주도 연구와 학점 인정, 과정 중심 질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광우 외(2018)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방과후·주말·학기말·방학을 통한 재이수제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과정 중심 질 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 기회에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선택과목 개설요구에 최대한 부응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자체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 지역 내에서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는 인근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 지역사회 교육시설에서 개설한 교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한 교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학생이 특정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지원을 해야 한다.

국내 운영 사례

〈A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학년당 10학급 규모의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임
- 고교학점제 중점 운영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지필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최소성취기준 미도달 예상학생을 선장하고, 학습코칭,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교육과정 위원회,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국어, 영어, 수학 교과별 과목 실정에 맞는 최소성취기준과 평가 문항을 개발함



[그림 V-3] A고등학교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모형

해외 운영 사례

〈호주 사례〉⁵⁾

- Northern Beaches Secondary College Mackellar Girls Campus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여학교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한 뛰어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기존에는 학습 과정만 마치면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졸업할 수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학력고사(HSC)의 최저점수 기준제가 생겼음. 10학년에 온라인으로 문자수리능력 시험을 봄. 이 시험에 대한 최저점수 합격선이 있는데 해당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11학년, 12학년에 재시험을 보고 최종까지도 수료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음. 졸업을 위한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개 합격선 점수에 미치는 성적을 보유하게 됨. 최저점수가 생긴 이유는 각 주마다 실시하는 성적 테스트가 다르고 학생들은 해당 주 안에서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너무 낮은 수준의 시험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임

해외 운영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주〉⁶⁾

-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함

가. 학점 취득 가능 기관

- 재학 중인 학교
- Night School(교육청)
- Credit School(교육부)
- Summer School(교육청, 교육부)
- Co-op 기관(교육청, 교육부)
- Saturday Credit Program(교육청)

나. 교과 이외의 Credit 취득과정 프로그램

- Cooperative Education
- SHSM(Specialist High Skills Major)
- Dual Program(College)

[그림 V-4] 온타리오주 학점 취득 가능 기관

출처: 캐나다 한국교육원에서 받은 자료를 스캔한 것임

-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지역 내 개설된 과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능한 스케줄에 수강할 수 있음

5) 한국교육개발원(2020a)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6) 한국교육개발원(2020a)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Available Credit Courses					
COURSE	Level 1/B	Level 2/C Prerequisite: Level 1/B	Level 3/D Prerequisite: Level 2/C	SCHOOL LOCATION	DAY COURSE OFFERED
ARABIC	LYA BD	LYA CU	LYA DU	Richmond Hill HS	Saturday
CANTONESE	LKC BD	LKC CU	LKC DU	Middlefield CI	Saturday
CANTONESE	LKC BD	LKC CU	LKC DU	Thornlea SS	Saturday
FARSI	LYF BD	LYF CU	LYF DU	Thornlea SS	Saturday
GERMAN	LWG BD	LWG CU	LWG DU	Richmond Hill HS	Saturday
GREEK	LBG BD	LBG CU	LBG DU	Richmond Hill HS	Saturday
GUJARATI	LIG BD	LIG CU	LIG DU	Middlefield CI	Saturday
ITALIAN	LWI BD	LWI CU	LWI DU	Richmond Hill HS	Saturday
JAPANESE	LKJ BD	LKJ CU	LKJ DU	Huron Heights SS	Wednesday
JAPANESE	LKJ BD	LKJ CU	LKJ DU	Thornlea SS	Saturday
KOREAN	LKK BD	LKK CU	LKK DU	Richmond Hill HS	Saturday
MANDARIN SIMPLIFIED	LKB BD	LKB CU	LKB DU	Huron Heights SS	Wednesday
MANDARIN SIMPLIFIED	LKB BD	LKB CU	LKB DU	Middlefield CI	Saturday
MANDARIN SIMPLIFIED	LKB BD	LKB CU	LKB DU	Thornlea SS	Saturday
MANDARIN TRADITIONAL	LKM BD	LKM CU	LKM DU	Middlefield CI	Saturday
MANDARIN TRADITIONAL	LKM BD	LKM CU	LKM DU	Thornlea SS	Saturday
MANDARIN SIMPLIFIED - Advanced Placement			LKB DUE	Middlefield CI	Saturday
OJIBWE	LNO BD	LNO CU	LNO DU	Middlefield CI	Saturday
OJIBWE	LNO BD	LNO CU	LNO DU	Huron Heights SS	Wednesday
RUSSIAN	LRR BD	LRR CU	LRR DU	Huron Heights SS	Wednesday
RUSSIAN	LRR BD	LRR CU	LRR DU	Richmond Hill HS	Saturday
SPANISH	LWS BD	LWS CU	LWS DU	Huron Heights SS	Wednesday
SPANISH	LWS BD	LWS CU	LWS DU	Richmond Hill HS	Saturday
TAMIL	LIT BD	LIT CU	LIT DU	Middlefield CI	Saturday
URDU	LIU BD	LIU CU	LIU DU	Middlefield CI	Saturday

[그림 V-5] 온타리오주 학점 취득 가능 교과목 안내

출처: 캐나다 한국교육원에서 받은 자료를 스캔한 것임

나. '교원'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 다과목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수업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사들이 다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이전과 이후에 과목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고교학점제 이전 수업 수는 평균 1.88과목이고, 이후 수업 수는 2.38과목으로 나타났다(이재덕 외, 2018: 64). 고교학점제 이전과 이후에 과목수의 변화는 0.50과목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중요도 평균 4.594, 시급도 평균 4.688)이 교원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가 부족하고, 수업 전문성 제고 기회가 부족하여 다과목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과목을 가르치다보면 수업 준비 및 평가 부담이 생겨서 교사 피로도가 증폭하는 문제(중요도 평균 4.250, 시급도 평균 4.281)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다과목 수업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64.5%)과 새로운 담당 과목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46.7%)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원 임용 시 표시과목은 한 과목으로 되어 있다. 교원들은 표시과목 이외에 복수전공한 과목은 가르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수업 준비 부담 및 업무 부담이 커지지만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다과목이나 야간강좌에 대한 보상 미흡(중요도 평균 4.250, 시급도 평균 4.094)이나 교사 간 업무 및 행정 부담 불균형(중요도 평균 4.125, 시급도 평균 4.156)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과 같이 한 과목을 가르칠 때보다 다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수업 준비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교사들의 부담은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학교 내에서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부터 개설을 원하는 과목을 신청 받고, 학교가 최대한 신청 과목을 개설해주거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업무들이 새로 생겨난다. 이러한 업무는 기존 체제에서는 없던 업무로 순수한 학업지도에 매진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요구한 과목을 학교가 개설해주기 위해서는 순회교사나 시간강사의 수가 증가할 것인데 학교 구성원 비율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 스스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교사 자신의 인식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이 함께 바뀔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첫째, 교원의 유연한 교과 정체성을 함양해야 한다(교과군 전문성 함양 시스템 및 포괄적 전공 자격 부여, 복수 교과 자격 인센티브, 교원양성단계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의무화, 임용단계 다과목 전공자 우대 등). 고교학점제 도입 시 교사는 하나의 교과가 아닌 교과군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면서(이동업 외, 2018), 교사들이 유연한 교과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교원양성 및 교원선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이상은 외, 2018).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교사는 전공과목이 2개여야 노동계약서 작성

이 가능하고, 최소 2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택교과는 대부분 개설이 가능하다(이재덕, 2019).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다과목 수업 개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과목 수업 개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내는 교사들은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칠 때 교과 내용을 잘 모르고 전문성 없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주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다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다과목 지도가 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에는 교과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전달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가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학교 수업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업전문가로서 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적합도 평균 4.094, 실현가능성 평균 4.094)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다과목 지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 내에서는 교사 간에 다과목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하고 관련 교사의 협의에 의해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과목 수업 및 수업량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표준시수제’ 도입이 필요하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다과목 담당 교사들에게는 표준시수제를 도입해야 한다(적합도 평균 4.375, 실현가능성 평균 3.906)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고교학점제에 잘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다과목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을 위한 다과목 수업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 보수체계 개선, 학습연구년제 등(적합도 평균 4.375, 실현가능성 평균 3.719)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다과목 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다과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대한 재교육(적합도 평균 4.406, 실현가능성 평균 4.063)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수는 수업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수할 수 있지만 다과목 전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입장에서 수업과 업무를 배제해주고 파견으로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다교과 및 다과목 수업 전문성 변화 동의 정도가 81.5%로 나타났다.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수업시수 경감이 66.6%, 전공에 대한 연수 제공이 43.3%로 나타났다. 교사의 다과목 수업이 어려울 경우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이 60.0%,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가 44.2%로 나타났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새로운 과목의 수업자료(교수요목, 학생평가 방법 등 기본 지도안)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적합도 평균 4.094, 실현가능성 평균 4.000)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교원양성단계부터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의무화하며, 임용단계에서는 다과목 전공자를 우대해야 한다(적합도 평균 4.313, 실현가능성 평균 3.781)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②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학교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실행되면 교사의 역할은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갑작스럽게 교사의 역할을 변경하도록 요구한다면 교사들은 역할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추가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업무 담당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교사의 역할갈등은 교사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과 학교 및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역할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 갈등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기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담지운다면 핵심 업무인 순수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부족(중요도 평균 4.406, 시급도 평균 4.438), 과목선택 지도·상담 역할을 담당할 교사 부족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중요도 평균 4.313, 시급도 평균 4.406)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역할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역할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전문성이 부족하면 역할 수행의 효과나 반감할 것이다.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현재 체제에서 교사들은 교과지도 이외에 학급담임으로서의 역할과 생활지도 역할, 그리고 행정 업무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강화되고, 과목별 최소성취기준 도달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면 교사들은 학생의 교과 선택을 위한 자문역을 맡아야 하고, 최소 성취기준을 도달시키기 위한 개별 지도를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7%로 나타났으며,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나타났다.

이동엽 외(2018)는 교사가 학습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며, 교사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의 교사 입문을 촉진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교사에게 포괄적 전공 자격을 부여한 후 다양한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를 지원하고,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진

숙 외(2018: 292-293)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하는 과목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자 역할, 과목 선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교과교사와의 협력적 지도 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정보 제공과 상담뿐만 아니라 과목 이수 관리와 졸업 학점 관리 등을 지원 하는 역할도 제안하였다.

교사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행정 업무를 경감하며, 담임업무나 생활지도 업무를 줄여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업을 분담할 교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이재덕 외(2018)에 의하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주당 수업시수를 줄인다면 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이 다교과를 가르치고, 과목 선택 상담을 하며, 미이수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경감해야 하는데 학교 별로 업무 전담사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 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과 지도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 가운데 담임 업무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역할 조정을 할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적합형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담임 업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바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순차적인 역할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교사 역할 변화를 위해 과목선택 지도 방법 및 상담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적합도 평균 4.469, 실현가능성 평균 3.906)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수는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집합 연수로도 운영될 수 있고, 학교 자체 연수나 온라인 연수로도 운영할 수 있다.

국내 운영 사례7)

〈J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학년 당 8학급 규모의 지방 중소도시 소재 고등학교임.
- 다교과 간의 주제 융합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주제 융합 수업을 공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융합 수업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지적 만족도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통하여 잠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7)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2019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주요 운영사례집」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③ 전문적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직은 개인주의적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정수현(2000)은 교사 문화를 동료 간의 상호교환을 즐기기보다는 고립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라고 밝히고 있으며, 김병찬(2003)은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진 교사들은 서로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고립풍토는 교사들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교내 자율장학을 어렵게 하고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공동노력을 어렵게 한다(신중식 외, 2003). 교육부가 제시한 학사제도 운영 체계 가운데 선택 교육과정 편성,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과정 중심 교사별 평가 및 성취평가제 적용, 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개별 지도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습지향의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교원 영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의 경험 부족(중요도 평균 4.049, 시급도 평균 4.000)을 들고 있다. 동교과 교사 간 소통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협력 문화가 부재하며, 협의시간을 만들기조차 어렵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문성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89.9%)하고 있으며, 평가 전문성 변화(87.6%)나 다교과 및 다과목 수업 전문성의 변화(81.5%)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표시과목만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수업 방식과 평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성취수준이 미달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동료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생활에서 중심축을 학생에 두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할 규범을 만들고, 공유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협력해야 하며,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학습공동체는 인간의 성장과 학습을 기본적 지향으로 하면서 형성된 유기적 협동체이다. 그곳에서 구성원들은 교육의 핵심적 활동인 배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의식과 가치관을 강하게 갖는다. 그리하여,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인간의 형성과 관련하여 교과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교과를 잘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떤 경지를 요구하는지 등에 대한 바르고 투철한 의식을 두루 공유한다(허병기, 2004: 153).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교원들은 훌륭한 교육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일을 일체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학교 내의 모든 의식과 행

동이 학생에게 최적의 경험을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에 집중한다. 교육하는 일의 '경지'를 높이려는 성향이 인상적으로 나타난다(허병기, 2004: 153).

주철환(2002)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학교 규모의 소규모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당 학생 수의 감축, 교직원의 자기개발 여건 조성, 교사순환근무제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친밀하게 접촉하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 작은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연수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한 학교에 근무하는 재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무회의 등 관련 기구들의 기능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 경영자를 위해서는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을 지시·감독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봉사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위학교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행정조직의 핵심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재덕 외(2018)는 현재의 교육지원청을 학교종합지원센터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종합지원센터는 교수학습지원, 학생지원, 학교평가지원, 교육활동지원, 교원지원, 교육정보지원, 학부모지원, 특수/영재교육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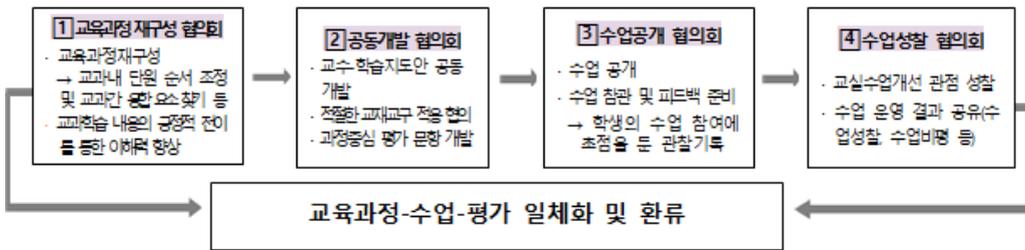
공동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교사들 간의 정신공동체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생 개인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개별학습, 전문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공동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자유재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통제와 자유재량의 균형을 위해서 교사들이 내린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이 공유된 가치와 일치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면 된다. 이 지침은 원리, 표준, 학습에 관한 가정, 그리고 일반적인 결과의 형태를 취하면 된다(주철환 역, 2004: 138-139).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협력적 교원 문화 조성을 위한 단·중·장기의 실천계획 및 방안을 개발(적합도 평균 3.781, 실현가능성 3.813)하고, 교원 동아리, 신규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간 코칭, 스터디그룹, 공동수업 계획 협의 모임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적합도 평균 4.094, 실현가능성 평균 3.906)하며, 수업 개방 및 상호피드백을 활성화(적합도 평균 4.000, 실현가능성 평균 3.906)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내 운영 사례⁸⁾

〈C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학년당 9학급 규모의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임
- 교사공동체 운영을 통해 수업 나눔 및 성찰을 도모하고 있음
-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 → 공동개발 협의회 → 수업공개 협의회 → 수업성찰 협의회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및 환류를 꾀하고 있음



다. '진로지도'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1] 중학교-고등학교 간 진로탐색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충분히 진로를 탐색한 학생들이 전공적합도가 높은 선택과목을 체계적으로 수강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진로탐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명확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단순히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찾는 '진학 중심 진로 설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이전의 선택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설정과 과목 선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학에 유리한 진로 변경과 과목 선택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단계부터의 진로교육이 필수적이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제부터 진로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중2, 중3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 진로를 일찍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참여하는 자유학기

8)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2019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주요 운영사례집」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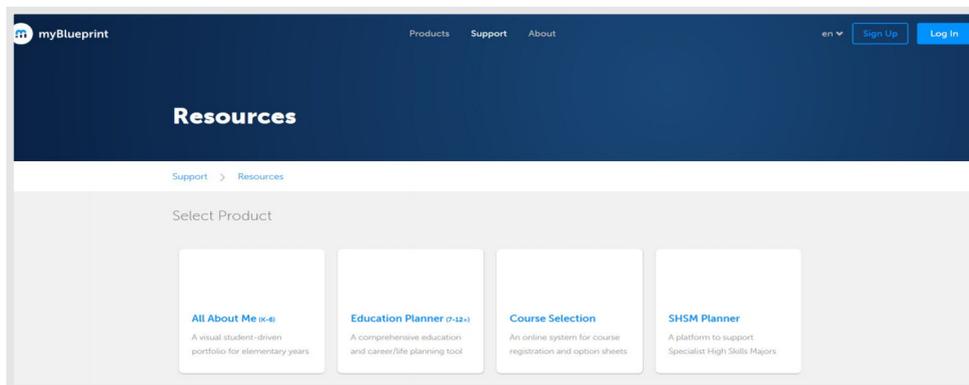
제부터 고등학교에 입학 후까지도 진로 탐색을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부터 진로와 적성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학기제부터 작성한 진로 프로파일 일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전담 교사 혹은 담임교사는 학생의 진로 프로파일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집중학기제를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3 시기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집중학기제를 편성·운영한다면 고등학교 입학 직전에 집중적인 진로 탐색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할지, 고등학교 진학 후 어떠한 과목 선택이 도움이 될지, 진로 선택을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에 대해 보다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고, 또한 고등학교 진학 시 가지고 갈 진로 프로파일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 3 시기에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후 고등학교에서는 설정된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 상담 및 선택과목 상담이 이루어지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운영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주〉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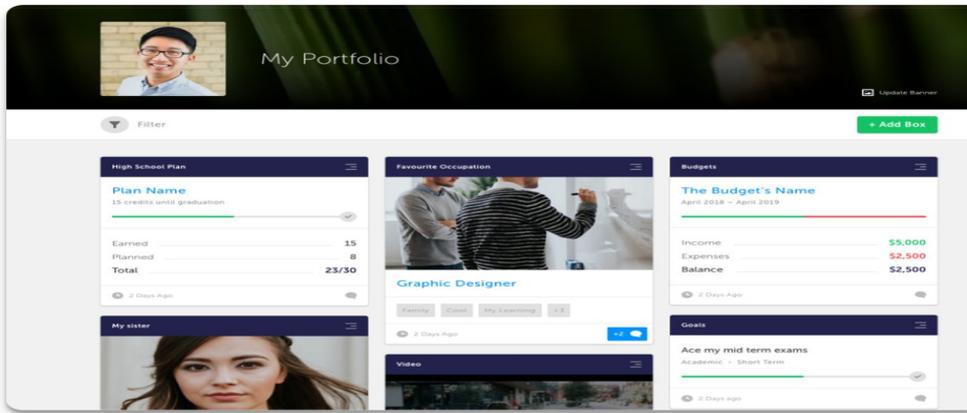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플래너 프로그램(Myblueprint)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점관리(과목에 대한 안내 포함)에서부터 진로선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림 V-6]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플래너 프로그램(Myblueprint)

출처: 온타리오주 교육플래너 홈페이지(<https://myblueprint.ca/products/educationplanne>)

9) 한국교육개발원(2020a)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그림 V-기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플래너(Myblueprint) 내 포트폴리오 예시

출처: 온타리오주 교육플래너 홈페이지(<https://myblueprint.ca/products/educationplanne>)

- 학생 진로 선택을 고려하여 University(4년제), College(2년제), Workplace를 위한 각각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하며, 학생 개인의 중요한 경험, 활동, 성과, 기술 등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이력 관리 하고 대화식 포트폴리오 링크를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는 형태임

② 모든 교사들의 진로지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때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누가 할 것인가, 진로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선 기존의 담임을 중심으로 한 학급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진로지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진로 전담 교사가 담당하는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진로 전담 교사가 고교학점제 시행 따른 제반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 교사의 관심 정도에 따라 진로지도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몇 명의 교사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해당 교사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는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피상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책임지고 수강하게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특정 교사만이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진로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장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재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학생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가 아닌 교과 수업 내에서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들에게 대학원 진학, 이중전공 취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 양성 단계에서 예비교사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순히 별도의 진로지도 과목 신설을 검토하기보다는 기존의 과목 내에서 예비교사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이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와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과목에서 국어 교과와 연계된 대학 전공이 무엇이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과목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과목 선택이 중요한 지, 해당 과목 내에서 어떠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길러져야 할 것이다.

3 전공적합도를 고려하여 진로설계 및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수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학생들의 적절한 과목 선택과 이를 위한 과목 제공이 필수적이다.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단순히 흥미 위주, 친구를 따라서,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대학 진학 후 적절한 선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학에서의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대학 전공계열별로 연계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서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계열별 고교 선수교과목을 분석한 연구(홍후조 외, 2010)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이미 10년 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과 신생 전공과 관련된 선수교과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전공 계열과 향후 추가되거나 없어질 전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서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해외 운영 사례

〈호주의 Bethel Christian School〉¹⁰⁾

- Bethel Christian School은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학교로, Kinder 단계부터 선택형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학년 과정을 운영 중인 K-12 학교임
- 진로 설계(Career Pathway)시 학생의 성향을 선 파악 후, 이에 맞는 학습방법과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함. 이 과정 중에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상담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9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부터 일주일에 한 시간씩 전문 진로 교사와 자기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함. 학교 웹사이트에 특정 직업에 대한 자료 등을 게시함.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에 성적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학업에 대해 장려하기도 함

해외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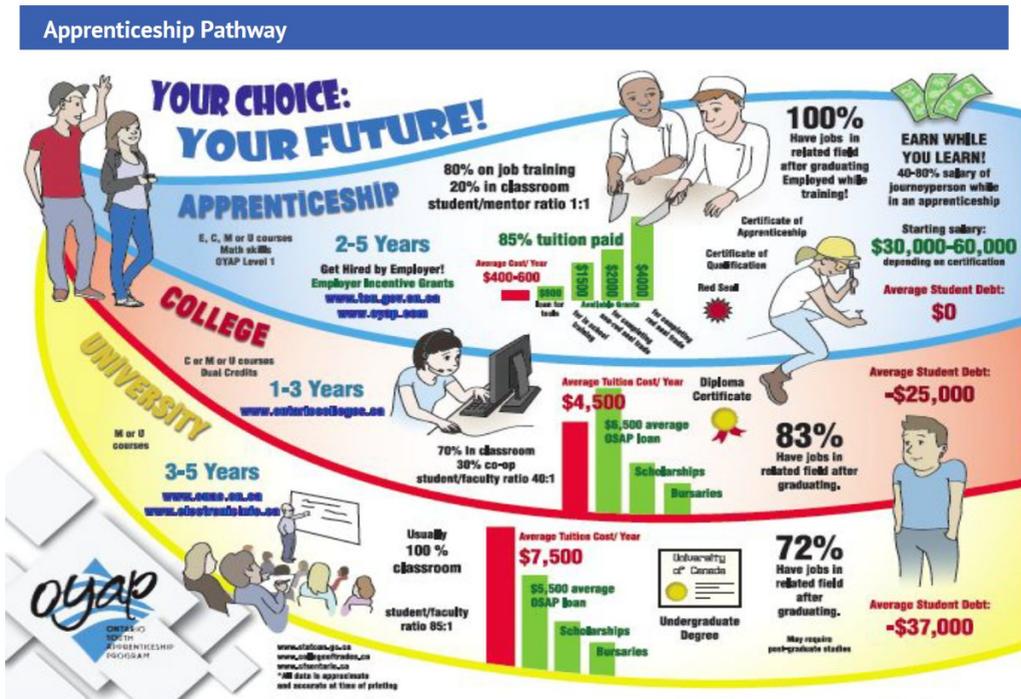
〈캐나다 온타리오주〉¹¹⁾

-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 개발을 위해 진로 직업 교육 지원으로서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직업 계획 도구인 myBlueprint 운영, OYAP(온타리오 주 청년 도제 프로그램), 직업에 중점을 둔 전문 프로그램인 SHSM(Specialist High Skills Major)을 도입하여 시행중임
- 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직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OYAP(온타리오 주 청년 도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나 위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역할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반고 내에서도 대학교, 대학, 직업 과정 선택과목 이수 등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거나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 훈련을 학점제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경우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아울러 직업에 중점을 둔 전문 프로그램인 SHSM(Specialist High Skills Major)의 경우 학생들이 특정 경제 부문에서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인증서를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진로 직업에 대한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교육개발원(2020b)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11) 한국교육개발원(2020a)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Specialist High Skills Major Program Symposium	
OYAP	SHSM
- must be at least 16 years old with 16 credits	- begins in Grade 11 year
- happens in Co-op, especially multi-credit	- Co-op is a mandatory component, with powerful new capacities for multiple credits
- Accelerated OYAP often has Dual Credit	- Dual Credit may serve as Major
- Certifications (PACE; Local 27; W@H)	- Certifications required
- proving to be a powerful engagement tool	- designed as an engagement tool, SS/L18
- related Technological Education course experience strongly recommended	- Technological Education courses comprise much of the Apprenticeship and Workplace Pathways
- Specialized Programs combine packages of Tech Ed courses with multi-credit Co-op	- SHSM is designed as a combination of courses that allow students to focus their learning - and must include Co-op
- Designed as a Grade 12 exit strategy	- designed to increase OSSD completion



[그림 V-8] 온타리오주 OYAP 및 SHSM 안내자료

출처: 온타리오주 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tdsb.on.ca/Portals/ward8/_m/docs/2018_05_29%20Trustee%20Laskin%20Ward%20Forum%20Presentation.pdf

④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한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진로 및 진학 상담, 교육과정 상담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진로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야에서 친한 친구와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거나, 불명확한 진로를 바탕으로 과목을 비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와 다양한 전공의 교원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알고 있어도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강의나 인근 학교의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학생이 스스로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학생이 제한된 정보를 통해 한정적인 직업 내에서만 진로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나 수강 희망 과목이 학교 내에서 개설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상담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수에서 학교 자율과정에 배당된 시수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과정에 86단위(총 이수 단위 204)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 단위에 한해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자율과정 단위 안에서 학생의 진로 설정과 이에 따른 과목 수강을 위한 제반적 사항들을 다루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이나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수에서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 시수를 필수이수단위로 배정하는 것이다. 학교 자율과정에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 학교별로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 과정 편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물론 학교별 사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고교학점제 시행 초기의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단위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내 운영 사례¹²⁾

〈C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학년당 8학급 규모의 지방 중소도시 소재 고등학교임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학업 설계를 도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학급별 특색 있는 진로 프로그램과 또래 멘토링제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도하고 있고, 학년 말 학급별 진로 자료집을 발간함

	진로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활동 주제
1반	꿈 벌려 꿈	자신의 관심 학과를 탐색하고 진로와 연결한 주제 발표
2반	학급 드림릴레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와 연결한 주제 발표
3반	PLANT DREAM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미래모습 설계와 발표
4반	진로릴레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사하고 노력해야 할 방향 발표
	롤모델을 찾아라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롤모델을 찾고, 공통점 및 배워야 할 점 발표
5반	정진(정하자, 진로!)	직업인 초청 강연 (자신이 희망 진로를 이루었다는 가정 하에 교육 실시)
		직종별 보고서 작성
6반	내진설계 (내 진로를 설계하자)	희망 진로에 대한 조사 및 발표
	명함 만들기	미래 명함 만들기를 통하여 자신의 진로 탐색
7반	1-7 신문 만들기	20년 후의 본인 모습을 신문 기사로 만들기
	나의 진로는 지금?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사회적 이슈 찾아 발표

라. '학교생활' 영역의 학교 문화 조성 실천 전략

① 학생 참여형 혹은 학생 자치형 학교생활 규칙을 수립하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누구보다도 학생의 학교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학교 시기까지 제공되는 과목을 학습하는 데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자신이 설정한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고, 적절한 성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2019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주요 운영사례집」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이러한 부담감은 고교학점제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책무성과 윤리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친한 친구와 같은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교사의 수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수강하지 못한 채 졸업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과목에서 적절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성적을 상향 조정을 부탁할 수 있고, 혹은 성적을 위해서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책무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혹은 학생 자치형의 학교생활 규칙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들어 부과하는 규칙보다 자신들이 스스로 검토하여 만들고 제시한 규칙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쌍철 외, 2018). 이를 위하여 학교별로 규칙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학생 참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토론이나,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규칙 제정과 전교생의 인증,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생활 규칙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자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성 교육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성적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학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부 강사에 의해 제공되는 일방적 특강의 형식보다는 역시 학생 주도의 워크숍이나 토론 방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운영 사례13)

〈K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학년당 11학급 규모의 지방 중소도시 소재 고등학교임
- 학생 주도적으로 자치회를 이끌고 있으며, 학생회 주관으로 학교행사를 계획·집행함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함

영역	내 용
학생 주도적 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주관 학교 행사 : 학교축제, 스포츠 클럽, 교내 체육대회, 동아리 홍보 및 예산 수립 등 운영, 학생회 선거, 수능 격려식, 학교 홍보 영상 제작 등
자율과 책임의 학생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의 주체적 역할 수행 • 공약의 성실한 이행 : 우산대여제, 복사기 설치,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등

13)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2019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주요 운영사례집」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② 학생별 복수 연도 담임을 맡고 학생을 책임 지도하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에서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교사의 역할 변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및 업무의 증가로 인한 피로일 것이다. 기존의 학급 단위 운영에서는 담임이 일과 중 두 번 이상 학급에 들러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학급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명분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담임의 역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이 없을 경우 학생들의 학사와 진로 상담의 제1 담당자를 누가 맡을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진로 상담 전담 교사는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도 학사 전반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일정을 전달하거나 진로 이외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 역시 담임교사와 같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정해진 담임교사가 없다면 어느 교사를 찾아가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필요할 때 매년 담임 혹은 담당 진로 교사가 바뀔 때마다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담임교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3년 담임교사제의 경우 한 교사가 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3년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3년 담임교사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교사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담임이 바뀌는 제도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2년 이상 담임을 맡는 '담임연임제'가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에서 운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배지은, 2013; 이호준 외, 2016). 자신이 설정한 진로에 대한 상담은 물론 진로를 변경할 때에도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진 담임교사와 의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는 소비자로서만 이 아닌 자신이 3년간 길러내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년 담임교사제를 시행할 경우 1학년 때 배정받은 담임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임교사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과제도와 같이 학년 혹은 학기가 바뀔 때 담임교사를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경우 담임교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교장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의 시행이 학교 측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서도 받을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의 취지, 학교의 형편과 사정,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조율을 위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변화는 대학 입시와의 관련성과 유불리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학내외 구성원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학교 시설의 확보와 관리도 요구할 것이다. 다양한 과목 개설에 따른 교실의 이용 방법이 달라질 것이고, 아울러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교사들 간의 수업 시수 배분, 담임교사를 담당할 교사와 이외 업무를 담당할 교사의 업무 배분 등 역시 학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일 것이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고교학점제로 인한 변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학내 구성원들인 교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강력하게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반영과 의견 조율,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학생 참여 및 학생 자치를 통한 규칙 설정 등에 있어 학교장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때, 학교장의 절대적인 리더십은 학교장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학교 조직에 대한 배려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장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장학습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히 몇 번의 연수를 통한 학교장 전문성 함양과 리더십 제고를 도모하기 보다는 교장들 간의 교장학습공동체를 통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제반 여건 조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교장학습공동체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예상되는, 발생된 문제의 해결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한 아카이브 운영이 필요하다. 교장들이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처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교장들의 노하우를 문서나 영상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공유한다면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문화 조성

○ 현황 및 문제점(선결과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안전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인 공강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때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간의 다툼,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 온라인 수업 시 제 자리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타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도 기존과 같이 대부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게 지을 경우 공강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과목 개설이나 시간표를 왜곡하거나 타학교 개설 과목 수강을 일부러 막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 실천 방안(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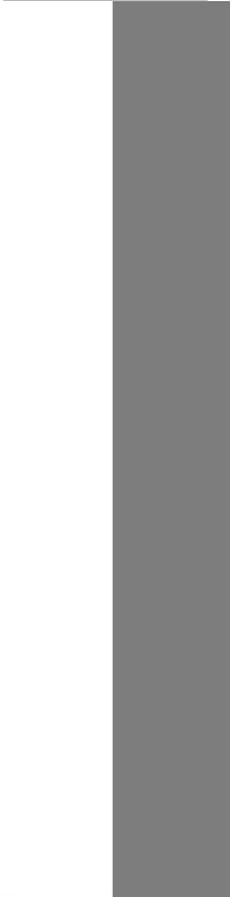
첫째, 공간 시간, (공동 교육과정) 학생 이동 등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화 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생 안전 가이드를 개발하여 학교와 교사의 역할, 책임을 정확히 규정하고 안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모든 안전 문제를 교사와 학교의 책임으로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학생의 성취도, 재이수 등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화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에 기반한 정책이다. 하지만 낮은 학업성취도 및 그에 따른 재이수가 자칫 교사의 잘못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조성되면, 교사들이 선택과목 수업에서 재이수 학생을 선별하지 않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성취도, 재이수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안내 가이드를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고교학점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왜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가 필요한가? 고교학점제의 양적 확대는 Top-down 교육정책으로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적 동인이 약화된 후에도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에 정착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개선이 아니라 고교 교육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므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적합한 학교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 학교 문화는 학교 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근원적인 존재이므로(Alvesson, 2002)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의 조성은 지속적,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학사, 교원, 진로지도, 학교생활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실천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영역별로 조성해야 할 학교 문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I-1〉 영역별 조성해야 할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영역	조성해야 할 학교 문화
학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탄력적 학사 운영 문화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학사 문화 · 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학사 문화
교원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과목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수업 문화 ·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 문화 ·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
진로지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고등학교 간 진로탐색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 · 모든 교사들의 진로지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 조성 · 전공적합도를 고려하여 진로설계 및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문화 ·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한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는 문화
학교생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참여형 혹은 학생 자치형 학교생활 규칙을 수립하는 문화 · 학생별 복수 연도 담임을 맡고 학생을 책임 지도하는 문화 · 교장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 ·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문화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문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일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문화이고,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정책 변수에 기인해서 학교 문화를 분석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학교 문화는 비단 고교학점제라는 정책의 성공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 전반의 질 제고, 미래 지향적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문화인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째, 앞에서 이끌기보다 뒤에서 밀어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의 특성상 Top-down 방식의 일방향적 조성은 어려우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조성해야 할 문화가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책연구의 특성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그 실천 방안의 실제 집행 과정에 있어서 ‘해당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학교’ 또는 ‘해당 정책을 도입할 여건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의 관점에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적 압력은 학교 구성원의 수동적 자세를 부추기고,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학교 문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정착에 필요한 학교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한 초기 연구로써 의의가 크지만, 현재 고교의 학교 문화가 어떠한지는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 및 실행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대로 진단을 해야만 제대로 처방할 수 있다. 학교 문화의 렌즈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교 문화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고교학점제 확대 계획에 따른 고교학점제연구센터 간 협동 연구 및 협력 사업이 기획되어야 한다. 2025년 일반계고 전면 확대에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 도입,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부분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Bottom-up으로 형성되는 학교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직업계고의 긍정적 경험과 그에 따른 학교 문화는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의 정착 뿐만 아니라 이후 일반계고의 학교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및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KEDI-KICE-KRIVET 간 협동 연구 및 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 세종: 교육부.
- 구본용, 정찬석(2001).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한국청소년상담원.
- 구자역, 남궁지영(2011). 학점제 도입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조(2016).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문화 개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조, 이현명(2015). 학교문화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열린교육연구, 23(4), 255-284.
- 김병찬(2003). 중학교교사들의 교직문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1), 1-27.
- 김정빈, 김수영, 함영기(2017).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진숙, 이광우, 조보경, 이민형, 임유나(2018).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노은희(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 2019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자료집, 3-21.
- 박균열, 김주아, 최수진, 류성창, 주영효, 김대영, 이인수(2018).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운영 체제 및 학교 문화 혁신 방향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동열, 안재영, 김중우, 옥준필, 허영준, 이영민, 임연, 조희경, 강선애, 이경미, 이선운, 최수정(2018).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운영 방안 연구: (1)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삼철(2003). Schein의 조직문화개념 분석에 기초한 학교문화와 학교풍토의 개념적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21(4), 161-178.
- 박성철, 이윤서, 조진일, 장재원, 손찬희, 황은희(2018).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방안 및 시설규모 산정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 배지은(2013). 초등학교 담임연임제 실행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찬희, 정광희, 박경호, 최수진, 양희준, 전제상, 류호섭(2017).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신중식 외(2003).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광우, 이근호, 김진숙, 민용성, 이경연, 권점례, 조보경, 김현미, 김기철, 김현정, 김현수, 이수정, 이민형, 임유나(2018).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연구-수업시수, 학교 밖 학습경험, 조기

- 졸업 및 재이수제-.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동엽, 이상은, 유길한, 유동훈(2018).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방향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 이명애, 박혜영, 성경희, 변태진, 김성혜, 김영은, 박도영, 양길석, 임혜미(2018).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교육평가 개선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은, 이동엽, 백선희, 장덕호(2018).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 교원의 선택과목 확대 범위 분석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 이쌍철, 허은정, 황지원, 강구섭, 김정현, 백선희(2018).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 연구: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OR2018-0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덕(2019). 미래지향적 고교 혁신 프로젝트 ‘학점제’ 독일, 캐나다. 행복한국교육, 440, 19-21.
- 이재덕, 황준성, 백승주, 김혜진, 김흥주(2018). 교육자치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덕, 최수진, 오요섭, 남수경, 이길재(2018).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 임소현, 강병직, 차성현(2014). 창의성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호준, 이형빈, 김현주, 장민희, 원유림, 김형욱(2016). 초등학교 담임연임제 정책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강원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4(5), 193-221.
- 정수현(2000). 학교 현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원평가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주자, 김위정, 이현미, 이동배, 박수진(2017). 고교 무학년 학점제 구현 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주철안(2002).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구축의 원리와 상황적 조건. 교육연구, 12, 45-49.
-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주요 사례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20a). 2019년 고교학점제 해외 학교환경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근간).
- 한국교육개발원(2020b). 2019년 고교학점제 해외 선진학교 탐방연수 결과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근간).
- 한유경, 정제영, 김성기, 정성수, 윤신덕(2012).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병기(2004).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좋은 학교’를 지향한 한 서설적 논의-. 교육과학연구, 8, 147-158.

- 홍후조, 김대석, 박혜림(2010).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계열별 고교 선수교과목 분석. *교육방법연구*, 22(1), 221-242.
- 최수진, 양희준, 박상완, 박수정(2018).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강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 Alvesson, M. (2002).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Culture*. London: SAGE.
- Cummings, T. G. & Worley, C. G. (2004).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Change*. South Western: Thomson.
- Owens, R. G. (2001). *Organizational Behavior in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 Sergiovanni, T. J.(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주철안 역(2004). *학교공동체 만들기*. 서울: 에듀케어.

부록

- [부록 1] 설문조사지(교사용)
- [부록 2] 설문조사지(학부모용)
- [부록 3] 설문조사지(학생용)
- [부록 4] 델파이 조사지(1차)
- [부록 5] 델파이 조사지(2차)



[부록 1] 설문조사지(교사용)

고교학점제에 관한 의견 조사

(교사용)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고교학점제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연구책임자 황은희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임종현

(043-5309-338 / limjh@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박인선

(043-5309-305 / seon0330@kedi.re.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사 문화

1.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교육과정
- ② 고교 내신 평가제도
- ③ 대학입시 제도
- ④ 교원(수급, 양성 및 연수 등)
- ⑤ 시설 및 인프라
- ⑥ 기타 (_____)

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교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 ②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과목 개발
- ③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
- ④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
- ⑤ 교원 연수
- ⑥ 복수전공 필수 등 교원양성과정 개편
- ⑦ 학업 상담 전담 교사 배치
- ⑧ 필요한 교실 확보, 홈페이지 구축 등 시설 확충
- ⑨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편성 등 NEIS 시스템 개편
- ⑩ 기타 (_____)

3. 다음은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다양한 교과 개설
- ② 교(강)사 확보
- ③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
- ④ 수강신청 및 시간표 작성
- ⑤ 공강 시간의 활용 및 생활지도
- ⑥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안전 책임 및 관리
- ⑦ 교실 확보
- ⑧ 기타 (_____)

4.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수업 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5.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의 현행 ‘학기’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 ①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 ①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② 학사력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③ 학사력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수업연한 3년 안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④ 학사력과 수업연한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맞추어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⑤ 기타 (_____)

6.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경우 현행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① 현행과 같이 수업일수만으로 졸업 인정
- ② 수업일수만으로 하되 개선
- ③ 수업일수 +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가지 기준 충족
- ④ 교과 최소 이수 학점만으로
- ⑤ 졸업 시험 + 교과 최소 이수 학점의 2가지 기준 충족
- ⑥ 기타 (_____)

7. 고교학점제 도입 시 조기졸업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기졸업은 학생이 성적이나 학점 등의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하여 정해진 때보다 이르게 졸업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해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얻게 됨.
-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8. 고교학점제가 도입·시행될 경우,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하게 됨으로써 개인별로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 ②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
- ③ 동아리 활동 시간
- ④ 쉬는 시간
- ⑤ 기타 (_____)

8-1. 공강 시간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 관리
- ②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
- ③ 학생 및 교원 사전 연수
- ④ 시설 및 인프라 확충
- ⑤ 기타 (_____)

9.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교의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학사운영 및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집중이수제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한 과목의 수업을 특정 학기 또는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제도로, 유사한 과목끼리 교과군을 묶어 각 과목별 수업시간만 충족시키면 수업 시점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 교과목 수는 줄이되, 전체 학습량의 변화 없이 특정 과목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됨.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9-1. (③, ④에 응답한 경우만) 교과 집중이수제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군은 무엇입니까?

- ① 모든 교과
- ② 국어 교과
- ③ 수학 교과
- ④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 ⑤ 과학 교과
- ⑥ 체육 교과
- ⑦ 예술 교과
- ⑧ 기타 (_____)

10.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과목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이수제는 학생이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의 학업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F, 미이수), 해당 교과(목)를 다시 수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고교학점제에서는 미이수(F), 즉 ‘해당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나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미이수자(학점 비부과자, 학점 미취득자)로 처리되며, 미이수 학생에게 해당 과목에 대해 재수강할 기회를 주는 것임.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10-1. (①, ②에 응답한 경우만) 재이수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응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이수제보다 대체 교과 이수제 도입
- ② 재이수제보다는 소정 보충교육 도입
- ③ 기타 (_____)

10-2. (③, ④에 응답한 경우만)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기준 적용
- ② 필수교과, 선택교과 등 교과(목)별 다른 기준 적용
- ③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 ④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 ⑤ 기타 (_____)

II. 교원 문화

11.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1-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11-2 평가 전문성이 강조될 것이다	①	②	④	⑤
11-3 다교과 및 다과목 수업 전문성이 강조될 것이다.	①	②	④	⑤
11-4 진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상담 전문성이 강조될 것이다	①	②	④	⑤
기타 의견(간단히 서술)				

12. 다음은 현행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교사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담임교사 역할: 생활지도, 교과 외 활동지도, 학급경영, 사안처리, 학부모 관계 형성 등

- ① 현행 담임의 역할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
- ②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 ③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 ④ 기타 (_____)

13.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 ② 교사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확대
- ③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개선
- ④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

- ⑤ 교사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⑥ 학교행정가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증진 연수 제공
- ⑦ 기타 (_____)

14. 교사의 다교과, 다과목 수업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다음 중 가장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선택해 주십시오. (2가지 선택)

- ① 새로운 담당과목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
- ② 새로운 담당과목 수업을 위한 적절한 교재 및 참고자료 확보의 어려움
- ③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 ④ 새로운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
- ⑤ 학교 내 교사 간 공평한 수업 시수 배분의 어려움
- ⑥ 교사의 과도한 수업시수
- ⑦ 기타 (_____)

15. 교사의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다교과, 다과목 수업을 위한 전공 연수 제공
- ② 타 전공과목 자격연수 기회 확대
- ③ 자율적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 ④ 수업 준비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
- ⑤ 학교조직 개편 및 행정지원(행정전담팀 운영, 교과부 교무실 운영 등)
- ⑥ 해당 교사에 대한 보상 제공(인사고과 점수, 연구년, 수당 등)
- ⑦ 기타 (_____)

16. 학교 여건 상 교사의 다과목 수업이 어려울 경우,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2가지 선택)

- ① 순회교사 활용
- ②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
- ③ 산학겸임교사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력 활용
- ④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 ⑤ 학생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 ⑥ 학생이 인근 평생학습기관으로 이동하여 수업
- ⑦ 기타 (_____)

Ⅲ. 진로지도 문화

17. 고교학점제 도입 시 예상되는 진로지도 관련 업무 부담 등 어려움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상담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따른 업무 부담
- ② 학생 및 학부모 상담시간 증가 부담
- ③ 교과선택 상담 확대에 의한 업무 부담
- ④ 진로지도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족
- ⑤ 진로지도 및 교과선택 상담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
- ⑥ 기타 ()

18.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진로지도와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 방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과정지원부를 강화하여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한다.
- ② 진로진학상담부를 강화하여 진로진학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한다.
- ③ 학년부 및 담임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한다 (전통적인 담임 역할 축소 병행).
- ④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과선택 안내를 지원할 별도 부서를 신설한다.
- ⑤ 기타 ()

19. 진로지도와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각 방안의 적절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집중 19-1 학기14)를 운영하여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	①	②	④	⑤
고등학교 1학년에 진로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ex.진로와 직업 등)	①	②	④	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교육집중학 19-3 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①	②	④	⑤

IV. 학교생활 문화

20.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는 전제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전제 조건을 선택해 주십시오. (2가지 선택)

- ①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
- ② 교사 공동체 활성화(교사학습공동체 등)
- ③ 교사 개인의 교사리더십 발휘
- ④ 학교장의 교육과정 및 평가 관련 리더십 발휘
- ⑤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축소(교과 수업 중심 교육과정 운영)
- ⑥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성화(학생 참여 및 자치 활동 강조)
- ⑦ 전문적 행정지원시스템 제공
- ⑧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제고
- ⑨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간 소통 활성화(ex. 선후배 컨설팅, 멘토링 등)
- ⑩ 기타 (_____)

14) 진로교육집중학기는 진로 교육과 진로 탐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학기이다. 진로 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과 유사하지만 지필고사는 그대로 실시된다는 점, 자유학기 활동과 같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며 진로교육에만 집중한다는 점 등은 차이가 있다.

V. 교·강사 제도 관련 교원 인식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21-1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적으로 고교 교원의 정원을 지금보다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1-2	시·도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교원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1-3	여러 학교의 소수 선택과목을 담당할 순회교사를 교육행정기관(예; 교육청)에 배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1-4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원들이 담당하고,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외부 강사가 맡는다	①	②	③	④	⑤
21-5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학교 교원과 외부 강사 중에서 좀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①	②	③	④	⑤
21-6	고교 교원의 적정수업시수 기준을 학교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1-7	새로운 과목을 담당하는 고교 교원의 수업 연구를 위하여 집중연수기간(예: 학습학기)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1-8	교원이 임용과목 외의 과목을 담당할 역량이 검증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이 없는 과목의 지도를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1-9	교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학생 선택 과목에 한하여 교원자격이 없는 외부 강사의 단독 수업을 허용한다(평가만 교원 담당)	①	②	③	④	⑤
21-10	교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학생 선택 과목에 한하여 교원자격이 없는 외부 강사의 단독 수업과 평가를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교 및 응답자 배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주세요.

0. 학교 코드(혹은 학교명)

학교:

1. 학교 배경

1) 학교 소재지

- ① 특별·광역시
- ② 중소도시
- ③ 읍면 지역

2) 설립 유형

- ① 국·공립고
- ② 사립고

3)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구분

- ① 연구학교
- ② 선도학교
- ③ 연구 및 선도학교 아님

2. 응답자 배경

1)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 ① 5년 이하
- ② 6~10년
- ③ 11~15년
- ④ 16~20년
- ⑤ 21~25년
- ⑥ 26년 이상

2) 선생님의 직위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교장·교감
- ② 수석교사
- ③ 부장교사
- ④ 담임교사
- ⑤ 교과담당 교사
- ⑥ 진로진학상담교사
- ⑦ 기타()

3) 귀하의 담당 과목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④ 사회 ⑤ 역사 ⑥ 도덕 ⑦ 과학 ⑧ 체육 ⑨ 음악 ⑩ 미술
- ⑪ 기술·가정 ⑫ 제2외국어 ⑬ 한문 ⑭ 교양

[부록 2] 설문조사지(학부모용)

고교학점제에 관한 의견 조사

(학부모용)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고교학점제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연구책임자 황은희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임종헌

(043-5309-338 / limjh@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박인선

(043-5309-305 / seon0330@kedi.re.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교육과정
- ② 고교 내신 평가제도
- ③ 대학입시 제도
- ④ 교원(수급, 양성 및 연수 등)
- ⑤ 시설 및 인프라
- ⑥ 기타 (_____)

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교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 홍보 및 의견 수렴
- ②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및 과목 개발
- ③ 고교 내신 학생평가 제도 개편
- ④ 필요한 교원 수급 및 교사 업무부담 경감
- ⑤ 교원 연수
- ⑥ 복수전공 필수 등 교원양성과정 개편
- ⑦ 학업 상담 전담 교사 배치
- ⑧ 필요한 교실 확보, 홈페이지 구축 등 시설 확충
- ⑨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편성 등 NEIS 시스템 개편
- ⑩ 기타 (_____)

3. 다음은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다양한 교과 개설
- ② 교(강)사 확보
- ③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
- ④ 수강신청 및 시간표 작성
- ⑤ 공강 시간의 활용 및 생활지도
- ⑥ 공동 교육과정¹⁵⁾ 운영에서의 안전 책임 및 관리
- ⑦ 교실 확보
- ⑧ 기타 (_____)

15) 공동 교육과정이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B학교에 가서 일부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4.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수업 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5.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의 현행 ‘학기’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 ①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② 학사력¹⁶⁾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③ 학사력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수업연한 3년 안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④ 학사력과 수업연한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맞추어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⑤ 기타 (_____)

6. 고교학점제가 도입·시행될 경우,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하게 됨으로써 개인별로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 ②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
- ③ 동아리 활동 시간
- ④ 쉬는 시간
- ⑤ 기타 (_____)

16) 학사력이란 학교의 한 학년을 규정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학사력에서는 올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학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1. 공간 시간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 관리
- ②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
- ③ 학생 및 교원 사전 연수
- ④ 시설 및 인프라 확충
- ⑤ 기타 (_____)

7.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과목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이수제는 학생이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의 학업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F, 미이수), 해당 교과(목)를 다시 수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고교학점제에서는 미이수(F), 즉 ‘해당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나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미이수자(학점 비부과자, 학점 미취득자)로 처리되며, 미이수 학생에게 해당 과목에 대해 재수강할 기회를 주는 것임.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7-1. (①, ②에 응답한 경우만) 재이수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응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이수제보다 대체 교과 이수제 도입
- ② 재이수제보다는 소정 보충교육 도입
- ③ 기타 (_____)

7-2. (③, ④에 응답한 경우만)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기준 적용
- ② 필수교과, 선택교과 등 교과(목)별 다른 기준 적용
- ③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 ④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 ⑤ 기타 (_____)

8. 다음은 현행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교사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교사 역할: 생활지도, 교과 외 활동지도, 학급경영, 사안처리, 학부모 관계 형성 등

- ① 현행 담임의 역할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
- ②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 ③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¹⁷⁾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 ④ 기타 (_____)

9. 학교 여건 상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2가지 선택)

- ① 순회교사¹⁸⁾ 활용
- ②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
- ③ 산학겸임교사¹⁹⁾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력 활용
- ④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 ⑤ 학생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 ⑥ 학생이 인근 평생학습기관으로 이동하여 수업
- ⑦ 기타 (_____)

10.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 및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입니다.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각 방안의 적절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17) 학습코디네이터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학습을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18) 순회교사란 다른 학교에 소속된 교사이면서 본 학교에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하는 사례를 가리킵니다.

19) 산학겸임교사란 산업현장의 전문 직업인이면서 학교 교사를 겸임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문항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집 10-1 중학기 ²⁰⁾ 를 운영하여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	①	②	④	⑤
고등학교 1학년에 진로 관련 교과를 10-2 개설하여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함 양시켜야 한다(ex.진로와 직업 등)	①	②	④	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교육집중 10-3 학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및 교과 선택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①	②	④	⑤

※ 다음은 응답자 배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0. 학교 코드(혹은 학교명)

학교:

1. 자녀의 정보를 응답해주세요.

___학년 ___반 ___번호

※ 반, 번호 등은 학부모님의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반복) 응답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자녀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 ② 여자

20) 진로교육집중학기는 진로 교육과 진로 탐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학기입니다. 진로 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하지만 지필고사는 그대로 실시된다는 점, 자유학기 활동과 같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며 진로교육에만 집중한다는 점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록 3] 설문조사지(학생용)

고교학점제에 관한 의견 조사

(학생용)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고교학점제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연구책임자 황은희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임종헌

(043-5309-338 / limjh@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박인선

(043-5309-305 / seon0330@kedi.re.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교육과정
- ② 고교 내신 평가제도
- ③ 대학입시 제도
- ④ 교원(수급, 양성 및 연수 등)
- ⑤ 시설 및 인프라
- ⑥ 기타 (_____)

2. 다음은 고교학점제 도입 시 여러분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다양한 교과 개설
- ② 교(강)사 확보
- ③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감축
- ④ 수강신청 및 시간표 작성
- ⑤ 공강 시간의 활용 및 생활지도
- ⑥ 공동 교육과정²¹⁾ 운영에서의 안전 책임 및 관리
- ⑦ 교실 확보
- ⑧ 기타 (_____)

3.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 수업 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21) 공동 교육과정이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B학교에 가서 일부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4.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등학교의 현행 ‘학기’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 ① 현행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② 학사력²²⁾으로 학년만 정하고 학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③ 학사력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수업연한 3년 안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④ 학사력과 수업연한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맞추어 교육청 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⑤ 기타 (_____)

5. 고교학점제가 도입·시행될 경우, 여러분이 직접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 강하게 됨으로써 개인별로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 ② 진로지도 및 탐색 시간
- ③ 동아리 활동 시간
- ④ 쉬는 시간
- ⑤ 기타 (_____)

5-1. 공강 시간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 관리
- ② 지도 및 관리 인력(교원) 확충
- ③ 학생 및 교원 사전 연수
- ④ 시설 및 인프라 확충
- ⑤ 기타 (_____)

22) 학사력이란 학교의 한 학년을 규정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학사력에서는 올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학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과목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재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이수제는 학생이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의 학업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F, 미이수), 해당 교과(목)를 다시 수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고교학점제에서는 미이수(F), 즉 ‘해당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나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미이수자(학점 비부과자, 학점 미취득자)로 처리되며, 미이수 학생에게 해당 과목에 대해 재수강할 기회를 주는 것임.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6-1. (①, ②에 응답한 경우만) 재이수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응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이수제보다 대체 교과 이수제 도입
- ② 재이수제보다는 소정 보충교육 도입
- ③ 기타 (_____)

6-2. (③, ④에 응답한 경우만)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교과(목)에 동일한 기준 적용
- ② 필수교과, 선택교과 등 교과(목)별 다른 기준 적용
- ③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 ④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
- ⑤ 기타 (_____)

7. 다음은 현행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교사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교사 역할: 생활지도, 교과 외 활동지도, 학급경영, 사안처리, 학부모 관계 형성 등

- ① 현행 담임의 역할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
- ② 현행 담임의 역할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 ③ 현행 담임의 역할이 학습코디네이터²³⁾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 ④ 기타 (_____)

8. 학교 여건 상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발생할 경우, 여러분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2가지 선택)

- ① 순회교사²⁴⁾ 활용
- ②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단기인력 활용
- ③ 산학겸임교사²⁵⁾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력 활용
- ④ 온라인 정규수업 확대 (화상수업, 온라인수업 등 IT기술의 활용)
- ⑤ 학생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
- ⑥ 학생이 인근 평생학습기관으로 이동하여 수업
- ⑦ 기타 (_____)

9. 여러분에 대한 진로지도 및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입니다. 각 방안의 적절성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집중학기 ⁹⁻¹ 기 ²⁶⁾ 를 운영하여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	①	②	④	⑤
고등학교 1학년에 진로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ex.진로와 직업 등) ⁹⁻²	①	②	④	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교육집중학기 ⁹⁻³ 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및 교과선택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①	②	④	⑤

23) 학습코디네이터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학습을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24) 순회교사란 다른 학교의 교사가 본 학교에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25) 산학겸임교사란 산업현장의 전문가로써 학교 교사를 겸임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 다음은 응답자 배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0. 학교 코드(혹은 학교명)

학교:

1. ____학년 ____반 ____번호

※ 반, 번호 등은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반복) 응답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26) 진로교육집중학기는 진로 교육과 진로 탐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학기이다. 진로 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하지만 지필고사는 그대로 실시된다는 점, 자유학기 활동과 같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며 진로교육에만 집중한다는 점 등은 차이가 있다.

[부록 4] 델파이 조사지(1차)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 델파이 조사지(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학교 문화의 개선 영역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구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후 2차 조사는 앞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화된 문항을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가급적 모든 문항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심 및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연구책임자 황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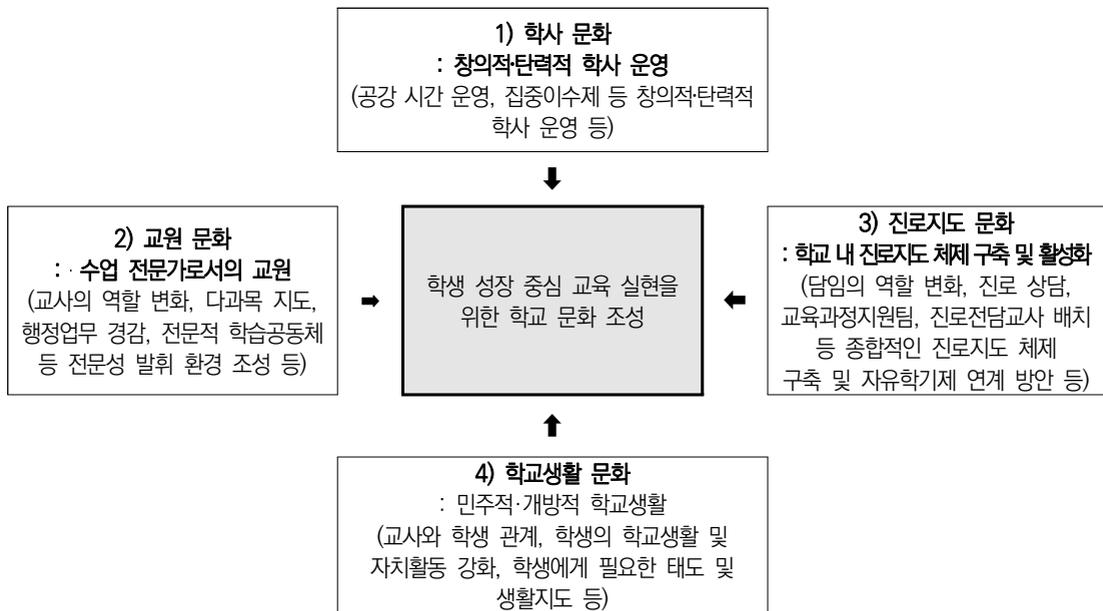
작성하신 조사지는 limjh@kedi.re.kr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델파이 담당자 : 임종현(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limjh@kedi.re.kr / 043-5309-338
- 박인선(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seon0330@kedi.re.kr / 043-5309-305

[참고]

※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4가지 학교 문화 조성 영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앞으로 제시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함. 다만, 하나의 연구에서 넓은 의미의 학교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의 영역을 1) 학사 문화, 2) 교원 문화, 3) 진로지도 문화, 4) 학교생활 문화 4가지로 설정하였음



[그림]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학교 문화 영역

- 1)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학사 운영 등 새로운 학사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 방안	

- 2)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 변화 등 새로운 교원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원 문화 조성**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 방안	

-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내 진로지도 체제 구축 등 새로운 ‘진로지도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진로지도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 방안	

- 4)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생 활동 등 새로운 ‘학교생활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 방안	

5) 앞서 응답해주신(1~4번) 4가지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고등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이유:

[부록 5] 델파이 조사지(2차)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 델파이 조사지(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 실
행을 위한 학교 문화의 개선 영역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구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차 조사는 연구진이 앞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고, 전문
가 여러분께서 리커트 척도에 체크하고 간략한 서술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기급적 모든 문항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
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연구책임자 황은희

작성하신 조사지는 limjih@kedi.re.kr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델파이 담당자 : 임종현(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limjih@kedi.re.kr / 043-5309-338

박인선(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seon0330@kedi.re.kr / 043-5309-305

참고① 2차 조사에서 제시된 문항은 1차 조사 문항과 내용이 유사합니다(총 5개 유형의 문항 구성, 학사 문화 - 교원 문화 - 진로지도 문화 - 학교생활 문화 - 고등학교의 상). 각 문항에 제시된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서 리커트 척도에 체크(✓)를 해주시고 별도 의견은 간략하게 서술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② 각 문항의 보기 순서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 수와는 무관하며, 가독성과 맥락을 중심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참고③ 리커트 척도에 체크(✓)하는 형태의 문항들은 기금적 모든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번호 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어려움 발생 예상	1	2	3	4	5
----	-------------	---	---	---	---	---

1-1.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리커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결 방안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1)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구분	세부 구분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	중요도(✓)					시급도(✓)					학교 문화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표2)에서 선택 기입하거나 추가 의견 제시)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표시	전혀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1차 응답 결과	학생	· 개인 시간표 작성, 공강 시간의 활용 등에 대한 인식 부족 ·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목 선택에 어려움 발생 · 전인 등 불기피한 미이수 과목 발생 우려 · 소외 학생 발생 우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사	· 교사 간 수업 시수 불균형 및 순회교사 활용에 따른 불만 · 교사 간 임무 및 행정 부담 불균형 초래 · 다과목이나 아간강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요구 · 옹합 교과 또는 협력교사 활용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한 갈등 우려 ·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 특정 과목 불림, 소수 선택과목 지원의 어려움 · 집중이수제 운영의 어려움 및 집중이수제 운영을 위한 유연한 학기 운영 필요 · 재이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도 미비 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학교	· 교원 수급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 발생 · 공강 시간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학생 이동 및 공강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 · 학사 운영에 대한 학교 간 편차 발생 우려 · 힘 대입제도 유지 시 고교학점제 정착 어려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해결 방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리커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실제 학교사례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2〉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해결 방안

구분	세부 구분	해결 방안	적합도(✓)				실현가능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실현 가능하다	보통이다	실현 가능하다		전혀 실현 가능하다
학생		· 개인맞춤형 학생지도 방안 마련(고교 3년간 학생 개인별 진로로드맵 구축 등)	1	2	3	4	5	1	2	3	4	5	
		·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2	3	4	5	1	2	3	4	5	
교사		· 공강 시간 활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공강 시간을 위한 학교 내 다양한 시설 구축	1	2	3	4	5	1	2	3	4	5	
		· 소속감, 유대감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련	1	2	3	4	5	1	2	3	4	5	
1차 응답 결과	학교	· 교과목에 대한 인바서 개발 및 제공(대학의 강의 요람 또는 강의계획서 등과 유사)	1	2	3	4	5	1	2	3	4	5	
		· 수업시간표 작성 관련 교사 간 협력 절대적 필요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의 적정 업무수수 규정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1	2	3	4	5	1	2	3	4	5	
		· 교원 연수, 컨설팅,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외부 지원 활용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생활지도 교사, 교육과정 편성 전담 교사, 진로 전담 교사, 교무행정사 배치 확대 등에 대한 검토	1	2	3	4	5	1	2	3	4	5	
		· 교육과정 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한 '학점제 교육과정' 개발	1	2	3	4	5	1	2	3	4	5	
		· 원활한 교사 수급, 학교 시설 관련 재정적 지원 및 근접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마련(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등과 정기적 협의회 운영, 학사관리 공동 지원 개발 등)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공강 시간 활용에 대한 가이드 등 개발 및 제공(다양한 사례, 모형 제시 및 인식 제고, 활용을 위한 연수 제공 등)	1	2	3	4	5	1	2	3	4	5	
		· 학생 이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 방안 마련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고교학점제에 맞게 학교시설 재구조화(소규모 교실, 공강 시간 이용 교실 등)	1	2	3	4	5	1	2	3	4	5	
		· 개별 고등학교 운영(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에 학교선택권 부여 검토)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현 집중이수제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 평가절 대평가제 도입 등) 및 대입제도 개선	1	2	3	4	5	1	2	3	4	5	

※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1.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리커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결 방안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3〉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구분	세부 구분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	중요도(✓)					시급도(✓)					학교 문화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표사에서 선택 기입하거나 추가 의견 제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1차 응답 결과	인식 및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부족, 정책기부감 해소 필요 (수업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미흡) 과목선택 불균형 및 편중에 대한 우려, 위축감 다과목 수업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수급의 어려움 (적절한 연수의 부족, 수업전문성 재고 기회 부족 및 다과목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순회교사 수급의 어려움) 과목선택 지도·상담 역할을 담당할 교사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사 업무과중 문제로 인한 교사 피로도 증폭 (수업준비 및 평가 부담, 과목선택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외부강사 및 순회교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 수업 중심이 아닌 업무 중심 학교 문화 (기존 교사, 학교 여건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과정 운영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어려움, 교사 중심 교과 편성 및 업무 배분 관행)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의 경험 부족 (동교과 교사 간 소통의 기회 제한적, 협력 문화 부재, 협의시간을 만들기 어려움, 전문직 학습공동체를 구성·운영할 교사의 부족,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2.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해결 방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리포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실제 학교사례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4) 교원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해결 방안

구분	세부 구분	해결 방안	적합도(✓)				실현가능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전혀 해당이 없다	적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당하다	매우 적당하다	매우 실현 가능하다	적당하지 않다	적당하다		매우 실현 가능하다	
인식 및 전문성		· 고교학점제 정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 (모든 교사 연수 참여, 학습공동체,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 등 연수의 개별화 및 소규모화 필요)	1	2	3	4	5	1	2	3	4	5	
		· 수업전문가로서 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확대(홍보 필요)	1	2	3	4	5	1	2	3	4	5	
1차 응답 결과		·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 명확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 및 신뢰성 제고	1	2	3	4	5	1	2	3	4	5	
		· 수업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다교과 지도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체계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에 대한 기존 교과교육, 자율적 연수, 외부강사 질 관리(교직에 대한 긍정 교육 이수))	1	2	3	4	5	1	2	3	4	5	
업무 및 문화		· 진로설계 전문역량 신장(전 교원에 대해 과목선택 지도·상담 전문성 개발 연수 실시)	1	2	3	4	5	1	2	3	4	5	
		· 새로운 과목의 수업자료 개발 보급(교수요목, 학생평가 방법 등 기본 지도안 등 학습공동체와 연계 지원)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교원양성단계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의무화, 임용단계 다과목 전공 우대	1	2	3	4	5	1	2	3	4	5	
		· 전담행정요원 배치 및 효율적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보직교사 중심의 행정업무 분리, 과목선택 전담부서 마련 등)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표준시수제 도입, 교원복무 규정 개정(연수, 협의, 수업 연구시간 고정 등)	1	2	3	4	5	1	2	3	4	5	
		· 수업보조교사 지원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다과목 수업, 다수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처우 방안 마련 (보수체계 개선, 학습연구단체 등)	1	2	3	4	5	1	2	3	4	5	
		·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 업무 분장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협력적 교원 문화 조성을 위한 단·중·장기의 실천계획 및 방안을 개발하여 보급	1	2	3	4	5	1	2	3	4	5	
		· 협력적 교원 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 개발 및 공동체 활동 지원(교원동아리, 신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간 코칭, 스태디그룹, 공동수업 계획 회의 모임 등)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수업나눔 문화 조성(수업개방 및 상호피드백 활성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1.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진로지도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리커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결 방안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5〉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구분	세부 구분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	중요도(✓)					시급도(✓)					학교 문화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표5)에서 선택 기입하거나 추가 의견 제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무계획적, 비전략적 과목 선택 우려 · 고2-3시기에 학생의 진로 계획 변경 시 대입 준비의 불확실성 증대 · 고1 이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가중 ·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을 찾는 '진학 중심 진로 설계' 발생 ·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교육과정에 국한된 진로를 설계, 선택해야 하는 제약 발생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교사 간 역량 차이가 매우 큼 · 특정교사(고1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에게 진로 지도 및 수강신청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 진로지도와 관련한 교사 간 역할 구분 갈등 (고1 담임교사, 3학년부장,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담당 교사, 교과 교사 등) ·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 경험과 역량 부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교의 교육과정 · 학생과 교사 간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학교 업무분장 체계(교무, 연구, 학생, 학년, 창체, 방과후 등)와 고교학점제 진로지도 업무 간 불일치 ·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 (영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이고, 공부에 흥미가 없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고교학점제를 위한 진로지도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2.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진로지도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해결 방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리커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실제 학교사례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6〉 진로지도 영역 학교 문화 - 해결 방안

구분	세부 구분	해결 방안	적합도(✓)					실현가능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1차 응답 결과	학생	· 학생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로드맵 북(신로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작성 지원 · 대학의 전공 계열별로 연계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작성 및 제공 · 진로설계는 학생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안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사	· 진로전담교사의 양성 과정 내실화, 고교학점제 관련 추가 연수 강화 ·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구체화 및 명확화 · 모든 교사들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제공 · 학교 내 진로지도 및 교육과정 상담 겸임 교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 교사의 각 교과전문성에 '교과 연계 진로'를 포함시켜 교과 내에서 관련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학교	· 학생을 타율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보는 인식 변화 ·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진로진중주간 등) 편성 ·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환경 조성 시 상담공간에 대한 고려 강조 · 진로 전담 부서 외에 교육과정 전담 부서 설치 · 학교 업무체계를 진로-교육과정-연구-생활지도 축으로 재구조화 · 고1 시기에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 · 중학교와 연계된 진로 연계 교육 필요(자유학기제 이후 진로 프로파일 공유) · 인근 대학 및 지역 기관(기업)과 연계 체제 강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 활성화, 중3 시기에 자유학기제 또는 진로진중학기제 편성 ·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후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상담이력제 도입 ·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진로교육 도입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고교학점제를 위한 진로지도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1.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리커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결 방안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7〉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조성 - 예상되는 어려움

세부 구분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	중요도(✓)					시급도(✓)					학교 문화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표 8〉에서 선택 기입하거나 추가 의견 제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1차 응답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책무성, 윤리성 부족 · 과도한 학생 선택의 부작용 · 학생의 과목 선택, 과목 수강에서 책임감 및 주관 부족(학생이 적성과 흥미가 아닌 성적 혹은 친한 친구와 함께 수강 등의 이유로 과목을 선택할 위험)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실에 가서 수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 공강 시간의 적절한 활용의 어려움 · 학생 자치를 실행하는 문화의 부족 · 더 이상 학급에 소속되지 않음으로 인한 소속감 문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감 증가 · 교사의 역할 변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및 피로 · 학생 지도의 전문성 및 일관성 필요 · 학생의 권리 강조에 따른 교원의 심리적 부담감 · 학부모의 책임 전가 및 민원제기에 따른 고충 · 다과목 지도 등으로 인한 교사 간 갈등 · 학급관리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 교사-학생 간의 관계 변화로 인한 혼동 및 갈등 초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사- 학생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역할 약화로 인해 학생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교사-학생들간의 갈등 증가 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구분	세부 구분	예상되는 어려움(선결 과제)	중요도(✓)						시급도(✓)						학교 문화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표8)에서 선택 기입하거나 추가 의견 제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1	2	3	4	5	1	2	3	4	5			
	학교	· 소모적인 이벤트성 활동의 증대로 인한 교육과정 부실 · 학부문의 이해와 협조 도출의 곤란 · 학교 시설 관리에 따른 어려움	1	2	3	4	5	1	2	3	4	5			
	기타	· 학교 간 교육과정 공유에 따른 순회 교사의 불만 확대 · 학생 자치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의 미비에 따른 어려움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2.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해결 방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적합도와 실현가능성을 리포트 척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실제 학교사례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8〉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 - 해결 방안

구분	세부 구분	해결 방안	학교생활 영역 학교 문화 조성 방안으로서의 적합도(✓)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방안으로서의 실현가능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1차 응답 결과	학생	· 생활지도 관련 규칙을 정할 때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	1	2	3	4	5	1	2	3	4	5	
		· 교강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	1	2	3	4	5	1	2	3	4	5	
		· 학생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예산 배정, 학생-학부모-교원간의 대화 활성화)	1	2	3	4	5	1	2	3	4	5	
	교사	· 학생 자치 활동이 일과 시간 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1	2	3	4	5	1	2	3	4	5	
		· 학생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재정적 지원	1	2	3	4	5	1	2	3	4	5	
		· 존중 및 배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 강화	1	2	3	4	5	1	2	3	4	5	
		· 학생 간 교육과정 멘토-멘티제 도입	1	2	3	4	5	1	2	3	4	5	
		· 적절한 과목 선택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식을 기증	1	2	3	4	5	1	2	3	4	5	
		·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다양한 혼용 방식 활용	1	2	3	4	5	1	2	3	4	5	
		· 생활지도 관련 규칙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1	2	3	4	5	1	2	3	4	5	
학교	· 소그룹 단위로 모든 교사를 담당화하여 상시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교사의 생활지도 활성화)	1	2	3	4	5	1	2	3	4	5		
	· 담임교사와의 홀름 시간을 학생의 자기성찰, 자율역량 함양,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	1	2	3	4	5	1	2	3	4	5		
	· 각 교과 수업에서 활동 중심 수업, 학생 참여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이에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1	2	3	4	5	1	2	3	4	5		
		·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면제해 주는 방안	1	2	3	4	5	1	2	3	4	5	
		· 3년 담임교사제 실시	1	2	3	4	5	1	2	3	4	5	
		· 교육과정 편성 시 학부모와 학생 의견(진료)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	2	3	4	5	1	2	3	4	5	
		· 수강 신청 변경 규정 및 학기 중 변경 금지 규정 제정	1	2	3	4	5	1	2	3	4	5	
		· 주기적으로 학생의 개별적인 교과목 선택 점검 및 컨설팅	1	2	3	4	5	1	2	3	4	5	
		·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 강화	1	2	3	4	5	1	2	3	4	5	

구분	세부 구분	해결 방안	적합도(✓)				실현가능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학교생활 참여	학교 문화	조성	방안으로서의 적합도	학사 영역	학교 문화 조성	방안으로서의 실현가능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자신의 과목 선택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관을 기질 수 있도록 교육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체제 개선 · 과목 이수 슈퍼바이저를 고용하여 학생 지도(과목 선택, 공강 시간 활용 등) · 담임교사제를 폐지하고, 교과교사와 생활지도전담 교사제 도입 · 학부모 연수 · 입학 초기 신입생 워크숍을 통해 교원, 학교를 아우르는 학교 공동체의 목표와 실천사항 제시 · 행사성 활동보다는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배움을 강조 · 학교장의 전문성 제고 및 확고한 리더십 확보 · 학교 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임 · 대학교와 같은 생활지도 방안 도입(학생 개인의 책임 기반, 출결 단순화 등) · 학부모와의 파트너십 형성 · 학점제에 적합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혁신 	1	2	3	4	5	1	2	3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협력학교 간 학사 일정 통일 · 교육과정 운영부 등 운영 조직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점제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방식, 주제 등에 대한 재정비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 문제 발생 시 학교나 교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홍보 · 다교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 순회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학교 간 교류, 학교-지역 간 교류 활성화 	1	2	3	4	5	1	2	3	4	5	
	기타		1	2	3	4	5	1	2	3	4	5	

추가 의견 ※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고등학교의 모습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1차 조사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실제 학교사례 및 추가 의견 칸에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표 9〉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구분	세부 구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적절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매우 적절하 지 않다	적절하 지 않다	보통이 다	적절하 다	매우 적절하 다	
1차 응답 결과		· 인격 존중	1	2	3	4	5	
		· 성장	1	2	3	4	5	
		·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척	1	2	3	4	5	
		· 삶의 질	1	2	3	4	5	
		· 조화로운 행복한 삶	1	2	3	4	5	
		· 주체적인 삶(주체적인 인간)	1	2	3	4	5	
		· 자신의 배움과 삶	1	2	3	4	5	
		· 자신의 역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힘	1	2	3	4	5	
		· 미래 역량	1	2	3	4	5	
		· 취업에서 벗어난 대학 1-2학년 중심의 캠퍼스 같은 모습	1	2	3	4	5	
		· 자유로운	1	2	3	4	5	
		· 학생 개인 맞춤	1	2	3	4	5	
		· 학생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적 시민	1	2	3	4	5	
		· 학생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 노력하는 교사	1	2	3	4	5	
		교사	· 보람 있게 가르치는 수업	1	2	3	4	5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습공동체	1	2	3	4	5			
· 교사들의 노력이 생동감 있는 활동들로 채워지는 학교	1	2	3	4	5			
교사 - 학생 관계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습공동체	1	2	3	4	5		

구분	세부 구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 고등학교의 상(像)	적절성(✓)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운영 사례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기입)
			매우 적절하 지 않다	적절하 지 않다	보통이 다	적절하 다	매우 적절하 다	
학교		·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	1	2	3	4	5	
		· 학생의 주체적 배움과 삶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1	2	3	4	5	
		· 학생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1	2	3	4	5	
		· 학생이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적 시민 양성 기관	1	2	3	4	5	
		·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 환경 제공	1	2	3	4	5	
		· 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1	2	3	4	5	
		· 학교의 형태: 중학교등학교 형태,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율형 종합학교	1	2	3	4	5	
		· 신뢰와 배움이 있는 교학상장의 배움터	1	2	3	4	5	
		·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학교	1	2	3	4	5	
		· 경쟁이 아닌 협력의 학교 문화	1	2	3	4	5	
		· 연대와 협력으로 학생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	1	2	3	4	5	
		·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	1	2	3	4	5	
추가 의견								

수탁연구 CR 2019-24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 연구**

발 행 2019년 12월
발 행 인 반 상 진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전화 : 043-5309-114
FAX : 043-5309-819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처 ㈜다원기획 044-865-8115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